

2014년 국립중앙박물관 학술 심포지엄

金冠塚 尔斯智王

금관총과 이사지왕

일 시_ 2014. 7. 11. (金) 10:00 ~ 18:00

장 소_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金冠塚 尔斯智王

금관총과
이사지왕

2014·7·11
(金)

국립중앙박물관

2014년 국립중앙박물관 학술 심포지엄



金冠塚 尒斯智王

금관총과 이사지왕



발표 주제 및 일정

시 간	개 회 사	발 표 자	토 론 자
10:00~10:20	개 회 사	국립중앙박물관장	
10:20~10:30	휴 식	-	
10:30~11:00	기조강연 / 신라 적석목곽분과 마립간시기 왕릉 연구의 현황	최 병 현 (학술원 회원)	
11:00~11:30	제1주제 / 일제강점기 금관총의 조사와 의의	김 대 환 (국립중앙박물관)	
11:30~12:00	제2주제 / 금관총 출토 ‘이사지왕’ 명 대도의 보존처리와 제작기법	권 윤 미 (국립중앙박물관)	
12:00~13:30	점심식사 및 테마전 관람	-	
13:30~14:00	제3주제 / 신라 적석목곽분의 연구와 금관총	박 광 열 (성림문화재연구원)	이 성 주 (경북대학교)
14:00~14:30	제4주제 / ‘이사지왕’ 명 대도와 신라문자자료	이 용 현 (국립대구박물관)	윤 선 태 (동국대학교)
14:30~15:00	제5주제 / ‘이사지왕’ 명 대도와 금관총의 주인공	김 재 홍 (국민대학교)	주 보 돈 (경북대학교)
15:00~15:20	휴 식	-	
15:20~17:50	종합토론	진행: 노태돈 발표자·토론자·함순섭	
17:50~18:00	폐 회	-	

목 차

기 조 강 연

- 신라 적석목곽분과 마립간시기 왕릉 연구의 현황 1
최 병 현 (송실대학교 명예교수, 학술원 회원)

주 제 발 표

- 일제강점기 금관총의 조사와 의의 35
김 대 환 (국립중앙박물관)
- 금관총 출토 ‘이사지왕’ 명 대도의 보존처리와 제작기법 55
권 윤 미 (국립중앙박물관)
- 신라 적석목곽분의 연구와 금관총 71
박 광 열 (성림문화재연구원)
- ‘余斯智王’ 銘 大刀와 新羅文字資料 93
이 용 현 (국립대구박물관)
- ‘余斯智王’ 銘 대도와 금관총의 주인공 113
김 재 홍 (국민대학교)

기
조
강
연

신라 적석목곽분과 마립간시기 왕릉 연구의 현황

최 병 현

(숭실대학교 명예교수, 학술원 회원)

신라 적석목곽분과 마립간시기 왕릉 연구의 현황

최 병 현 (송실대학교 명예교수, 학술원 회원)

목 차	
I. 머 리 말	V. 마립간시기 왕릉의 배치
II. 신라고분의 시기구분	VI. 마립간시기 왕릉의 구조와 변천
III.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형성과정	VII. 여 언
IV. 경주 적석목곽분의 편년	

I. 머 리 말

신라고분이 근대 학문으로서 고고학의 조사와 연구의 대상이 된지 1세기가 넘었다. 신라고분의 조사는 1906년부터 시작되었다. 1921년 경주에서 금관총이 발견된 뒤 일제강점기에 금령총과 서봉총, 황남동 109호분과 황오동 14호분 등의 대소 고분이 발굴조사 되었고, 이들은 신라고분 연구에서 여전히 중요한 논의 대상의 고분으로 되어 있다.

광복 후 한국 고고학은 경주 호우총과 은령총의 발굴조사로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는 천마총, 황남대총과 같은 완전하게 보존된 처녀분의 계획발굴을 통해 신라 마립간시기 왕릉(급) 적석목곽분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다.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경주 조양동유적을 시작으로 사로국 시기의 목관묘·목곽묘를 비롯하여 삼국시대는 물론 통일신라기까지의 수많은 고분유적이 발굴조사 되었다.

그러나 지난 세기 말에 가까이 오면서부터 한국 고고학에서, 특히 한국의 역사고고학에서 신라 고고학은 활력을 잃었고, 조사·연구의 주도권을 다른 분야(지역)에 넘겨준 것처럼 되었다. 그리하여 그동안 많은 유적조사와 분석적인 연구를 통해 중요한 성과들을 거둔 것도 사실

이지만, 아직까지 학계에서 주요 고분의 편년조차도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 글에서는 신라 마립간시기 왕릉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지금까지의 신라고분 연구 성과를 돌아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신라 고고학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도 드러날 것이라 판단된다.

II. 신라고분의 시기구분(표 1)

신라고분은 고신라 - 평지 : 적석목곽분에서 통일신라 - 산지 : 황혈식석실분으로 변천되었다는 것이 일제 강점기 이래의 전통적인 인식이었다. 김원룡은 1977년판 『한국고고학개설』에서 신라고분을 조기(기원 전후~A.D.300), 전기(A.D.300~600), 후기(A.D.600~900)으로 나누었고, 필자는 이를 조기(B.C.100~350), 전기(A.D.350~530), 후기(A.D.530~900)로 수정한 바 있다(최병현 1992). 이제는 많은 유적 조사를 통해 신라고분의 변천과정이 정밀하게 밝혀졌고,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도 큰 이견은 없다. 여기서 신라고분과 신라토기의 변천과정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주지역에서 신라의 역사 전개 과정과 관련된 고분은 묘제상으로 목관묘, 목곽묘, 적석목곽분, 석실봉토분의 순으로 변천되었다. 고분 묘제의 이러한 변천과정은 토기양식의 변화와도 연동되었다. 원삼국시대 이래 경주지역에서 토기양식은 고식와질토기, 신식와질토기, 신라조기양식토기, 신라전기양식토기, 신라후기양식토기, 나말여초양식토기의 순으로 교체되었다.

〈사로국 전기의 목관묘〉 고식와질토기와 목관묘는 영남지방 원삼국시대 전기의 토기양식과 묘제로 경주에서는 사로국 전기에 해당된다. 이들이 영남지방에 출현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경주에서는 늦어도 기원전 1세기부터인 것은 분명하다.

〈사로국 후기의 목곽묘〉 신식와질토기와 목곽묘는 원삼국시대 후기, 경주에서는 사로국 후기의 토기양식과 묘제로 영남지방의 다른 지역들과 함께 경주에서도 서기 2세기 후반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다.

〈신라조기의 주부곽식목곽묘〉 현재의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영남지방에서 신식와질토기에 이어 사용된 토기를 ‘고식도질토기’라고 하고 있지만, 필자는 이를 신라·가야조기양식토기로, 경주토기만을 지칭할 경우는 신라조기양식토기로 규정하고 있다. 경주지역에서 신식와질토기로부터 신라조기양식토기로의 전환은 3세기 중엽부터이며, 경주에서 신라조기양식토기가 성립할 때는 목곽묘에도 변화가 생겨 이전에는 없었던 부곽이 생겨나 주부곽식목곽묘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신라조기의 고분을 주부곽식목곽묘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삼국 · 신라토기			신라고분	월성북고분군
고식와질토기			원삼국(사로국)전기 : 목관묘	(탑동 목관묘)
신식와질토기	1기		원삼국(사로국)후기 : 목곽묘	인왕동고분 C군 6호묘 하층
	2기			인왕동 807-4번지 인왕주유소 부지 목곽묘
신라조기양식토기	1기		신라조기 : 주부곽식 목곽묘 (점토충전 · 석재충전)	월성로 가-30호묘
	2기			월성로 가-8, 12, 29, 31호묘 황오동 385-10번지 인왕동고분 A군 3호묘 호석 하층
신라전기양식토기	1기	1A기	신라전기 : 적석목곽분	인왕동고분 C군 5호묘 황오동 100번지 18호묘 월성로 가-5, 6호묘 황오동 쪽샘지구 C10호묘
		1B기		황남동 109호분- 3 · 4곽 인왕동고분(2002) 10호묘 인왕동고분 A군 4호묘 하층 월성로 가-13호묘, 황남동 110호분 황오동 14호분, 계림로 1,37호묘 등
	2기			황남대총 남분 월성로 나-9호묘, 월성로 가-11-1호묘
	3기			월성로 나-12호묘, 월성로 가-4호묘 월성로 다-5호묘
	4기			천마총
신라후기양식토기	1기		신라후기 : 석실봉토분	노서동 우총(?)
	2기			
	3기			노서동 쌍상총
	4기			노서동 마총
나말여초양식토기				

표 1. 신라토기 · 고분의 시기구분

종래 학계에서는 세장방형의 동혈주부곽식 목곽묘를 신라조기 경주지역 최고 위계의 고분으로 판단하여 ‘경주식목곽묘’ 또는 ‘신라식목곽묘’라고 하였다. 그러나 경주의 외곽지역인 구어리 1호분에서도 대형의 이혈주부곽식 목곽묘가 조사된 바 있거니와, 월성로에서 조사된 신라조기 고분들 가운데에는 이혈주부곽식 목곽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신라조기 경주지역 최고 위계의 고분은 이혈주부곽식 목곽묘였고, 세장방형 동혈주부곽식 목곽묘는 차상위 묘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최병현 2013b).

한편 신라조기의 목곽묘들 가운데에는 전통적으로 묘광과 목곽 사이를 점토로 충전한 것과 달리 점토와 돌을 섞어서 충전하거나 돌만으로 충전한 목곽묘들이 있다. 이들을 ‘사방적석식’ 목곽묘라 규정하여 적석목곽묘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적석목곽(묘)분의 범주는 목곽 주위뿐만 아니라 목곽 천정 위에 상부적석이 있었던 것으로 한정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신라조기에는 지역에 따라 점토충전목곽묘와 석재충전목곽묘 중 한 가지가 있거나 둘이 섞여 있는 유적들이 있는 것이다.

〈신라전기의 적석목곽분〉 경주에서 신라조기양식토기로부터 발전한 본격적인 신라토기를 신라전기양식토기라고 한다. 신라전기양식토기가 사용될 때의 신라고분은 적석목곽분이지만, 토기양식의 전환과 신라조기 주부곽식목곽묘에서 신라전기 적석목곽분으로의 고분 묘제 전환 사이에는 약간의 시차가 있었던 것 같다. 즉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면 경주에서 신라전기양식 토기 1A기까지는 신라조기와 같은 주부곽식목곽묘가 축조되었고, 적석목곽분은 신라전기양식 토기 1B기부터 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적석목곽분에는 적석부 밖으로 둘러진 호석이 있고, 호석 안쪽 상부적석 위로 흙을 쌓아 봉분을 조성하였다. 즉 적석목곽분은 피장자의 위계에 따라 규모는 다르지만 호석으로 한정된 묘역을 갖고 지상에 높은 봉토를 쌓은 고분으로, 경주에서 적석목곽분의 출현은 곧 고총문화가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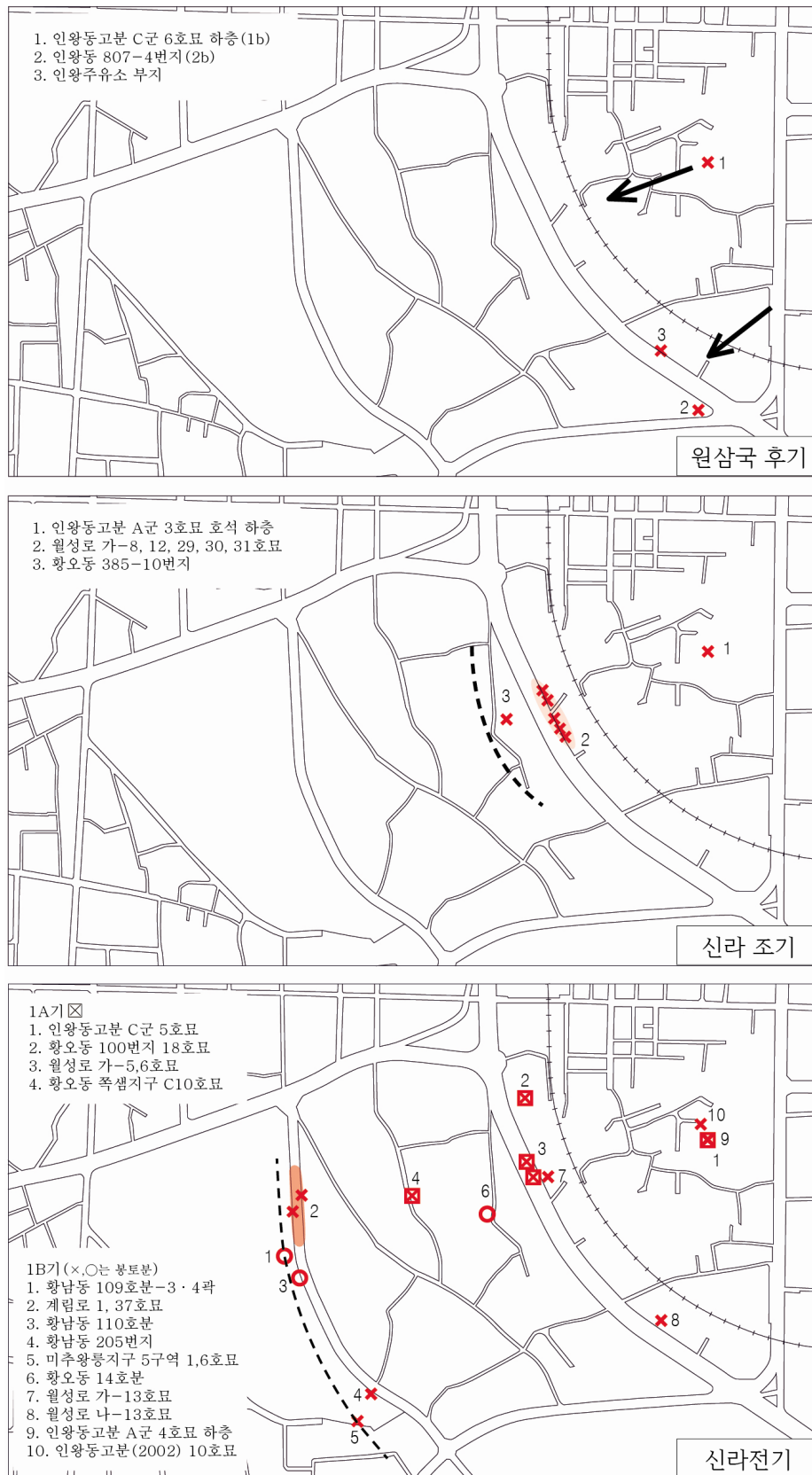
현재까지 경주에서 가장 시기가 올라가는 적석목곽분은 신라전기양식토기 1Ba기에 속하는 황남동 109호분-3·4곽으로, 고분으로는 그 이후부터가 신라 전기고분이며 고총기이다.

〈신라후기의 석실봉토분〉 신라토기는 경주에서 6세기 전반기의 후엽부터 다시 신라후기양식 토기로 전환되었다. 적석목곽분은 신라후기양식토기가 시작된 뒤에도 6세기 전반기까지는 잔존 하였지만, 그러나 경주에서는 신라후기양식토기의 시작과 함께 횡혈식의 석실봉토분이 축조되기 시작하여 고분문화가 변동되었다. 석실봉토분이 축조되기 시작하면서 경주에서 왕릉을 비롯한 고분의 입지는 경주분지의 주변 산지로 바뀌었다. 그러나 석실봉토분 일부는 평지고분군에도 축조되었으며, 월성북고분군 중 노서동에서는 이른 시기의 석실봉토분부터 이미 존재하였다.

Ⅲ.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형성과정(도 1)

경주의 월성 북쪽에는 신라 마립간시기 최고 지배세력의 독특한 묘제인 적석목곽분을 중심으로 한 대고분군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 고분군을 경주 읍남고분군, 경주시내 고분군, 또는 경주시내 평지고분군 등으로 불렀다. 그런데 경주분지 내부 평지 가운데 북쪽의 황성동 일대에서도 대고분군이 조사되면서 이 둘을 구분할 이름이 필요하게 되어, 이를 월성지구고분군(이청규·김대환 2000)이나 신라왕궁고분군(김용성 2009)이라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분군의 명칭 자체는 하나의 유적으로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중성적인 것이 옳겠다고 판단 하여, 필자는 이를 ‘월성북고분군’이라 하고 있다(최병현 2012a).

월성북고분군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김용성(2009)의 선행 연구가 있다. 그 초기 과정은 필자의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신라 전기고분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고 그 이전 고분에 대해서도 편년이나 해석에 다른 점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고분군의 시작부터 필자의 생각을 밝혀둔다. 편의상 원삼국시대 후기, 신라조기, 신라전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도 1. 월성북고분군의 형성과정

1. 원삼국시대 후기

최근 월성북고분군에서 남쪽으로 멀지 않은 탑동에서 사라리 130호 목관묘와 비견되는 원삼국시대 전기의 수장급 목관묘가 조사되었지만(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1), 아직 이를 월성북고분군의 형성과 관련하여 이해하기는 이른다.

그러나 원삼국시대 후기, 경주에서는 사로국 후기에 들어가면 월성북고분군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 1977년 인왕동고분 발굴에서는 적석목곽분들의 하층에서 목곽묘들이 조사되었는데, C군 6호묘의 하층에서 와질토기 대부장경호와 노형토기가 출토되었다(구자봉 1997). 그 중 대부장경호는 필자의 원삼국시대 후기 1b기에 해당하며, 노형토기는 신라조기로 내려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남쪽인 인왕동 807-4번지에서도 와질토기 고배 1점이 출토된 바 있는데(남시진 1993), 필자의 원삼국시대 후기 2b기 형식에 속한다.

한편 아직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1982년경 이 고배 출토지에서 북쪽으로 인접한 인왕주유소 부지에서 파괴된 목곽묘가 조사된 바 있다. 당시 국립경주박물관의 최종규씨가 수습조사하였고 필자도 실견한 바 있는데, 그 곳에는 사방을 깎아냈지만 필자의 어깨 높이 만큼의 미고지 일부가 남아 있었고, 그 미고지에 자리잡아 한쪽 코너부분만 남은 토광묘에서 와질토기 대부장경호와 노형토기를 수습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직 이상의 3개소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원삼국시대 후기부터는 인왕동 지역에 목곽묘들이 조영되어 월성북고분군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월성의 내부는 아니지만 인접한 곳에서도 원삼국시대 후기의 수혈주거지와 수혈유구가 조사되어 와질토기들이 출토된 바 있다(김낙중 1996 ; 이상준 1997). 이러한 예들로 보아 월성지구에는 원삼국시대 후기에 들어와 취락이 형성되고, 인왕동 지역은 그 분묘구역이 되어 목곽묘들이 조영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인왕주유소 부지의 예로 보아 목곽묘들은 그곳의 미고지들에 조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왕동고분 지역과 인왕동 807-4번지 및 인왕주유소 부지는 남북으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서 아마도 두 곳에 각각 별개의 미고지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이 미고지들은 다음 시기 고분들의 진행방향으로 보아 동-서 방향으로 뻗어 있었을 것이며, 목곽묘들은 아마도 인왕동고분 지역을 동단으로 하여 그 서쪽으로 계속 조영되어 갔을 것이다.

2. 신라조기

다음 월성북고분군에서 조사된 신라 조기고분으로는 월성로 가-30호묘(1b기), 12·29·31호묘(2a기), 8호묘(2b기)가 있고, 이들이 위치한 곳에서 서쪽으로 길 건너편인 황오동 385-10번지 칠보장여관 뒤에서 신라조기양식토기 고배(2b기)를 비롯한 토기들이 출토되었다(최병현

1992). 그리고 앞의 원삼국시대 후기 토기가 나온 인왕동고분의 A군 3호묘 호석 하층에서 출토된 토기들 가운데에는 신라조기양식토기 2b기의 토기들이 섞여있다.

이상의 예들로 보아 신라조기에 오면 한편으로는 이미 고분이 조영되어 있는 지역에 누세대적으로 새 고분을 축조해 가고, 다른 한편으로 이전에 고분이 조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지역으로도 고분축조가 확대됨으로써 월성북고분군은 그 범위가 최소한 월성로와 그 서편으로 인접한 황오동 지역까지 나간 것을 알 수 있다.

3. 신라전기

다음 신라전기양식토기 1A기에 해당되는 목곽묘는 인왕동고분 C군 5호묘(1Aa기), 황오동 100번지 18호묘(1Aa기), 월성로 가-5, 6호묘(1Ab기), 황오동 쪽샘지구 C10호묘(1Ab기)가 있고, 계림로 지역에서도 조사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점토충전 또는 석재충전 목곽묘로 발굴 당시에는 봉토가 남아있지 않은 것들이다. 이 시기에도 고분들은 이전 시기에 이미 고분들이 조영되었던 지역에 누세대적으로 축조되는 한편, 서쪽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갔는데, 계림로에서도 이 시기 고분이 존재한 것이 확실하다면 고분 조영은 급속히 서진하여 그 일대까지 도달한 것이 된다.

신라전기양식토기 1B기에 해당하는 조사 고분은 황남동 109호분-3·4곽(1Ba기), 인왕동고분(2002) 10호묘(1Ba기), 계림로 1호묘(1Ba기), 인왕동고분 A군 4호묘 하층(1Ba~1Bc기), 계림로 37호묘(1Bb기), 월성로 가-13호묘(1Bb기), 미추왕릉지구 5구역 1호 옹관묘(1Bb기), 황남동 110호분, 황오동 14호분, 황남동 205번지 고분, 미추왕릉지구 5구역 6호묘, 월성로 나-13호묘(이상 1Bc기) 등이다.

조사된 고분 가운데 이 시기에 가장 서쪽에 위치한 것은 황남동 109호분-3·4곽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라전기양식토기 1B기와 그 이전의 고분이 황남동 109호분의 동쪽에서는 조사되고 있으나, 서쪽에서는 조사된 바 없다. 오늘날의 대릉원지구는 물론 그 북쪽의 노동동, 노서동 지구에서도 이미 많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이러한 현상을 조사 부족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이는 월성북고분군이 신라전기양식토기 1B기까지 서쪽으로 황남동 109호분의 위치쯤까지 확대되었으나 거기서 더 서쪽으로 멀리 나가지는 않았던 것을 말해준다.

한편 위의 고분들 중 황남동 109호분-3·4곽, 황남동 110호분, 황오동 14호분은 분명한 적석목곽분들이다(최병현 1998). 이 고분들은 모두 목곽 위에 상부적석이 축조되고 적석부 외곽으로 호석이 둘러졌으며, 발굴당시 명백히 봉토가 남아있었던 고분들이다. 그러므로 월성북고분군에서 적석목곽분은 신라전기양식토기 1B기부터 축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황남동 109호분보다 서쪽에 위치한 봉토분들이 그보다 뒤에 축조된 것은 물론이지만, 그보다 동쪽의 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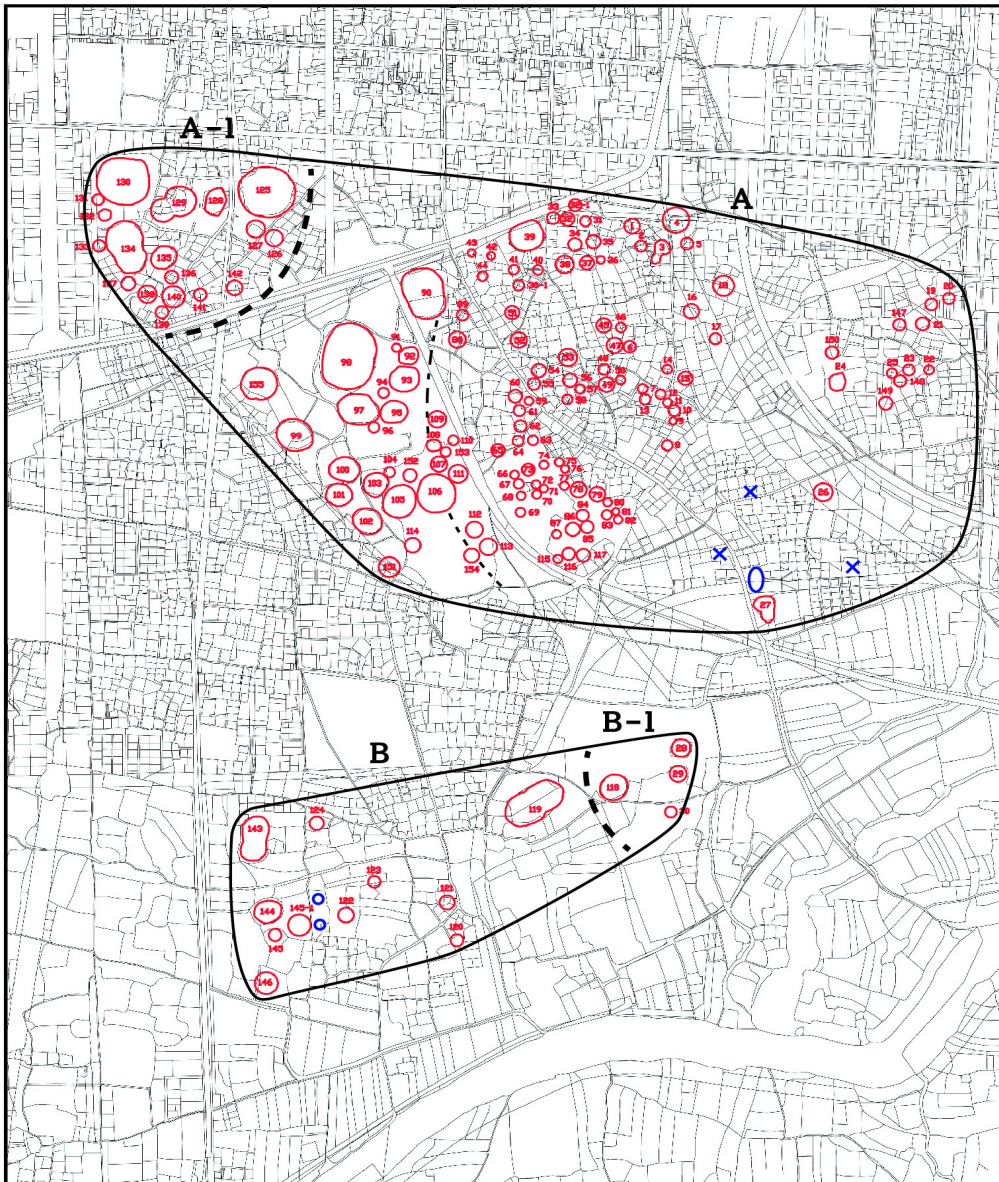
작은 봉토분들도 대개는 그보다 뒤에 축조된 것들로 보아야 한다. 즉 황남동 109호분-3·4곽 출현 이후 고분군은 거대한 봉토분을 중심으로 계속 대릉원지구와 노서·노동동지구 쪽으로 확대되어 가는 한편으로 이미 앞 시기부터 누세대적으로 고분들이 축조되어 온, 황남동 109호분 동쪽 지역에도 적석목곽분들이 새로 들어선 것이라 하겠다. 경주 월성북고분군은 이상과 같은 과정으로 형성된 것이다.

4. 신라전기 월성북고분군의 분화(도 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상에 봉분이 남아있어 월성북고분군의 분포도에 표시된 것은 신라전기양식토기 1B기 이후의 고분들이다. 그런데 월성북고분군의 전체 분포도를 보면 우선 고분군이 크게 남북 두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릉원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북쪽을 A군, 그 남쪽을 B군이라 한다면 앞에서 단계적 형성과정을 설명한 것은 사실상 그 중 A군이다. B군은 발굴조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형성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가운데 동쪽 B-1군의 고분 4기는 횡혈식의 석실봉토분들로 알려져 있어서 그 축조 시기는 아무리 일러도 경주에 횡혈식석실분이 도입되는 6세기 초를 넘어서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을 제외하면 B군은 가장 동쪽의 교동 119호분부터 그 서쪽 황남동의 고분들로 한 군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평면상의 방위로만 보면 교동 119호분은 A군의 황남동 109호분보다 동쪽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A군의 확대가 정확히 정 동→서 방향이 아니라 동쪽에서 약간 편 남하여 서진해 온 것이고, A군의 초대형분들의 축선도 정확히 남-북이 아니라 동남-서북에 가까우므로 교동 119호분의 위치는 방위상 황남동 109호분보다 오히려 약간 서쪽 뒤로 보아야 옳다. 이는 B군이 적석목곽분들로 이루어졌다면 황남동 109호분-3·4곽보다 뒤에 형성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하여튼 경주에 봉토가 현존할 수 있는 적석목곽분이 축조되기 시작하면서 월성북고분군은 일단 크게 A군과 B군으로 분화된 것이다.

한편 고분 분포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는 A군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노서동 125호분(봉황대)을 비롯하여 그 서쪽으로 일군을 이루고 있는 노서·노동동 지구의 A-1군도 어느 시기에 그 남쪽의 A군 본군에서 분화되어 그와 구분되는 별도의 군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월성북고분군 전체를 보면, 정확히 구분선을 긋기는 어렵지만, 이곳 말고도 고분들이 대소 그룹을 이루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에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경주분지 내부는 세 방향에서 둘러싸고 있는 하천들의 범람원이어서 어디를 파도 냇돌과 자갈이 많은 충적지이며 곳곳에 비고가 낮은 늪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월성북고분군 지역의 지형도 전체가 똑같은 평지가 아니라 미고지와 저지대들로 이루어져 있었



도 2. 신라전기 1B기 이후 월성북고분군의 분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7의 도면 활용)

을 것이고, 고분들은 그 가운데 주로 미고지에 축조되었을 것이다. 또 고분들의 배치에 아무런 질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이 고분군에 무덤을 축조할 수 있었던 집단 내에서 분지된 가계나 소집단 별로 묘지가 정해져 있었을 것이다. 지금 월성북고분군의 분포에서 볼 수 있는 고분들의 대소 그룹들은 그렇게 하여 생겨난 것이라 하겠다.

다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A-1군은 남쪽의 A군 본군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독립구역을 이루고 있어서 반드시 다른 소그룹들과 같이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월성북고분군은 적석목곽분이 축조되는 단계에 와서 크게는 A군과 B군으로 분화되었고, 또 A군에서는 A-1군이 별도 구역을 이루면서 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IV. 경주 적석목곽분의 편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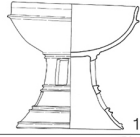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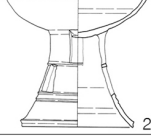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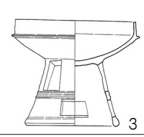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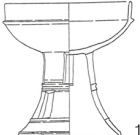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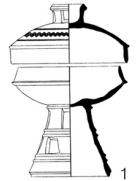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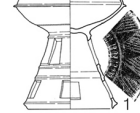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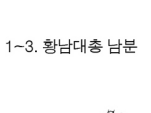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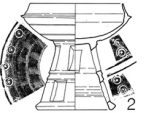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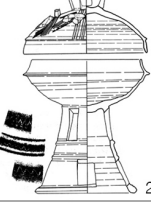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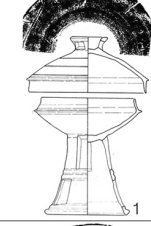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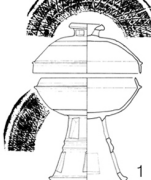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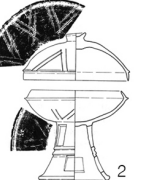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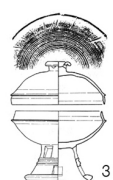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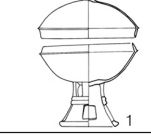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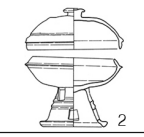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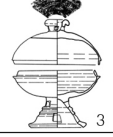
1. 상대편년(도 3)

신라고분의 상대편년은 신라토기의 형식분류를 토대로 하고 있다. 형식분류에 의한 신라토기의 편년 연구에서 전환점을 이룬 것은 藤井和夫의 연구였다(1979). 필자도 일찍이 신라토기의 형식 분류로 경주의 적석목곽분을 6기로 나눈 편년안을 발표한 바 있다(1981a ; 1992). 그러나 과거 필자의 연구는 신라 고고학에서 처음으로 출토 토기 전량의 실측도를 수록한 월성로고분군 발굴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이어서 한계가 많았다.

그 후 경주지역의 신라전기양식토기 편년은 월성로고분군 발굴보고서를 본격 활용한 이성주(1993)와 이희준(1997)의 연구를 거치면서 더욱 정교해졌고, 필자(2000)도 황남대총 이전의 1기에 대해서는 수정 편년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제 큰 틀에서는 경주지역 신라토기와 신라고분의 상대편년에 대한 학계의 견해 차이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필자는 경주지역 신라전기양식토기의 편년 작업을 다시 진행하여 그 중 1기에 대해서는 이미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2013a). 2기 이후의 편년안도 마련되어 있으며, 그 중 3b기까지의 유개식고배 편년표는 전고(2014)에서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는 경주에서 적석목곽분이 축조되는 1Ba기부터 4b기까지의 유개식고배 편년표와 주요 고분의 상대편년을 제시해 둔다.

- 1Ba기 : 황남동 109호분-3·4곽, 중산리 1A-51호분, 사라리 13호분
- 1Bb기 : 월성로 가-13호분, 미추왕릉지구 5구역 1호분, 사라리 113호분
- 1Bc기 : 황남동 110호분, 미추왕릉 5구역 6호분, 황오동 14호분, 월성로 나-13호분
- 2a기 : 황남대총 남분
- 2b기 : 황남대총 북분, 월성로 가11-1호분, 나-9호분
- 3a기 : 월성로 나-12, 나-14호분, (서봉총)
- 3b기 : 월성로 가-4호분, 다-5호분, 금관총
- 4a기 : 방내리 27-A호분, 월성로 가-1·15호분, 천마총, 금령총, 식리총
- 4b기 : 방내리 61호분, 월성로 가-18호분, 미추왕릉지구 9구역 A호분 3곽

	나팔각 B	나팔각 C(2단각대형)	2단각(중형)	2단각(소형)
1Ba	 1	 2	 3	1-3. 사라리 13 2. 중산리 1A-51
1Bb	 1	 2	1. 미추 5구 1  3	2-4. 사라리 113  4
1Bc	 1	 2	1-3. 황남동 110  3	
2a	 1	1-3. 황남대총 남분 	 2	 3
2b	 1	 2	 3	1-3. 월성로 나-9 2. 월성로 가-11-1
3a	1-3. 월성로 나-12	 1	 2	 3
3b	1-3. 월성로 다-5 2. 월성로 가-4	 1	 2	 3
4a	1-3. 방내리 27-A	 1	 2	 3
4b	1. 방내리 61 2-3. 월성로 가-18	 1	 2	 3

도 3. 신라전기양식토기 유개식고배 편년표

2. 절대연대

이제 경주지역 신라고분의 상대편년은 상당히 안정적인데 비해 그 절대연대의 비정에는 아직도 큰 견해 차이가 있다. 현재 학계에서 고분을 비롯한 신라·가야 고고학자료의 연대는 일반적으로 약 50년 정도씩의 차이가 있으며, 최대의 쟁점은 황남대총 남분의 연대이다. 황남대총 남분을 402년의 내물왕릉으로 비정하는 견해와 458년의 눌지왕릉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최고의 적석목곽분인 황남동 109호분-3·4곽의 연대도 4세기 후반 설과 5세기 초 설로 나뉘어, 경주에서 적석목곽분의 출현 시기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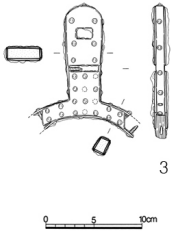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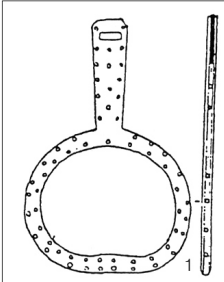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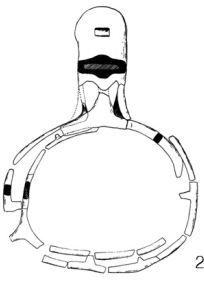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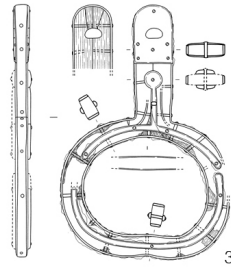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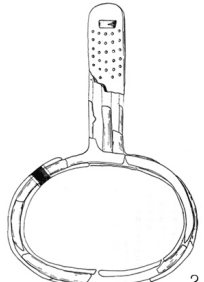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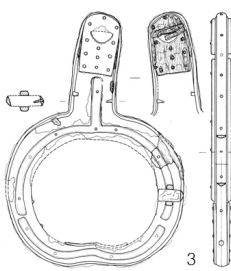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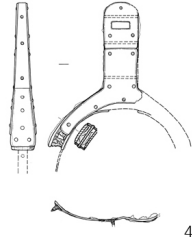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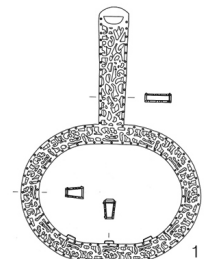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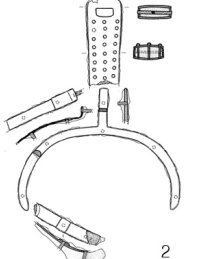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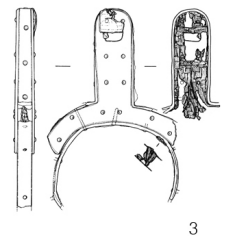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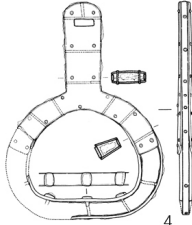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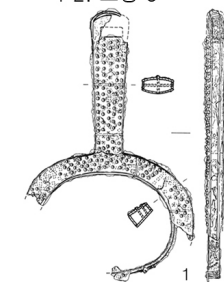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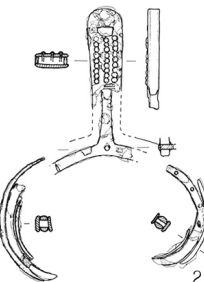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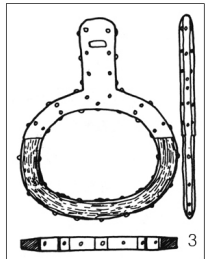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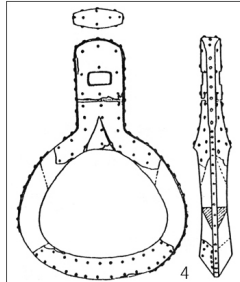
이와 같은 연대 차이를 가져온 신라·가야 고고학자료 편년의 배경에는 이른 바 서기 400년 ‘高句麗軍 南征說’과 ‘황남대총 남분 눌지왕릉설’이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서기 400년 고구려군 남정설을 성립시킨 동인은 이른 바 ‘馮素弗墓 鎧子說’이었으며, 황남대총 남분 눌지왕릉설은 풍소불묘 등자설에 따른 신라고분 연대 설정의 결과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학계는 이와 같은 설 둘이나 하나를 신라·가야 고고학자료 해석이나 고분문화 이해의 준거로 삼는 측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측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1) 풍소불묘 등자설과 신라고분의 편년(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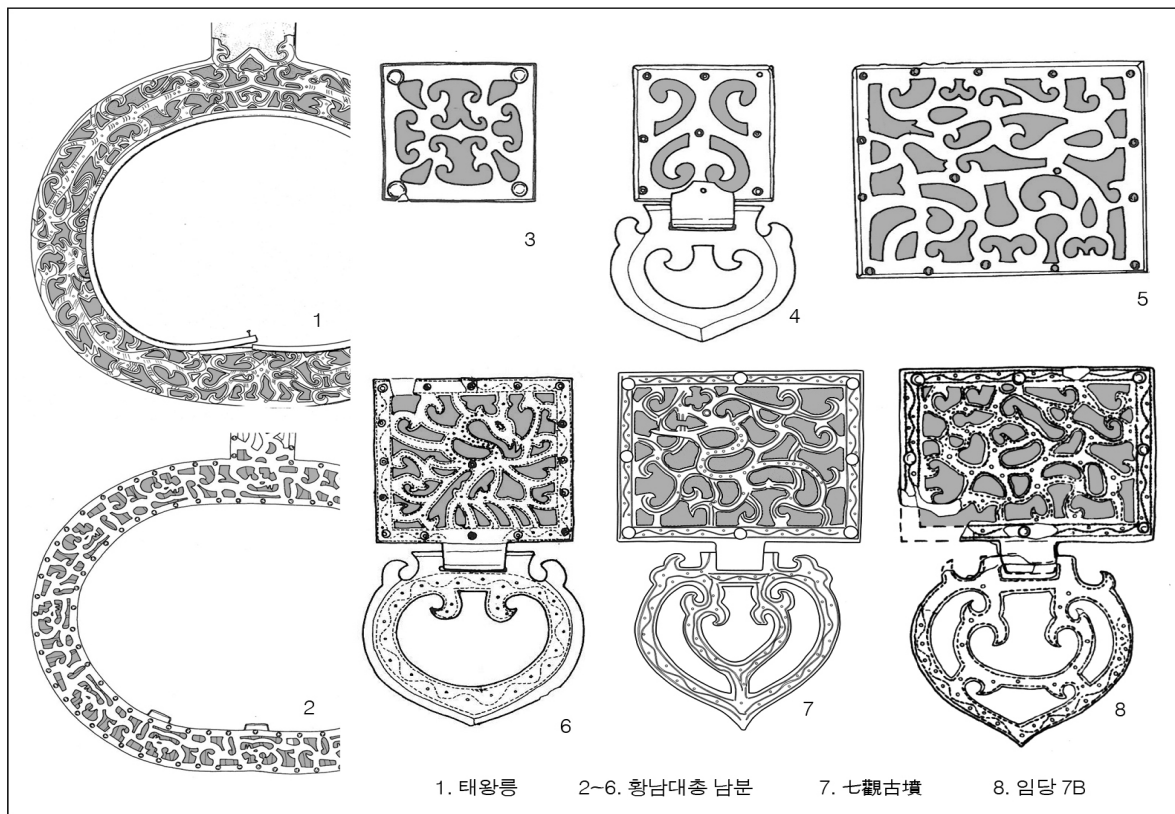
그동안 신라고분의 편년에서 절대연대는 중국 동북지방이나 일본 출토 고고학자료와 교차편년을 통해 비정되어 왔다. 중국 동북지방의 선비족이나 고구려 고분 출토 마구, 일본 열도 고분 시대의 須惠器 같은 것이 절대연대 비정의 자료들이다.

고구려군 남정설도 애초에는 서기 400년 광개토대왕의 남정으로 고구려의 금공품과 마구 등이 한반도 남부지방으로 이입되어 신라·가야 고분문화가 변동되었다는 주장(최종규 1983)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후 고구려군 남정설은 고구려군 남정으로 인한 서기 400년 무렵 김해 대성동고분군 축조 중단과 금관가야 세력 주력의 일본열도 이주설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고구려군 남정설은 사실 역사적 정황에 불과한 것을 마치 고고학자료 해석의 전제처럼 침소봉대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일일이 비판할 수도, 필요도 없다. 그러나 애초 고구려군 남정설의 동인이 된 풍소불묘 등자설은 고고학자료에 대한 해석에서 기인된 것이므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풍소불묘 등자설이란, 415년에 사망한 북연 풍소불묘 발굴자료가 1973년 공표되자(黎瑤渤 1973) 일본의 穴澤啄光가, 일본 고분시대의 등자가 단병등자에서 장병등자로 바뀌었다는 小野山節(1966)의 견해를 들어, 풍소불묘 단병등자가 동아시아 최고의 등자이며(穴澤啄光・馬目順一 1973),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등자 출토 고분은 모두 그 이후로 편년된다는 주장이었다. 穴澤啄光의 이러한 주장이 나온 후, 한일 학계는 지금까지도 이 주장의 수용 불가론과 적극 수용론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분기	장병등자	단·장병등자	단병등자 1	단병등자 2	토기 분기
1A			1. 北票 北溝 M8:2 2. 사라리 65 3. 대성동 1		350 신라 전기 1Ab
1Ba				1. 集安 七星山 96 2. 황남동 109-3·4 3. 복천동 35·36	370 1Ba
1Bb		1·2. 황오동 14-1 		3·4. 복천동 21·22 	380 1Ba 신 단 계 1Bc
2a	1·2. 황남대총 남분 			3·4. 복천동 10·11 	400 2a
2b	1·2. 교동 3 		3. 新開古墳 	4. 馮素弗墓(415) 	2b

도 4. 신라 초기등자 편년표



도 5. 황남대총 남분 금공품과 관련자료

황남대총 남분 철촉								
토기분기 출토유적	1Bb 옥전 23	1Bc 도계동 19 연산동 29	2a 황남대총 남분	2b 예안리 158	3a 도항리 54	3b 옥전 28	4a 옥전 M3	왜계
역자식 도자형 철촉								 1 2 3
공반고배								1. 신봉동 90B-1 2. 宮崎 小木原 3 3. 京都府 宇治二子山南墳

도 6. 황남대총 남분 철촉과 관련자료

수용 불가론은 필자와 이희준의 입장이다. 필자는, 穴澤啄光의 풍소불묘 등자 연대론이 당시 일본 고고학자료의 편년에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동아시아에서 풍소불묘 등자가 최고의 등자가 될 수는 없으며, 신라와 가야고분의 편년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필자는 이와는 상관없이 처음에는 중국 도용의 마구, 칠성산 96호분 등 고구려 고분 출토 마구자료(최병현 1981a ; 1983)와, 그 뒤 중국에서 安養 孝民屯 154호묘와 朝陽 袁台子 벽화묘 마구가 공표된 후에는 이들을 보완하여 교차편년을 하고 중국 학계의 연대관을 수용하여 황남동 109호분-3·4곽과 황남대총 등 신라고분의 연대를 비정하였다(최병현 1992).

이희준도 穴澤啄光의 풍소불묘 등자설 수용 불가론의 입장에서 안양 효민둔 154호묘, 조양 원태자 벽화묘, 집안 칠성산 96호·마선구 1호·만보정 78호 고구려 고분 출토 마구들을 면밀하게 고찰한 다음 황남동 109호분-3·4곽을 4세기 중기로, 황남대총을 칠성산 96호 고구려 적석총보다 약간 늦은 5세기 전엽으로 보아, 남분은 5세기 전엽의 이른 시기로서 내물왕릉으로, 북분은 5세기 전엽의 늦은 시기로 비정하였다(이희준 1995).

이희준의 편년안이 나온 이후 필자는 중국 동북지방의 마구를 새로 늘어난 자료들까지 포함해 정밀하게 고찰한 그의 편년을 수용하여 황남동 109호분-3·4곽을 4세기 후반의 이른 시기로, 황남대총 남분을 4세기 말~5세기로 초로 보았다(최병현 2000). 최근에는 신라전기양식토기 성립기에 황남동 109호분-3·4곽보다 앞서는 1A기가 새로 설정되는 점과 일본 초기 須惠器의 연륜연대도 참고하여 황남동 109호분-3·4곽의 연대를 4세기 후엽으로 약간 하향 조정하였다(최병현 2013a).

적극 수용론은 일본 학계, 그리고 한국에서는 신경철의 입장이다. 穴澤啄光의 풍소불묘 등자설이 나오자 일본 학계에서는 小田富士雄와 藤井和夫가 바로 이를 수용하였다. 小田富士雄(1979)는 칠성산 96호분을 비롯하여 단병이건 장병이건 등자가 나온 고구려, 신라고분은 모두 풍소불묘보다 늦은 5세기 이후라고 하였다. 藤井和夫(1979)는 穴澤啄光의 풍소불묘 등자설을 전제로 황남동 109호분-3·4곽을 5세기 초로, 황남대총 남분을 458년 歿 눌지왕릉으로 비정하였다.

일본 학계에서 그와 같은 일련의 반응이 나오자, 국내에서는 김해 예안리고분 출토 자료들의 연대를 일본 九州지역과 교차편년하여 설정해가던 신경철이 穴澤啄光의 풍소불묘 등자설을 적극 수용하여 ‘서기 400년 고구려군 남정설’로 동래 복천동고분을 해석하고(부산대학교박물관 1983), 복천동고분군 출토 고식등자를 편년하면서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마구 출토 고분은 서기 400년을 넘어설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온 것이다(신경철 1985) .

그러나 그 후 중국에서는 등자를 비롯한 마구가 출토된 鮮卑族 고분의 연대가 고정되었다. 중국의 田立坤은 등자 등 마구 출토 선비족 고분인 효민둔 154호묘의 축조시기는 서기 352년이나 357년 이후로 하한은 370년이라는 것(田立坤 1991), 원태자 벽화묘의 축조시기는 366년

일 가능성도 있지만 354년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밝혀냈고(田立坤 2002), 학계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諫早直人 2008).

또, 일본에서는 고분시대 초기須惠器의 연륜연대 2개가 나왔다. 奈良 佐紀유적 SD6030에서 벌목연대 412년인 미완성 목제품이 초기 須惠器 TK73형식과 함께 나온 데 이어, 京都 宇治市 街 유적의 SD302에서는 벌목연대 389년인 목제품이 초기 須惠器 TG232형식과 공반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철은 고구려군 남정설을 서기 400년 김해 대성동 고분군 축조 중단설과 금관가야 주력세력의 일본열도 이주설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라 일본에서 須惠器의 발생도 서기 400년 금관가야 세력의 이주 이후라고 주장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역으로 마구와 須惠器 출토 일본 고분의 연대를 고구려군 남정 이후로 내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최근 동아시아 초기 등자의 발전과정을 살펴본 바 있거니와 사실 풍소불묘 등자설은 처음부터 오류와 편견에서 비롯된 허구였을 뿐이다. 그러한 오류와 편견을 걷어내고 보면 서기 415년의 복연 풍소불묘 등자나, 풍소불묘 등자설 입론의 배경이 된 5세기 초 일본의 초기 마구 출토 新開고분과 七觀고분의 연대는 오히려 황남대총 남분의 연대가 그 이전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경주 황남동 109호분-3·4곽의 연대가 4세기 후엽, 황남대총 남분의 연대는 4세기 말~5세기 초라는 것은 중국 동북지방의 마구자료나 일본 고분시대 초기 須惠器의 연륜연대와 일본의 초기 마구연대에 의해 입증되는 것이다.

2) 황남대총 남분 눌지왕릉설과 경산 임당고분 편년(표 2)

신라고분의 편년에서 또 다른 문제는 신라의 지방고분, 즉 경주 이외 다른 지역 고분들의 상대편년과, 그리고 경주와 그 지역고분의 병행기 편년의 문제가 있다. 앞으로 학계에서 풍소불묘 등자설이나 서기 400년 고구려군 남정설이 극복되고, 중국 동북지방이나 일본 열도의 교차편년 자료에 대한 이견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들이 바로 잡히지 않고는 신라고분의 연대관 차이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학계에서 신라고분 연대 문제의 최대 쟁점인 황남대총 남분 458년 눌지왕릉설은 사실 처음 풍소불묘 등자설을 전제로 신라토기를 편년한 藤井和夫(1979)가 그 편년 결과로 제기한 주장이었다. 그후 황남대총 남분 눌지왕릉설은 자연스럽게 고구려군 남정설에 의한 신라·가야 고고학자료 편년과 해석의 결과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학계에는 이와는 달리 풍소불묘 등자설이나 고구려군 남정설을 신라·가야 고고학 자료의 편년과 해석의 준거로 삼지 않으면서도 황남대총 남분 눌지왕릉설만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 경산 임당고분 편년을 근거로 삼고 있는 연구자들이 그 대표적이다(김용성 2000 : 2003 ; 박천수 1998 : 2010).

필자는 최근 경산 임당고분 출토 신라토기의 형식분류를 통해 이들의 편년에 많은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의 편년에는 경산 임당고분 자체의 상대편년에도 문제가 있고, 또 경주와 임당고분의 병행기 편년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마련되어 있는 신라 전기양식토기 편년 논문을 통해 발표될 것이지만, 첫째로 그들의 임당고분 편년에는 경산지역 신라토기가 당시 신라의 중앙인 경주토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립되고 전개된 과정이 간과되었고, 둘째로 중앙인 경주와는 달리 지방인 경산지역에서는 고형식의 신라토기가 누적되면서 신형식이 전개된 과정이 파악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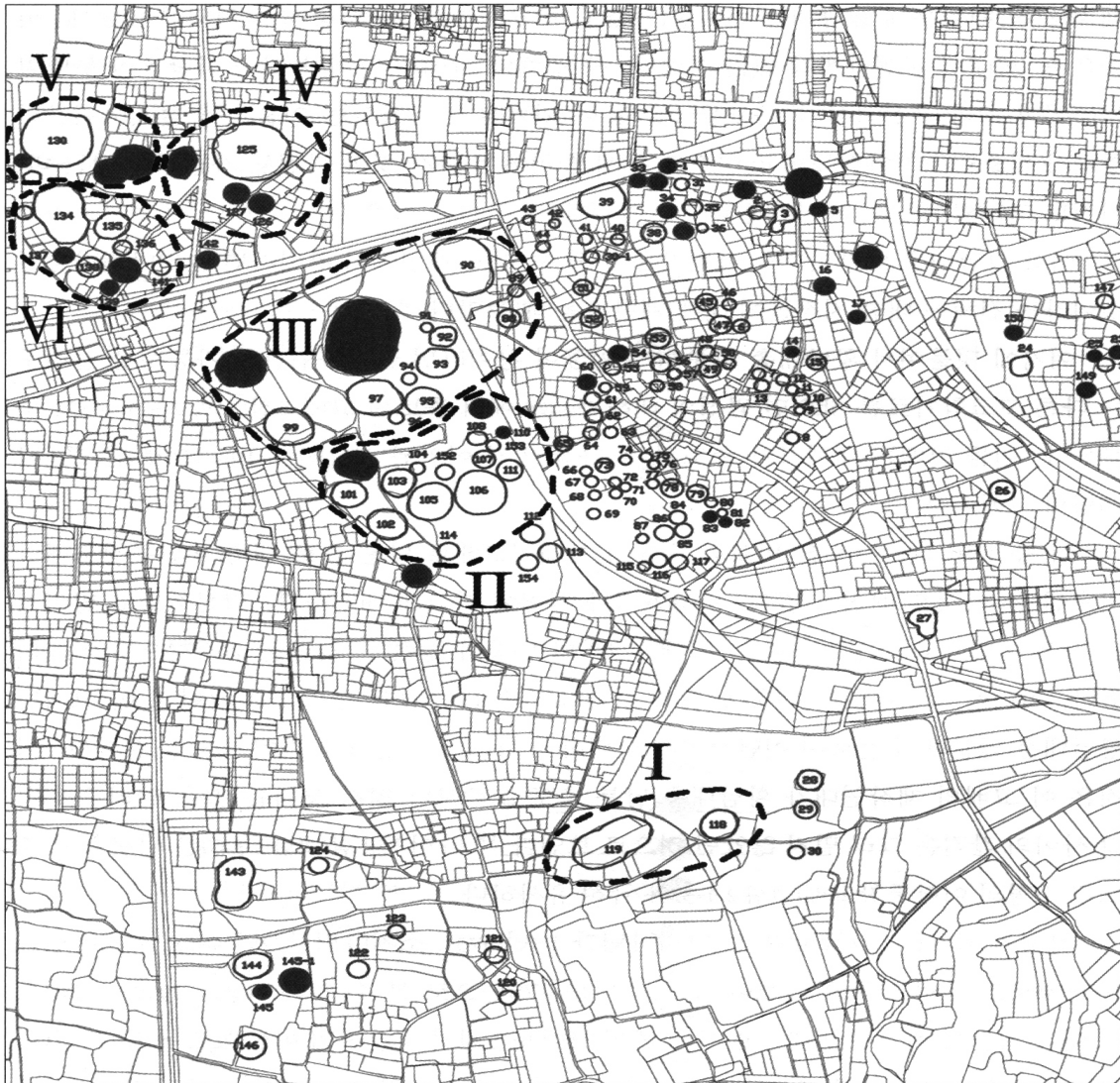
이와 같이 잘못된 임당고분 편년 및 경주고분과 임당고분의 병행기 편년 결과를 가지고 경주고분 연대를 내려보아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바로 잡아 놓고 보면, 임당고분 자료에 의해서도 경주 고분의 연대, 특히 황남대총 남분의 연대는 4세기 말~5세기 초로 비정된다.

경주 토기 분기	최병현 (2013 · 2014)		김용성 (2009)		박천수 (2010 · 2012)		비고
	경주고분	임당고분	분기	임당고분	분기	임당고분	
1Aa	황성동 590-98						
1Ab	월성로 가-5-6-8 쪽샘 C10	임당 G-5-6	1	임당 G-5	VII	임당 G-5-6	
1Ba	황남 109-3-4 중산 1A-51 사라리 13				VIII		
1Bb	월성로 가-13 미추 5-1 사라리 113		2a	옥수채집·북천 21			
			2b	조영 CII-1 CII-2			김용성 경주 : 월성해자
1Bc	황남 110 미추 5-6 월성로 나-13	조영 CII-2	2c	조영 EIII-8 CI-1	IX	임당 7A · 7B	박천수 경주 : 월성로 나-13
					X	임당 7C	박천수 경주 : 황남 110
2a	황남대총 남분	조영 EI-1 조영 EIII-6 조영 EIII-8		조영 EI-1 조영 EIII-6	X I	조영 EIII-8	
2b	월성로 나-9 월성로 가-11-1 황남대총 북분	임당 7A · 7B 조영 CII-1	3a		X II	임당 5A	
3a	월성로 나-12 월성로 나-14	임당 7C 조영 EI-1.2					
3b	월성로 가-4 월성로 다-5 금관총	임당 2북 ·부곡 임당 5A		임당 5B-1 조영 EII-2	X III	임당 2	
4a	월성로 가-1-15 월성로 다-2 방내리 27-A 천마총	임당 5B1 · 5B2 임당 5C	3b		XIV	임당 6A	
4b	방내리 61 월성로 가-18	임당 6A	3c	조영 1B-16	X V	임당 1B-9 임당 1B-11	박천수 임당-> 조영

표 2. 경산지역 고분 편년표

V. 마립간시기 왕릉의 배치

그동안 학계에서는 월성북고분군에 위치해 있을 마립간시기의 왕릉에 대해 조금씩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특히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황남대총 남분으로 내물왕릉설과 눌지왕릉설이 대립하는 사이에 실성왕릉설도 제기되었다. 황남대총 남분 눌지왕릉설을 주장하고 있는 김용성은 또, 내물왕릉이 첨성대 서남쪽에 있다는 문헌기록을 근거삼아 교동 119호분을 내물왕릉으로 비정하고, 현재의 대릉원과 노서동고분군에서 고분들의 소그룹을 구분하고 왕릉의 배치가 월성에 가까운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되었다는 주장(도 7)을 내놓기도 하였다(김용성 2003). 그러나 그의 이 주장은 월성북고분군이 초기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형성되어 왔다는 그의 해석과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도 7. 신라왕궁 고분군 봉토분 분포도(김용성, 2003)

필자는 지금까지 신라고분에서 왕릉의 비정만큼은 의도적으로 피해왔다. 그것은 학계의 신라 고분 편년에서 연대 차이가 크고, 고분군에서 대형분을 중심으로 고분 축조의 어떤 방향성이나 기획성을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월성북고분군의 전체적인 형성과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대형분들의 분포상태에서 몇몇 주요 고분 배치의 기획성에 착목할 수 있어서 이제 마립간시기 왕릉 비정의 실마리를 얻게 되어, 그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아래에서는 그 내용을 밝혀두는 것으로 하겠다.

1. 초대형분 배치의 기획성(표 3, 도 8·9)

〈도 8〉은 월성북고분군에서 이미 발굴조사된 대형 적석목곽분이거나 현존하는 고분 가운데 적석목곽분일 가능성이 큰 대형분들만 고분분포도에서 가려 표시한 것이다. 현존 직경 56m 이상과 34.5m 이상 되는 것을 차별화하여 표시하였다. 표형분은 한쪽이 56m가 넘으면 같이 표시하였고, 노서동의 금령총은 직경이 다른 대형분들에 훨씬 못미치지만 금관이 출토된 고분이어서 표시하였다. 그리고 이 고분들의 크기를 정리한 〈표 3〉의 수치는 고분들의 현존상태이지만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확인되었거나 복원된 황남대총, 천마총, 금관총, 서봉총, 금령총의 직경과 높이는 괄호 안에 넣어 구별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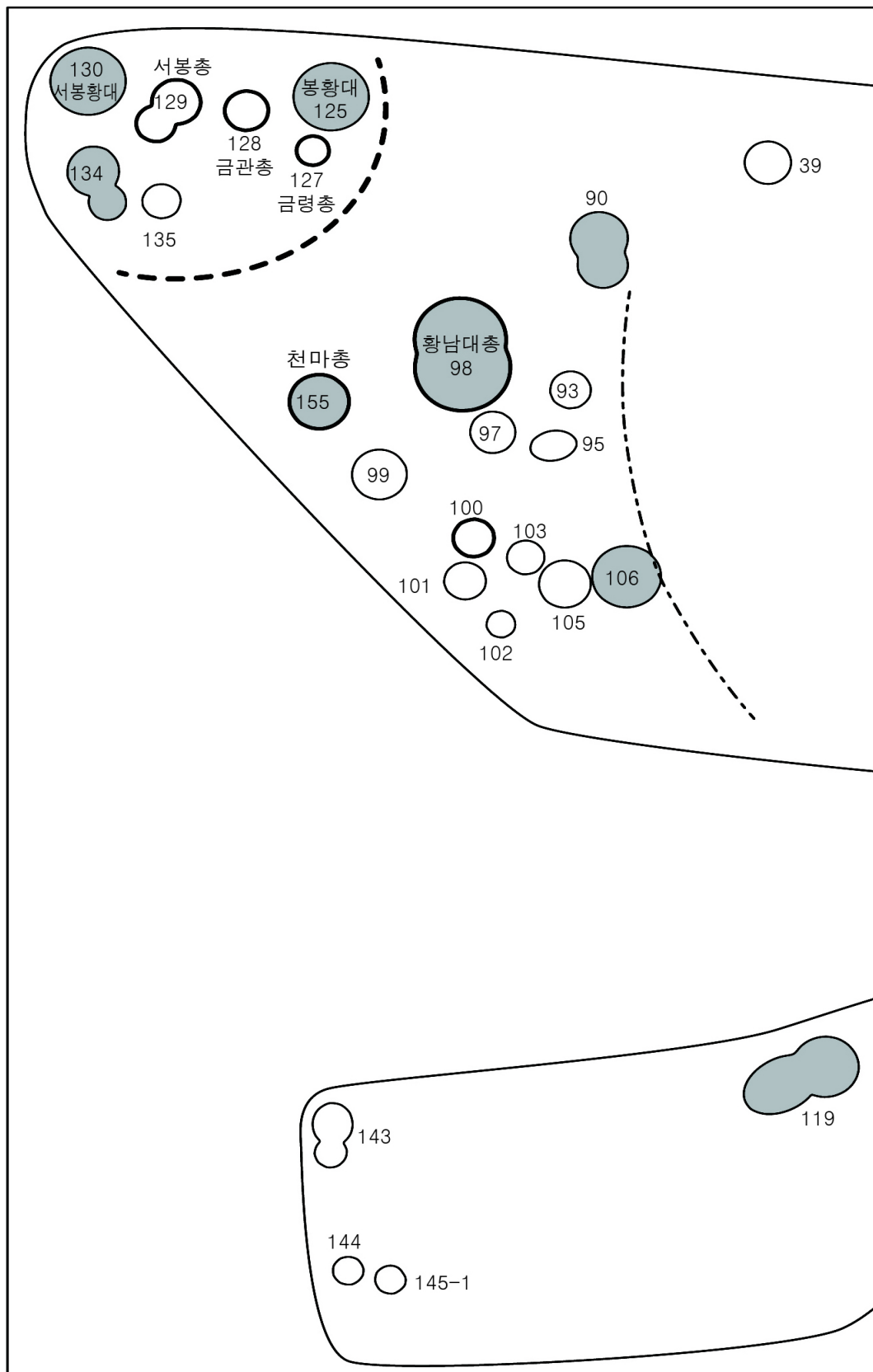
금령총은 예외로 하더라도 금관이 출토된 금관총, 서봉총의 규모를 참고하면 이 고분들 중 상당수의 피장자는 마립간시기에 금관을 착용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력자들이었을 것이며, 이 고분들 중에 마립간 왕릉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대형분들의 분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황남대총을 중심으로 그 남쪽의 황남동 106호분(전 미추왕릉)과 북쪽의 노서동 125호분(봉황대), 그리고 동쪽의 표형분인 황남동 90호분과 그 동쪽의 황오동 39호분(일명 황새묘)의 위치와 분포가 일단 눈에 들어온다.

황오동 39호분을 제외하면 이 고분들은 현존 직경 56m가 넘는 초대형분들이다. 황오동 39호분도 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직경 43m가 넘는 대형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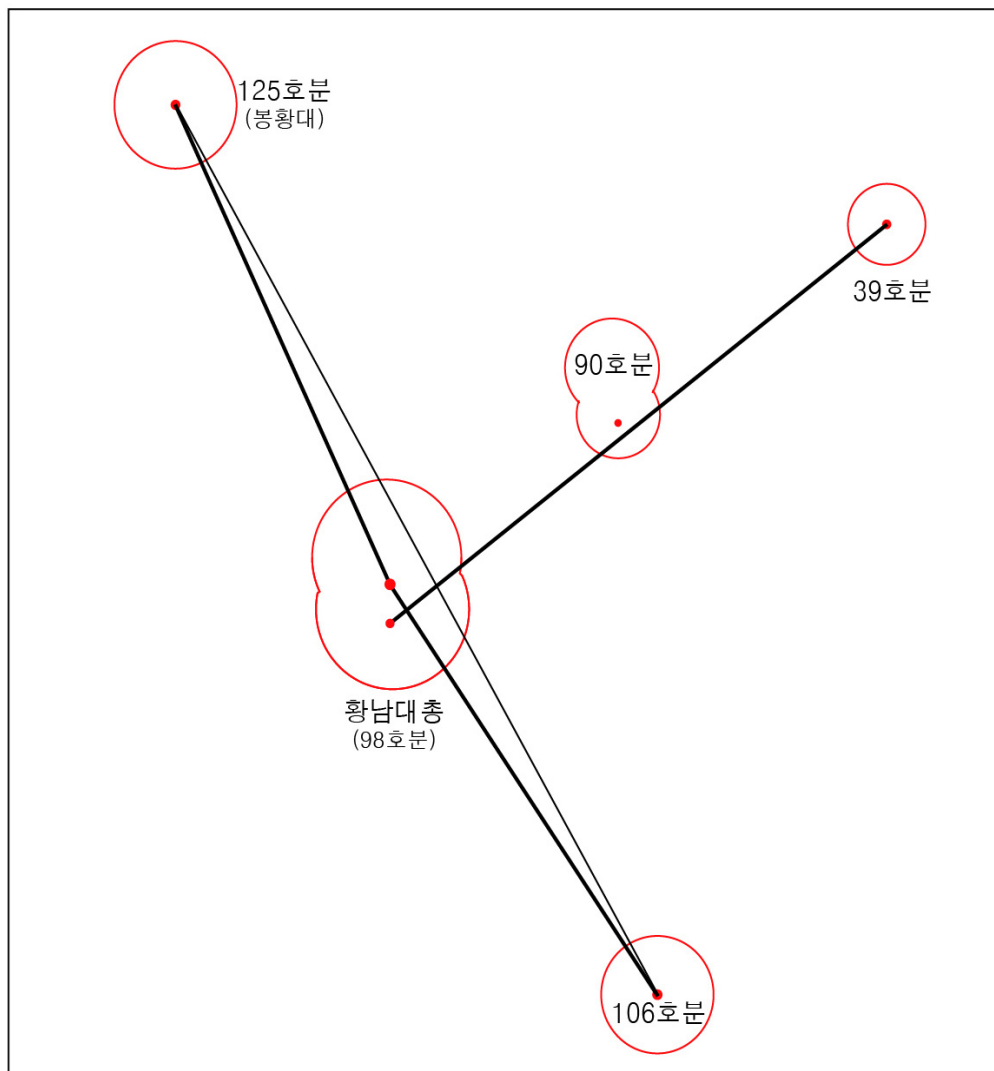
무덤이름	지름	높이	지름/높이
125호(봉황대)	86.6	21.4	4.046729
황남대총 북분	(80)	(22.9)	3.49345
황남대총 남분	(80)	(22.2)	3.603604
130호(서봉황대)	79.9	21.3	3.751174
106호(전미추왕릉)	61.1	13.5	4.525926
천마총	60(47)	(12.7)	4.724409
90호 북분	59.5	16	3.71875
90호 남분	57.2	13.8	4.144928
134호 북분	56.9	18.3	3.10929
134호 남분	46.3	14.1	3.283688
119호 서분	56.5	16.7	3.383234
119호 중분	51.5	14.5	3.551724
119호 동분	44.5	12.6	3.531746
99호	53.9	12.6	4.277778
105호	53.7	14.2	3.78169
97호 서분	47.9	13.8	3.471014
97호 동분	40	8.9	4.494382
102호	45.8	10.3	4.446602
144호	45.6	9.6	4.75
금관총	(45)	(12)	3.75
100호(검총)	43.8	9.6	4.5625
39호	43.4	11.3	3.840708
135호	40.8	9.9	4.121212
143호 북분	40.7	11.5	3.53913
143호 남분	38.4	8.3	4.626506
95호	40.6	7.8	5.205128
101호	40.3	9.1	4.428571
103호	39.3	8.7	4.517241
서봉총	(36)	(9.6)	3.75
145호	35.1	6.2	5.66129
93호	34.5	9.8	3.520408
금령총	(18)	(4.5)	4.0
지름/높이의 평균			4.035253

표 3. 월성북고분군 대형분의 규모(함순섭, 2010 수정)



도 8. 월성북고분군의 대형분(●은 직경 56m이상, ○은 발굴고분)
(국립경주박물관, 2008의 도면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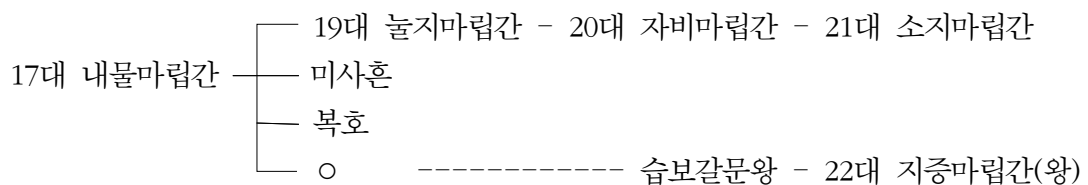
〈도 9〉에 원으로 표시한 고분의 위치와 크기는 정밀한 측량에 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황남동 106호분-황남대총-노서동 125호분은 그 중심이 모두 정확히 직선으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남북 일열을 이루고 간격도 거의 비슷하다. 황오동 39호분-황남동 90호분-황남대총도 동서로 일열을 이루는데 고분 중심점이나 표형분의 남분 중심점을 연결하면 거의 직선에 가까우며 세 고분의 간격도 거의 등간격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5기 고분의 위치와 분포상태는 결코 우연한 것만은 아니며, 그 배치에 무언가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 5기 고분은 어떤 기획에 의해 의도적으로 배치되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고분들의 열과 각각의 위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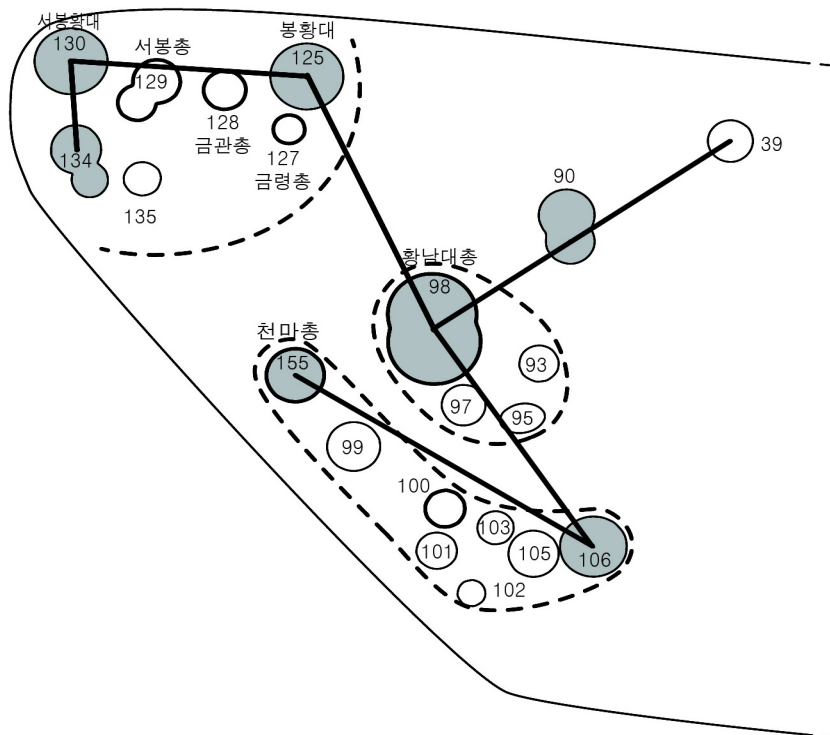
도 9. 초대형분 배치의 기획성

2. 마립간시기 왕릉의 배치(도 10)

그런데 이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황남대총 남분은 4세기 말~ 5세기로 편년되어, 이희준이 제시하였듯이 내물왕릉으로 비정된다. 이제 황남대총 남분이 내물왕릉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월성북고분군 대형분 배치의 기획성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월성북고분군 A-1군에 위치해 있으면서 월성북고분군 전체에서 그 규모가 유일하게 황남대총 남분의 직경을 능가하는 단독고분인 노서동 125호분(봉황대)은 누구의 무덤이고, 이 고분이 속한 A-1군은 왜 A군에서 분화되었으며 어느 집단의 고분군 구역일까. 이를 추론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내물왕 이후 신라의 왕위 계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의 왕위 계승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다.



『삼국사기』의 기록상 내물왕에게는 4명의 왕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그의 장자인 눌지가 내물에 이어 왕위에 오른 대서지 이찬계의 실성왕을 죽이고 19대 왕위에 즉위한 다음에는 21대 소지왕까지 그의 직계로 이어지다가, 이름이 전하지 않는 내물왕자계의 22대 지증왕으로 왕통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도 10. 마립간시기
왕릉의 배치

한편 『삼국유사』에서는 이와 달리 지증왕은 눌지왕의 동생 기보갈문왕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즉 『삼국사기』를 따르면 지증왕은 내물왕의 증손자가 되고 『삼국유사』를 따르면 손자가 된다. 여기서는 일단 『삼국사기』의 계보를 따라 논지를 전개하겠다.

이상과 같은 내물왕계의 계보, 그리고 황남대총 남분과 노서동 125호분의 위치가 월성북고분군이 확장되어온 동-서 방향이 아니라 남-북 방향으로 놓인 점으로 보아 일단 노서동 125호분은 내물왕의 조상묘는 아닐 것이므로 내물왕의 아들들 가운데 왕위에 오른 눌지왕의 능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왕위에 오르지는 못하였으나 손자가 왕위에 오른, 이름이 전하지 않는 내물왕자, 즉 지증왕의 조부의 묘로 상정할 수 있다. 또 A-1군은 눌지왕이나 지증왕 조부의 후손들의 묘로 이루어진 고분군 구역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둘 중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클까. 필자는 노서동 125호분은 그 규모로 보아도, 그리고 뒤에서 보듯이 초대형분 배치의 기획성으로 보아도 내물왕을 이어 왕위에 오른 눌지왕의 능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내물왕의 장자로서 내물왕계의 왕위계승을 확립한 눌지왕의 능은 의도적으로 내물왕릉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되고, 이로부터 그 직계 후손들이 일군의 고분군 소구역을 형성해 간 것이라 판단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물왕의 다른 왕자들은 내물왕릉 주변에 그들의 묘를 축조하여 A군 본군이 계속 형성되어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내물왕릉인 황남대총보다 동쪽으로 튀어나가 있는 황남동 90호분과 황오동 39호분은 내물왕의 父와 祖父의 묘로 보아야 자연스럽다. 이는 월성북고분군의 진행 방향, 즉 황남대총이 축조되기 이전인 신라전기 1B기까지 월성북고분군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확대되며 형성되어 온 과정으로 보아도 그러하다. 그러나 이 두 고분이 모두 원래부터 그 자리에 지금과 같은 규모로 조성되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성북고분군에서 오늘날까지 지상에 봉분이 남을 수 있는 적석목곽분, 즉 고총이 출현한 것은 신라전기 1B기부터이고, 현재까지 조사된 가장 이른 시기의 고총은 1Ba기의 황남동 109호분-3·4곽이다. 그리고 이 황남동 109호분은 신라전기 1B기 고분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한 것으로, 신라전기 1B기까지 확대된 월성북고분군의 서단은 아마도 황남동 109호분의 위치 쯤일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봉분이 남은 적석목곽분들 가운데 그보다 서쪽에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동쪽에 있는 것도 대개는 황남동 109호분보다 뒤에 축조된 것들이라 하겠다.

물론 황남동 109호분-3·4곽은 당시 최고 위계의 고분은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최병현 1980·1 ; 1992) 이 고분 축조 전후, 아니 오히려 그 직전에는 이미 월성북고분군에 그보다 상위 위계의 대형 고총이 출현하여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위치는 황남동 109호분을 서단으로 하는 신라전기 1Ba기까지의 고분군 진출선 가까이에 근접하여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게 보면 황남동 90호분은 그 선에 근접하여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황오동 39호분은 그보다 너무 동쪽으로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축조된, 지금과 같은 규모의 고총이었는지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여기서 상기되는 것이 눌지왕 19년(435) 2월 「修葺歷代園陵」이라는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내물의 장자이면서 내물을 이어 바로 즉위하지 못하고, 계통이 다른 실성에게 왕위가 일단 넘어갔다가, 그를 타도하고서야 내물왕계의 왕위 계승을 확립한 눌지왕의 즉위 과정을 상기하면, 여기서 修葺 대상인 歷代園陵이란 그의 직계 祖先의 것일 수밖에 없다. 즉 내물의 아버지 눌지의 祖父 묘일 황남동 90호분, 내물의 祖父이자 눌지의 曾祖父 묘일 황오동 39호분은 두 고분 모두, 아니면 최소한 황오동 39호분 하나는 이 때, 지금 보는 모습의 고총으로 修葺된 園陵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내물왕릉인 황남대총을 중심으로 그 앞쪽(동쪽)에 황남동 90호분과 황오동 39호분을, 그 북쪽에 노서동 125호분을 고총으로 배치한 것은 눌지왕 때의 기획에 의한 의도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중 눌지왕릉인 노서동 125호분의 위치가 그의 사후 정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획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신라 마립간시기 왕릉 배치의 1차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눌지왕 사후 노서동 125호분이 그의 능으로 축조된 뒤에 그 직계 후손들에 의해 A-1군 구역의 고분들이 조성되어 갔을 것이다.

그 후 소지왕을 끝으로 왕통은 다른 내물왕자의 후손인 지증왕으로 넘어갔다. 왕위에 오른 지증왕은 자신의 직계 조선에 대한 존숭 사업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시조 탄강지 奈乙에 神宮을 세운 것이 본기에는 소지왕 때로 나오지만 잡지 제사조에는 지증왕 때로 되어 있다. 어느 기록이 옳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증왕은 왕위 계승의 정당성이나 정통성을 위해서라도 신궁 건립이나 제사에 적극적이었을 것이고, 눌지왕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직계 조선의 園陵을 修葺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1차 대상이 바로 내물 왕자인 그의 조부의 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물왕계의 왕위 계승 관계를 참고하면 내물왕릉인 황남대총을 사이에 두고 눌지왕릉으로 추정되는 노서동 125호분과 남북으로 대칭적 위치에 있는 황남동 106호분은 바로 내물왕자인 지증왕 조부의 묘(『삼국유사』를 따를 경우 내물왕자인 지증왕의 아버지 기보갈문왕의 묘)일 것으로 추정된다. 즉 황남동 106호분은 지증왕 때 수습된 그의 조부의 묘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¹⁾

1) 황남동 106호분은 현재 미추왕릉으로 전하여지고 있으며, 『삼국사기』에는 미추왕릉에 대하여 “葬大陵—云竹長陵”이라 하였고, 『삼국유사』에서는 미추왕릉의 위치를 “陵在興輪寺東”이라고 하였다. 이근직의 연구에 의하면 미추왕릉에 대한 전승은 고려, 조선시대에도 계속 이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다른 왕릉 소재지 기록과 비교하여 ‘葬大陵’이나 ‘陵在興輪寺東’은 너무 막연한 내용으로 능의 실제 형상이나 정확한 위치를 전제로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중대의 마지막인 혜공왕 때 미추왕이 金姓始祖의 자격으로 五廟의 首位에 모셔지는 것으로 보아, 미추왕릉에 대한 그러한 인식은 8세기 이후 통일신라에 와서 생겨난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이근직 2012).

한편, 『삼국유사』 왕력에는 내물왕릉의 소재지에 대하여 “陵在占星臺西南”이라 기록하고 있고, 현재는 경주 첨성대 서남쪽에 있는 교동 30호분이 내물왕릉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그런데 학계에는 이 기록을 근거로

이렇게 보면 이제 6세기 초로 편년되는 천마총²⁾이 그 동쪽의 황오동 39호분-황남동 90호분-황남대총과 같은 선상의 동-서 일렬로 배치된 것도 예사롭지 않다. 그 위치는 지증왕이 내물계의 적통임을 내세우는 의도적 표현으로 선정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천마총은 곧 지증왕릉이 될 것이고, 그와 같이 보아야 마립간시기의 왕위 계승 관계,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왕릉들의 배치와 정합성을 갖는 것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지증왕 조부의 묘와 지증왕릉의 배치, 그것이 신라 마립간시기 왕릉 배치의 2차 기획이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신라 마립간 시기에는 크게 두 차례의 기획에 의한 의도적인 배치로 왕릉군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지금 신라 마립간시기 왕릉들을 포함하여 A군의 대릉원지구와 노서·노동동 지구에 분포되어 있는 고분들은 크게 3개의 지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A-1군 구역, 황남대총과 그에 근접하여 있는 일군, 그리고 황남동 106호분으로부터 천마총까지 도열한 대형분들 중심의 일군이 그것이다. A-1군이 눌지왕과 그 직계 후손들의 고분 구역임은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눌지왕계인 자비왕릉과 소지왕릉은 월성북고분군 A-1군에 위치하였을 것이므로, 노서동 130호분(서봉황대)과 노서동 134호분이 그 후보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황남동 106호분부터 천마총까지의 일군은 지증왕 조부 직계 후손들의 고분 구역으로 보아야 자연스럽다. 『삼국사기』를 따를 경우 그 중에는 지증왕의 父墓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지증왕의 조부묘로 판단되는 106호분뿐만 아니라 지증왕 대에 수증된 원릉이 더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황남대총과 근접한 일군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 내물 왕자들의 묘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월성북고분군 B군은 어떤 성격일까. 『삼국사기』에 의하면 김씨 왕조 초기에는 왕위 계승을 두고 내물계와 실성계가 대립하였다. 실성마립간은 구도-말구-내물마립간-눌지마립간으로 이어진 김씨왕실 중심 계열과는 계보를 달리하는 대서지 이찬의 아들이라 하였으며, 실성과 내물의 아들 눌지는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서로 죽이려 하였고 결국 후자는 전자를 죽

월성북고분군 B군에서 유일한 초대형분인 교동 119호분을 내물왕릉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근직 연구에 의하면 『삼국유사』 왕력의 내물왕릉 소재지 기록의 저본 사료는 고려시대에 와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하며, 내물왕릉의 위치도 전승되지 않아 1730년(조선 영조 6년) 花溪 柳宜健이 쓴 『羅陵眞蹟說』에는 나오지 않다가 1798년의 『集慶殿舊基圖』에 나오므로 그 사이에 추가로 비정되었을 것이라고 한다(이근직 2012 : 71). 현 내물왕릉은 그 구조로 보아 횡혈식석실분으로 추정되며, 이에 더하여 고분 주위에 둘러싼 장방형 담장의 윤곽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로 보아 이 고분은 어느 때부터인가 특별히 보호받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필자는 그 시기가 내물왕릉이 새로 비정된 조선 후기부터가 아니라면, 아마도 신라 하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무열왕계 중대왕실을 타도하고 들어선 신라 하대왕실은 자신들이 내물왕계라는 것을 내세웠는데, 그들은 제의를 비롯해서 무엇인가 내물왕릉에 대한 존숭사업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삼국유사』 왕력에 내물왕릉이 첨성대 서남에 있다는 기록도 아마 신라 하대 이후 이 고분으로 인해 생긴 전승에 의한 것이고, 조선 후기에 내물왕릉을 새로 비정할 때도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라 내물왕릉을 첨성대 서남쪽에서 찾다가 이 고분을 지목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2) 필자는 과거에 천마총을 5세기 후반으로 편년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토기편년으로 천마총은 신라전기양식토기 4a기에 속하며 5세기 말~6세기 초로 비정된다.

였다. 마립간시기 초기 김씨왕실 내에는 이와 같이 경쟁하는 두 세력이 있었던 것인데, 그 후 결과적으로 신라의 정치를 장악한 것은 내물계였고, 실성계는 일정한 세력을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그 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마립간시기의 정치 상황으로 보아 월성북고분군 B군은 실성계가 떨어져 조성한 고분군이었을 것이며, 규모나 위치로 보아 교동 119호분을 실성왕릉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VI. 마립간시기 왕릉의 구조와 변천(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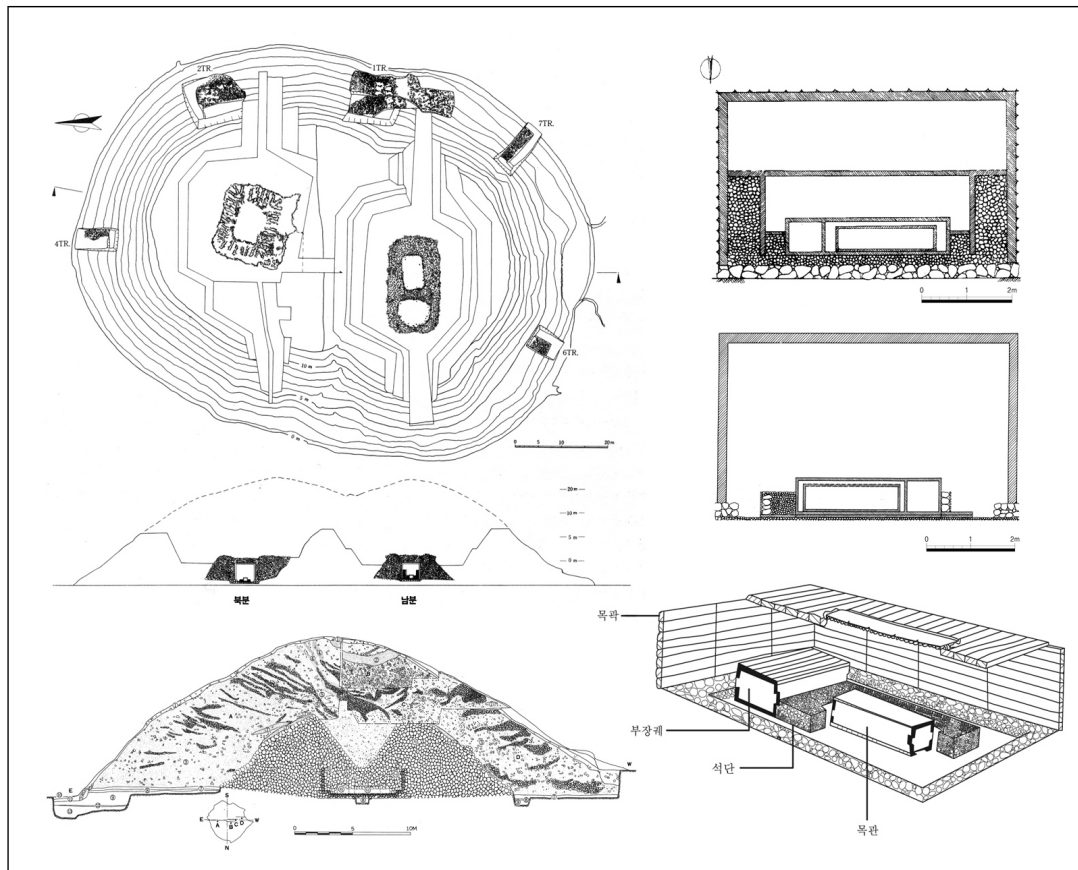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 경주에서 발굴된 고분 가운데 마립간시기 왕(비)릉으로 비정되는 것은 황남대총과 천마총이다. 이들은 경주 월성북고분군 가운데에서도 지금의 대릉원지구 에 자리한 대형의 적석목곽분으로 마립간시기 신라 왕(비)릉의 구조와 그 변천과정을 보여준다. 축조의 상대순서가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북분, 천마총인 이 세 고분을 비교하여 보면 시기에 따라서 그 규모와 내부구조가 다음과 같이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고분의 전체 규모이다. 황남대총은 한국 최대의 고분인 동시에 최대의 표형분인데, 남분과 북분 각각의 봉분 직경은 80m이고, 높이도 남분 22.24m, 북분 22.93m로 거의 같았다. 이에 비해 천마총의 봉분 규모는 발굴 전 상태의 직경 60m, 발굴된 외호석 기준으로 직경 47m, 높이 12.7m였다. 천마총은 고분의 규모로는 신라고분 전체에서 10위권에 해당되고 금관을 비롯한 출토유물도 적석목곽분 가운데 최상급이므로 왕(비)릉 후보의 1차 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에 비해 축조 시기가 늦은 천마총의 봉분 규모가 현저하게 작은 것은 마립간시기 신라 왕릉의 규모가 이른 시기의 초대형에서 시기가 내려오면서 점차 축소되어 간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봉분 내부에 설치된 적석부의 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주부곽이 설치된 황남대총 남분의 적석부 동서길이는 27.2m, 높이 5.4m이고, 부곽 없이 단독곽이 설치된 황남대총 북분의 적석부는 동서길이 24m, 높이 5.7m, 역시 단독곽이 설치된 천마총은 동서길이 23.6, 높이 5.9m로, 황남대총 남분의 부곽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보면 세 고분의 적석부 크기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 더욱이 뒤에서 보듯이 천마총의 낮아진 목곽의 높이에 비하면 적석부 전체의 높이는 시기가 늦은 천마총 쪽이 더 높아진 것이다. 그러므로 고분 규모의 축소는 고분 세부구조 모두의 축소가 아니라 봉분의 규모만 축소된 것이다.

다음으로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의 적석부에 설치된 통나무 목조가구이다. 세 고분 가운데 가장 선축인 황남대총 남분에서는 적석부 내부와 상부에 목조가구가 설치되었고, 그 북분에는

적석부 내부에만 설치되었다. 이에 비해 천마총에서는 목조가구를 설치하지 않고 냇돌만으로 적석부를 구축하였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황남대총 남·북분의 적석부에 비해 천마총의 적석부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니었으므로, 늦은 시기 고분의 적석부에 목조가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적석부 축조기술의 발전을 상정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른 시기 대형분의 적석부에 설치한 통나무 목조가구가 늦은 시기의 대형분에서는 생략된 것이다.



도 11. 황남대총과 천마총의 내부구조

다음으로는 묘곽의 형식과 구조이다. 묘곽의 형식은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황남대총 남분에는 부곽이 설치되었으나 황남대총 북분에서는 부곽이 생략되었고, 천마총도 마찬가지이다. 이로 보면 이른 시기 왕릉급 대형분의 묘곽은 주부곽식이었으나 황남대총 북분 단계에서 부곽이 생략되기 시작하여 단독곽식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황남대총 남분의 주곽은 길이 6.5m, 너비 4.1m, 높이 3.7m의 외곽 안에 내곽이 설치되고 내·외곽의 사이는 잔자갈로 채워진 2중의 목곽이었으나, 북분의 목곽 규모는 길이 6.8m, 너비 4.6m, 높이 약 4.0m로 남분의 외곽 규모보다 약간 큰 수치임에도 내곽 없이 홑곽으로 설치되었다. 즉, 남분의 외곽 안

에 설치된 내곽이 북분에서는 생략된 것이다. 그런데 역시 홑곽인 천마총의 목곽은 길이 6.6m, 너비 4.2m로 평면 규모는 황남대총 남·북분의 목곽과 거의 같았으나 높이는 2.1m로 황남대총 북분 목곽 높이의 약 절반 정도였다. 이는 황남대총 북분에서는 내곽이 생략되었어도 목곽의 높이는 남분에서 내곽이 설치되었을 때의 외곽 높이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천마총에 와서는 불필요한 목곽의 높이를 줄여 목곽의 길이 : 너비 : 높이를 알맞은 비율로 만든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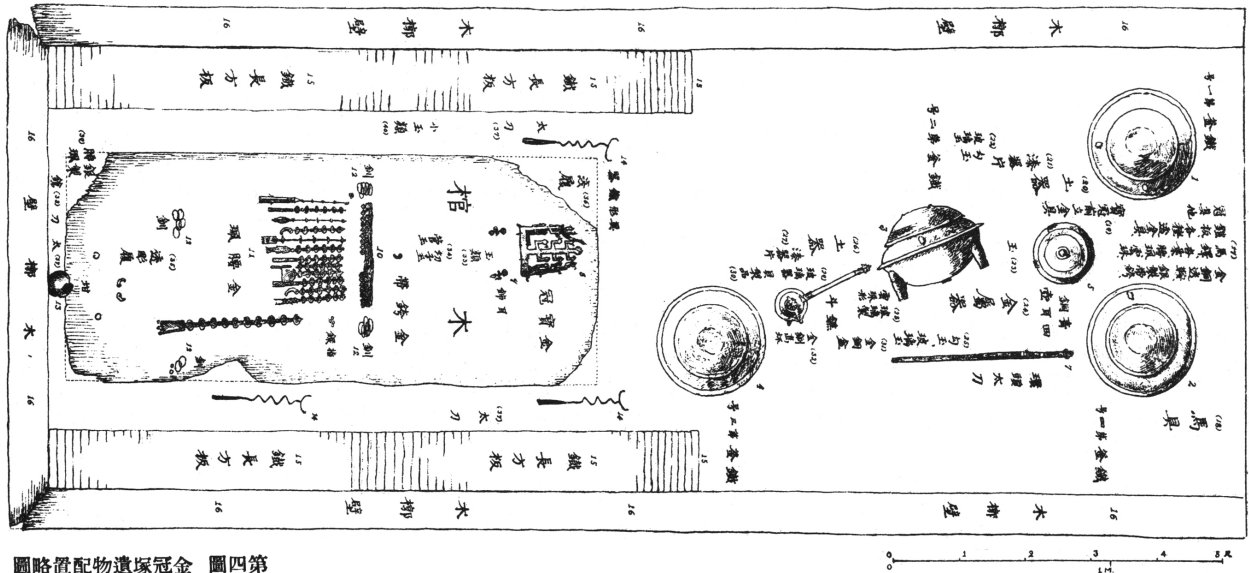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는 목곽의 가운데에 놓인 목관의 구조이다.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에서는 내·외 2중의 목관을 설치하여 외관의 동쪽 부분을 부장품수장부로 하고, 그 서쪽에 피장자를 직접 안치한 내관을 놓았다. 이에 비해 천마총에서는 목관이 홑관이 되면서 피장자의 머리맡인 목관의 동쪽에 별도의 장방형 상자인 부장품수장구를 놓았다. 목관의 구조도 황남대총 남분부터 북분까지 사용된 2중의 목관이 천마총에 와서는 홑관으로 간략화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세 고분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면 시기가 내려오면서 고분 전체의 규모가 축소되고 구조 각부의 세부가 생략되거나 간략화된 것이다. 즉, 마립간시기 신라 왕(비)릉은 이른 시기에는 황남대총 남분과 같이 봉분 규모가 초대형이고 세부구조도 복잡한 형태였으나 단계적으로 봉분 규모가 축소되고 세부구조도 간략화 또는 단순화 되어 늦은 시기에는 천마총과 같은 모습으로 되었다고 판단된다.

VII. 여 언

- 월성북고분군 A군은 동남-서북 방향으로 거의 일직선을 이루고 있는 고분군 서단 밖으로 고분들이 더 나가지 못하고 그 선에서 고분 조영이 끝났다. 이는 아마도 당시의 지형 때문이었을 것으로, 당시 고분군 A의 서쪽은 고분군 지역보다 지대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지왕릉일 가능성이 큰 A-1군의 노서동 134호분이 노서동 125호분(봉황대)-노서동 130호분(서봉황대)과 동-서 일렬로 배치되지 못하고 노서동 130호분의 남쪽으로 내려온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또, 지증왕 조부의 묘로 추정되는 황남동 106호분으로부터 지증왕릉으로 추정되는 천마총까지 도열해 있는 대형분 중심의 일군의 방향도 당시 지형에 따른 것으로 그 방향의 미고지에 고분들이 축조된 것이라 판단된다.
- 필자는 이미 금관이 출토된 고분과 그 규모 이상의 현존하는 고분 수로 보아 신라고분에서 금관을 착용할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가 왕과 왕비의 수를 넘어, 마립간시기 일단의 귀족들까지도 금관을 착용하였을 것으로 본 바 있다(최병현 1980·1; 1992). 2013년 7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은 1921년 금관총에서 나온 환두대도 칼집 끝장식에서 ‘尔斯智王’이

라는 명문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여, 그가 금관총의 피장자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금관총은 다른 금관 출토 고분인 서봉총, 금령총과 함께 앞에서 살펴본 A-1군에 속한 고분으로, 위치나 고분 규모로 보아 마립간 왕릉으로 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圖四第 金冠塚遺物置略圖

-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는 6세기 전엽, 즉 지증왕을 이어 즉위한 법흥왕 연간에 석실봉토분을 축조하기 시작하였고, 중고기 왕릉들도 경주시내 평지가 아니라 서악동 산비탈에 왕릉군을 이루고 있으며, 이 서악동 왕릉군 주위에 신라 최고 위계의 석실봉토분들이 밀집되어 있다(최병현 2012a). 그런데 월성북고분군 가운데에서도 유독 A-1군의 노서동 지구에서 여러 기의 석실봉토분들이 조사된 바 있다. 우총, 쌍상총, 마총이 그것으로, 이들은 경주의 석실봉토분 가운데 왕릉을 제외한 최고 위계의 대형분 급이며, 그 축조 시기도 경주에 석실분이 도입된 초기부터 통일신라 중대 후기까지 걸친다. 이것은 법흥왕 이후 지증왕계의 왕실 세력 주력이 그들의 묘지를 서악동 일대로 옮겨갔지만, 지증왕에게 왕위 계승권을 빼앗긴 눌지왕계 후손들 일부가 그들의 묘를 월성북고분군 A-1구역에 계속 잔류시켰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판단된다.

■ 참고문헌

- 具滋奉, 1997, 「慶州 仁旺洞高塚群의 木槨墓 出土土器 紹介」『韓國 古代의 考古와 歷史』(姜仁求 編), 學研文化社.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2007, 『新羅古墳基礎學術調查研究 II』,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 권용대, 2011, 「울산지역 4~5세기 목곽묘 연구」『야외고고학』12,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金洛中, 1996, 「慶州 月城周邊 出土 原三國時代 後期 土器」『韓國上古史學報』21, 韓國上古史學會.
- 金洛中, 1998, 「慶州 月城의 性格과 變遷」『韓國上古史學報』27, 韓國上古史學會.
- 金斗喆, 2006, 「三國・古墳時代의 年代觀」『日韓古墳時代の年代觀』〈歷博國際研究集會發表文〉, 國立歷史民俗博物館・韓國國立釜山大學校博物館.
- 金斗喆, 2011, 「皇南大塚 南墳과 新羅古墳의 編年」『한국고고학보』80, 한국고고학회.
- 金聖範, 2000, 「皇南大塚 出土遺物 絶對年代測定(14C)結果」『皇南大塚의 諸照明』〈第1回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國際學術大會〉,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 金龍星, 2000, 「皇南大塚 南墳의 編年的 位置 -土器를 中心으로 본 南墳의 年代-」『皇南大塚의 諸照明』〈第1回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國際學術大會〉,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 金龍星, 2003, 「皇南大塚 南墳의 年代와 被葬者 檢討」『韓國上古史學報』42, 韓國上古史學會.
- 김용성, 2009, 『신라왕도의 고층과 그 주변』학연문화사.
- 남시진, 1993, 「I. 인왕동 807-4번지 건물신축부지 발굴조사」『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간급발굴조사 보고서 II)』경주문화재연구소.
- 朴天秀, 1998, 「大伽耶圈 墳墓의 編年」『韓國考古學報』39, 韓國考古學會.
- 박천수, 2010, 『가야토기 -가야의 역사와 문화-』진인진.
- 申敬澈, 1985, 「古式鎧子考」『釜山史學』9, 釜山大學校 史學會.
- 申敬澈, 1997, 「日本 初期 須惠器의 發現」『東아시아 속의 韓・日 關係』〈釜山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97國際學術大會 發表論文〉, 釜山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 申敬澈, 2009, 「韓國考古學資料からみた日本古墳時代年代論の問題點」『日韓における古墳・三國時代の年代論(III)』〈第3回國際學術會議〉, 日本國人間文化研究機構國立歷史民俗博物館・大韓民國國立釜山大學校博物館.
- 이근직, 2012, 『신라왕릉연구』학연문화사.
- 李相俊, 1977, 「慶州 月城의 變遷過程 研究」〈嶺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이성주, 1993, 「낙동강동안양식토기에 대하여」『제2회 영남고고학회학술발표회 발표 및 토론요지』영남고고학회.
- 이청규・김대환, 2000, 「경주지역 분묘조사와 연구」『인류학연구』10,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 李熙濬, 1995, 「경주 皇南大塚의 연대」『嶺南考古學』17, 嶺南考古學會.
- 李熙濬, 1996, 「경주 月城路 가-13호 積石木槨墓의 연대와 의의」『碩學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刊行委員會.

- 李熙濬, 1997, 「토기에 의한 新羅 고분의 分期와 年」『韓國考古學報』36, 韓國考古學會.
- 崔秉鉉, 1980·1, 「古新羅 積石木槨墳 研究 -墓型과 그 性格을 중심으로-」『韓國史研究』31·32, 韓國史研究會.
- 崔秉鉉, 1981a, 「古新羅 積石木槨墳의 變遷과 編年」『韓國考古學報』10·11, 韓國考古學會.
- 崔秉鉉, 1983, 「古新羅 鎧子考」『崇實史學』1, 崇田大學校 史學會.
-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一志社.
- 崔秉鉉, 2000, 「嶺南地方 考古學資料의 編年 -4세기대를 중심으로-」『韓國古代史論叢』10, 韓國古代社會研究所.
- 최병현, 2013a, 「신라 전기양식토기의 성립」『고고학』12-1, 중부고고학회.
- 최병현, 2013b, 「신라왕릉의 묘제와 내부구조의 변천」『신라왕릉 III - 학술연구보고서』경주시·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최병현, 2014, 「초기 등자의 발전」『中央考古研究』14, 中央文化財研究院.
- 咸舜燮, 2010, 「皇南大塚을 둘러싼 論爭, 또 하나의 可能性」『황금의 나라 신라의 왕릉 황남대총』, 국립중앙박물관.
- 洪潛植, 2012, 「신라·가야토기·須惠器의 年 -교차年과 年」『原三國·三國時代 歷年代論』〈(재)세종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3〉, 학연문화사.
- 黎瑤渤, 1973, 「遼寧北票縣西官營子北燕馮素弗墓」『文物』1973-8, 文物出版社.
- 遼寧省博物館文物隊 外, 1984, 「朝陽袁台子東晉壁畫墓」『文物』1984-6, 文物出版社.
- 田立坤, 1991, 「三燕文化遺存的初步研究」『遼海文物學刊』1991-1,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 田立坤, 2002, 「袁台子壁畫墓的再認識」『文物』2002-9, 文物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安養工作隊, 1983, 「安養孝民屯晉墓發掘報告」『考古』1983-6, 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 諫早直人, 2008, 「古代東北アジアにおける馬具の製作年代 -三燕・高句麗・新羅-」『史林』91-4, 京都大學文學部史學研究會.
- 藤井和夫, 1979, 「慶州古新羅古墳編年試案-出土新羅土器を中心として-」『神奈川考古』6, 神奈川考古同人會.
- 小野山節, 1966, 「日本發見の初期馬具」『考古學雜誌』, 52-1, 日本考古學會.
- 小田富士雄, 1979, 「集安高句麗積石墓出土遺物と百濟・新羅の遺物」『古文化談叢』6, 九州古文化研究會.
- 穴澤啄光・馬目順一, 1973, 「北燕・馮素弗墓の提起する問題 -日本・朝鮮考古學との關聯性-」『考古學ジャーナル』85, ニューサイエンス社.
- 國立慶州博物館, 2012, 『慶州 鷄林路 新羅墓 1』.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4, 『皇南大塚 南墳發掘調查報告書(本文)』.
- 釜山大學校博物館, 1983, 『東萊福泉洞古墳群 I』.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1, 『2010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V -경북 2-』.

주 제
발 표
1

일제강점기 금관총의 조사와 의의

김 대 환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 금관총의 조사와 의의

김 대 환 (국립중앙박물관)

목 차

머 리 말

1. 일제강점기 신라 고분 조사

2. 금관총의 조사와 연구

3. 금관총의 구조와 유물 출토 상태

4. 금관총 발견과 의의

맺 음 말

머 리 말

일제는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한반도의 유적을 비롯하여 경주 지역의 고분을 여러 차례 발굴했다. 그러나 신라 고분은 구조가 복잡했기 때문에 조사는 항상 실패했고, 1920년까지 신라 고분에 정대한 이해는 매우 낮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21년 금관총의 발견은 신라 고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신라 고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관총의 발견은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 금관총의 유물 정리 작업과 보고서 발간 사업은 일본 고고학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 한국 고고학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금관총의 발견과 보고서 작업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작업은 한일 고고학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일제강점기 신라 고분 조사

일제강점기 신라 고분 조사는 연구자 대부분이 지적하였다시피(이청규·김대환 2000, 牟乙女雅博 2001, 차순철 2006, 吉井秀夫 2006, 김용성 2010) 금관총 발견(1921)을 기준으로 전후

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금관총 발견 이전 시기는 고적조사 5개년 사업 기간(1916~1920)과 그 이전 시기, 금관총 발견 이후는 조선고적연구회가 발족하는 시기(1931)를 전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1906~1915

도교 제국대학 문학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1906년 가을 약 18일 동안 경주를 답사했다. 이마니시는 경주 주변의 무덤을 대형, 중형, 소형으로 분류하고 중형 이상을 것을 신라 고분으로 추정했다. 이때 동천리 북산 고분과 황남리 고분 1기를 조사하였다. 1909년에는 세키노 다다시와 동행한 야쓰이 세이치 등이 황남리 남총과 서악리 석침총을 조사했다. 하지만 황남리 남총은 발굴하다 벽이 무너져 포기하였다. 1915년에는 역시 세키노 등에 의해 검총(100호), 황남리 남총(재발굴), 보문리 부부총, 금환총, 완총, 동천리 와총이 조사되었다. 또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는 명활산성 부근의 보문리 고분을 조사하였으나 실패하였다.

2) 1916~1920

고적조사 5개년 사업 기간이었으나 앞 시기 신라 고분에 대한 조사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신라 고분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적석목곽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는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바로 하라다에 의한 보문리 고분의 조사로, 이 고분은 1915년 구로이타가 발굴을 시도하다가 적석 부분까지 파고 포기한 고분인데, 하라다는 구로이타의 경험을 토대로 분구 상면을 넓게 파서, 적석 상면을 모두 노출한 후 적석을 제거하고 매장주체부의 유물을 노출했다(吉井 2006). 그 결과, 목관·목곽·적석·봉토라는 구성요소가 추정되었고,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도면으로 제시되었다(김용성 2010).

3) 1921~1931

금관총의 발견으로 신라 고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 시기이다. 신라 고분에 대한 조사가 급증하게 되고 금령총과 식리총의 발굴로 적석목곽묘의 구조가 명확히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1924년 관동대지진의 영향으로 시작된 행정기구 축소정책으로 고적조사과가 폐지되어 총독부 예산만으로 발굴은 어려워지고 외부 예산으로 발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봉총과 데이비드총의 발굴이다.

4) 1931~해방까지

예산이 없어 발굴조사를 거의 못하게 된 고적조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1931년 조선고적연구회가 설립되었다. 이 연구회는 기부금으로 운영되었는데 평양과 경주에 연구소가 설치되었다. 1931년부터 1933년까지는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가, 1934년부터는 사이토 다다시(齋藤忠)가 조수로 있으면서 조사를 담당했다. 중소형 고분을 주로 발굴했으며 대부분 구제 발굴이 중심이 되었다.

연도	고 분 명	조사(자)기관	참고문헌	비 고
1906	동천동 복산 고분(6월)	今西龍(동경대학문학부)	今西龍1906	기록 없음.
	항남리 고분 1기 (미추왕릉 서쪽의 대형)	今西龍(동경대학문학부)	今西龍1906・1908	1909년 조사한 항남리 남총(144호)?
1909	항남리 남총(144호) 건천 금척리 고분 (도로건설 시 파괴 고분 6기 확인)	關野貞, 谷井濟一, 栗山俊一 (대학제국탁지부)	谷井1910a・1910b	석굴암 발견 이왕가박물관 개관 하마다 교토대 부임
	서악리 석침총(12월)	谷井濟一 (대학제국탁지부)	谷井1910a 차순철2006b	-
1910	-	-	-	강제병합 경주신라회 결성
1912	-	-	-	일본 사이토바루 고분군 조사 시작 (1917년까지)
1913	-	-	-	경주고적보존회 발족 하마다 유럽 유학 이마니시 교토대 부임
1915	-	-	-	도리이 류조의 월성 성벽 조사
	검총(100호)	關野貞, 谷井濟一, 後藤慶二 (조선총독부)	奥田梯1920 朝鮮總督府1916 金昌鎬1991 최병현1981 이희준1990	조선물산공진회 오사카 긴타로 경주로 부임 조선총독부 박물관 개관 -
	항남리 남총 재발굴	關野貞, 谷井濟一, 栗山俊一	-	
	보문리 부부총	關野貞, 谷井濟一, 栗山俊一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1916 박보현2000 국립경주박물관2011	
	보문리 금관총, 완총 동천리 와총	關野貞, 谷井濟一, 栗山俊一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1916 박보현2000	
	보문리 고분 (명활산성 부근)	黑板勝美(동경대학)	原田淑人1922 黑板勝美1974	
1916	-	-	-	고적및유물보존규칙 제정 고적조사위원회 설치(총독부 발굴허가제) 고적조사 5개년 사업(1916~20) 하마다 유럽에서 귀국 교토대학 고고학연구실 개설
1917	-	-	-	세키노 유럽 유학
1918	보문리 고분 (1915년 구로이타가 조사한 고분)	原田淑人 (조선총독부)	原田淑人1922	하마다 고적조사위원이 됨 하마다 성산동, 지산동, 교동 고분 조사
1919	-	-	-	3・1운동. 사이토 총독 취임
1920	-	-	-	하마다・우메하라 김해패총 발굴

연도	고 분 명		조사(자)기관	참고문헌	비 고
1921	금관총 (128호)	유물수습 9.27~9.30	諸鹿央雄, 大坂金太郎, 渡理文哉 (경주고적보존회)	濱田耕作・梅原末治 1924a	학무국 고적조사와 설치
		현장조사 10.10	關野貞, 小川敬吉, 野守健 (조선총독부)	濱田耕作・梅原末治 1924b	
		유물정리	濱田耕作, 梅原末治 (조선총독부)	濱田耕作・梅原末治 1928 濱田青陵1932	
1922	-		-	-	월성 성벽조사
1923	-		-	-	하마다 시가켄 카모이나리고분 재발굴
1924	금령총 ・ 식리총		梅原末治, 小泉顯夫 (조선총독부)	梅原末治 1931・1932	금관총 유물 경주로 귀환 고적조사와 폐지 금관총 본문상책(5월)・도판상책(9월) 간행
	옥포총(노동리 4호분, 142호)		藤田亮策, 小泉顯夫 (조선총독부)	국립중앙박물관2000	-
1925	-		-	-	진열관이 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으 로 발전 우메하라 유럽 유학
1926	항남리 소석곽(토우) 항남동 을분		小泉顯夫 (조선총독부)	小泉顯夫1986	-
	서봉총(129호) 7.4~9.14		小泉顯夫 (조선총독부)	小泉顯夫 1927・1986 穴澤味光・馬目順一 2007	동아고고학회 결성
1927	-		-	-	경주박물관 개관 총독부박물관 양산부부총 보고서 간행
1928	-		-	-	금관총 도판하책(3월) 간행
1929	데이비드총 9.3~9.29		梅原末治 小泉顯夫 (조선총독부)	田中萬宗1930 穴澤味光2007	우메하라 유럽에서 귀국 노서리131호 조사
	우총		梅原末治, 小泉顯夫 (조선총독부)	有光教一1955 伊藤秋男1976	-
1931	항남리 82・83호분		有光教一 (조선고적연구회)	有光教一1935	조선고적연구회 발족
1932	황오리 16호분		有光教一 (조선고적연구회)	有光教一1936 有光教一・藤井和夫 2000	하마다 『경주의 금관총』 간행
1932	충효리고분군		有光教一 (조선고적연구회)	有光教一1937	-
1933	노서리215번지 고분		有光教一 (조선고적연구회)	有光教一・藤井和夫 2000	-
	황오리 54호분		有光教一 (조선고적연구회)	有光教一1934	-
1934	항남리 109호분		齋藤忠 (조선고적연구회)	齋藤忠1937a	-
	황오리 14호분		齋藤忠 (조선고적연구회)	齋藤忠1937a	-
1935	충효리고분		齋藤忠 (조선고적연구회)	齋藤忠1937c	-
1936	황오리(98-3번지) 고분		齋藤忠 (조선고적연구회)	齋藤忠1937b	-

〈표 참고문헌〉

- 谷井濟一 1910a 「韓國慶州西岳の一古墳に就て」『考古界』第8編 第4號.
- 谷井濟一 1910b 「慶州の陵墓」『朝鮮藝術之研究』度支部建築所.
- 국립경주박물관 2011 『경주 보문동 합장분』
- 국립중앙박물관 2000 『경주 노동리 4호분』
- 今西龍 1906 「新羅舊都慶州附近の古墳」『歴史地理』第十一卷 第一號, 日本歴史地理研究會.
- 今西龍 1908 「慶州に於ける新羅の墳墓及び基遺物に就て」『東京人類學會雜誌』第269號, 東京人類學會.
- 김창호 1991 「경주 황남동 100호분(김충)의 재검토」『韓國上古史學報』제8호, 韓國上古史學會
- 梅原末治 1931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報告-圖版」『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朝鮮總督府.
- 梅原末治 1932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報告-本文」『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朝鮮總督府.
- 濱田耕作・梅原末治 1924a 「慶州金冠塚とその遺寶 本文上冊」朝鮮總督府.
- 濱田耕作・梅原末治 1924b 「慶州金冠塚とその遺寶 圖版上冊」朝鮮總督府.
- 濱田耕作・梅原末治 1928 「慶州金冠塚とその遺寶 圖版下冊」朝鮮總督府.
- 濱田靑陵 1932 「慶州의 金冠塚」慶州古蹟保存會.
- 小泉顯夫 1927 「瑞鳳塚の發掘」『史學雜誌』第38編 第1號, 史學會.
- 小泉顯夫 1986 『朝鮮古代遺蹟の遍歴』六興出版.
- 奥田悌 1920 『新羅舊都慶州誌』玉村書店.
- 原田淑人 1922 「慶尙北道慶州郡內南面普門里古墳及び慶山郡清道郡金泉郡尙州郡並慶尙南道梁山郡東萊郡諸遺蹟調査報告書」『大正七年度古蹟調査報告』朝鮮總督府.
- 有光教一 1934 「皇吾里五十四號墳甲・乙塚」『昭和八年度古蹟調査概報』朝鮮總督府.
- 有光教一 1935 「慶州皇南里第八十二號墳・八十三號墳調査報告」『昭和七年度古蹟調査報告』朝鮮總督府.
- 有光教一 1936 「新羅金製耳飾最近の出土例に就いて」『考古學』제7卷 第6號.
- 有光教一 1937 「慶州忠孝里石室古墳調査報告」『昭和七年度古蹟調査報告』第2冊.
- 有光教一 1955 「慶州呂南古墳群について」『朝鮮學報』8.
- 有光教一・藤井和夫 2000 「慶州路西里215番地古墳發掘調査報告」『朝鮮古蹟研究會遺稿 I』東洋文庫.
- 伊藤秋男 1976 「韓國慶尙北道善山古墳群(I)」『人類學研究所紀要』第5號(南山大學人類學研究所).
-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第三冊.
- 早乙女雅博 2001 「新羅の考古學調査100年の研究」『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39集(朝鮮史研究會).
- 早乙女雅博 2010 『新羅考古學研究』(同成社).
- 차순철 2006 「경주 서악동 석침총 발굴조사와 그 의의」『문물연구』제10호(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한국 문물연구원).
- 최병현 1981 「경주 황남동 김충(100호분)이 시사하는 몇 가지 문제」『고고미술』152집(한국미술사학회).
- 穴澤咏光・馬目順一 2007 「慶州瑞鳳塚の調査」『石心鄭永和教授停年退任論叢』.
- 穴澤咏光 2007 「慶州路西洞「デイヴィッド」塚の發掘-「梅原考古資料」による研究-」『伊藤秋男先生古稀記念考古學論文集』
- 黑板勝美 1974 「朝鮮史蹟遺物調査復命書」『黑板勝美先生遺文』吉川弘文館.
- 齋藤忠 1937a 「慶州皇南里第九號墳皇吾里第十四號墳調査報告」『昭和九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朝鮮古蹟研究會.
- 齋藤忠 1937b 「慶州呂皇吾里古墳の調査」『昭和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朝鮮總督府.
- 齋藤忠 1937c 「慶州に於ける忠孝里盜掘古墳の調査」『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朝鮮總督府.

2. 금관총의 조사와 연구

1) 발견과 보고서 간행 과정

- 1921년 9월 24일 박문환 씨 집을 공사하던 곳에서 경주경찰서 순사 미야케 요산(三宅興三) 씨에 의해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미야케 순사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유물을 현장에 보관함.
- 유물의 중요성이 고려되어 1921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경주에 사는 총독부 박물관 촉탁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¹⁾ 씨가 주임이 되고 경찰서장 이와미 히사미쓰(岩見久光) 씨가 입회하는 가운데 경주 보통학교장 오사카 긴타로(大坂金太郎) 씨와 고적보존회 촉탁 와타리 후미야(渡理文哉) 씨를 비롯한 기타 여러 사람이 유물 수습.
- 금관총에서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군청을 거쳐 경상북도 도청에 전달되자마자 도청에서는 바로 총독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경상북도 촉탁인 하리가이 리헤이 씨를 현장으로 급파해 수습 작업에 참가하도록 함. 하리가이 리헤이 씨는 28일과 29일 수습 작업에 참가하여 「경주고분 발굴기사」라는 기록을 남김.
- 총독부에서는 고적조사회 간사인 오다 간지로 씨가 박물관 촉탁인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 씨를 경주로 급파하였으나 유물 수습이 이미 끝난 10월 2일 경주에 도착. 당시 경주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던 유물들을 확인한 후 단독으로 단기간 조사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10월 7일 일단 경성(서울)으로 상경.
- 경성에서 고적조사과장으로 부임한 오다 쇼고 씨에 의해 도쿄 제국대학 세키노 다다시 교수와 교토 제국대학 하마다 고사쿠 교수 등이 경주에서 함께 조사하기로 결정. 하마다 일행은 예정된 양산 패총 발굴을 마치고 10월 12일 경주에 도착. 먼저 와 있던 세키노 다다시와 오가와 게이키치, 노모리 다카시, 야마우치 히로에 및 임한소(林漢韶)와 함께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던 유물을 경주고적보존회로 옮겨 10월 21일까지 조사.
- 이후 금관총 유물은 경성으로 이송되었으며 우메하라 스에지가 경성에서 정리를 속행한 후 11월에 일본으로 돌아갔으나 계속해서 유물의 정리와 조사는 하마다와 우메하라에게 전담됨.
- 1922년 4월~6월 우메하라를 중심으로 총독부 고이즈미 아키오, 사와 순이치가 경성에서 금관총 유물 정리 작업을 시작. 1922년 10월 하마다와 교토제국대학 사마다 사다히코 조수가 금관총 유물 조사. 1923년 5월 우메하라가 오가와 게이키치, 고이즈미 아키오, 간다 쇼조와 함께 유물 조사. 1923년 가을 우메하라 유물 조사.

1) 모로가 히데오에 대해서는 정인성의 논문(2009)을 참조할 것.

- 1924년 5월 보고서 본문 상책 발행. 1924년 9월 보고서 도판 상책 발행. 1928년 3월²⁾ 보고서 도판 하책 발행. 본문 하책은 결국 발간되지 못함. 1932년 보고서 본문 하책에 해당하는 일부 내용으로 하마다가 재단법인 경주고적보존회의 지원으로 『慶州の金冠塚』 발행.

연 도	조사 및 보고서 작성 과정
1921년 9월 24일	금관총 발견.
1921년 9월 27~30일	모로가 등 유물 수습.
1921년 10월 2일	조선총독부 파견 오가와 게이키치를 경주 도착.
1921년 10월 12일~24일	하마다와 우메하라 경주 도착. 먼저 와 있던 세키노, 오가와, 노모리 다카시, 야마우치 히로에, 林漢韶와 유물 조사.
1921년	금관총 유물 경성 이송. 우메하라 유물 정리.
1921년 11월 말	우메하라 일본 귀국.
1922년 4월~6월	우메하라를 중심으로 고이즈미 아키오, 사와 순이치가 유물 정리 작업을 시작.
1922년 10월	하마다와 시마다 사다히코의 유물 조사.
1923년 5월	우메하라가 오가와, 고이즈미, 간다 쇼조와 함께 유물 조사.
1923년 가을	우메하라 유물 조사.
1924년 봄	우메하라 유물 조사. 금령총·식리총 조사.
1924년 5월	보고서 본문 상책 발행.
1924년 9월	보고서 도판 상책 발행.
1925년 12월	우메하라 유럽으로 유학.
1928년 3월	보고서 도판 하책 발행.
1929년 5월	우메하라 유럽에서 귀국.
1932년	하마다 『慶州の金冠塚』 발행. 금령총 식리총 보고서 간행

금관총 유물은 수습 후 경성으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교토제국대학의 하마다와 우메하라, 조선총독부 직원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금관총이 발견된 1921년 말 조선총독부 학무국 고적조사과가 설치되면서 고적조사에 참여한 성원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³⁾. 학무국 고적조사과에는 구로이타 가쓰미의 추천으로 후지타 료사쿠가, 하마다의 추천으로 우메하라와 고이즈미가 본격적으로 고적조사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우메하라는 1년에 2회

2) 도판 하책 표지에는 1927년으로 되어있으나 판권에는 1928년으로 되어 있다.

3) 학무국 고적조사과의 신설에 관한 부분은 이순자의 책(2009)과 오영찬의 글(2011)을 참조할 것.

한국에 출장 가서 금관총 출토유물의 정리 및 여러 가지 연구에 참여하게 되는데(吉井 2009), 이 시기를 이용해 보고서에 필요한 기초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우메하라는 기초 조사를 토대로 교토제국대학에서 보고서를 편집하였고 교토 지교도(似玉堂)⁴⁾이라는 회사에서 보고서를 인쇄하였다. 보고서가 미발간된 서봉총과 데이비드총 사례를 보면 약 3년간 몇 번의 출장을 통해 작성한 기록 카드로 보고서를 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로써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2) 금관총 보고서 참여자

금관총 유물 정리와 보고서 간행 작업에는 하마다와 우메하라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하마다는 금관총 출토 유물의 회수에 참가한 것을 마지막으로 조선 고적 조사에 조사 담당자로 참가하지 않았다. 금관총 유물은 1921년 경주 및 조선총독부 박물관에서 기본적인 정리가 된 후 1922년 4월부터 우메하라를 중심으로 조선총독부의 고이즈미 아키오와 사진 기사 사와 순이치가 본격적인 정리 작업을 시작했다. 또 10월에는 하마다가 시마다 사다히코와 함께 유물을 조사했다. 1923년 5월에는 우메하라가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 고이즈미 아키오(小川顯夫), 간다 소조와 함께 유물을 조사했고, 가을에도 조사했다. 1924년 금령총과 식리총 조사 때도 유물을 조사하였다(吉井 2011).

보고서의 실측도는 우메하라, 오가와 게이키치, 오바 쓰네키치(小場恒吉) 등이 작업하였다. 유물 대부분은 우메하라와 오가와가 주로 담당하였고, 초두와 같은 중요 유물은 오바가 담당하였다. 오가와는 1916년부터 1944년까지 조선총독부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세키노 다다시가 낙랑 고분의 조사를 의뢰받았을 때 세키노 팀의 일원으로 선출되었다. 또 오바는 1912년 도교 예술학교 조교수였다가 1916년부터 역시 세키노 다다시와 함께 고구려 고분 벽화를 모사한 사람이다. 오바가 그린 금관총 초두 도면은 매우 세련된 도면이다. 이 두 사람이 금관총 보고서에 관여했는데, 오가와와 오바가 그린 도면을 우메하라가 그린 도면과 비교하면 이 두 사람의 실측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건축학의 평판 측량이 일본 고고학계에 준 영향만큼 이들이 그린 도면은 고고학 유물 실측에 끼친 영향을 생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교토대학에 남아있는 보고서 원본 자료 분석을 통해 우메하라가 유럽 유학을 간 사이 간행된 도판 하책의 작업에 하마다와 우메하라 이외에도 교토제국대학 고고학연구실의 사람이 관여한 것이 확인되었다(吉井 2011). 시마다 사다히코, 미즈노 세이치, 스에나가 마사오 등인데 시마다는 1922년 하마다와 함께 금관총 유물을 조사한 적이 있다. 시마다는 교토제국대학 고고학

4) 교토에 있었던 활판 인쇄 회사. 조선총독부 고적조사보고서와 『京都帝國大學文學部考古學調査報告』의 일부도 이곳에서 인쇄되었다.

연구실의 조수였는데 교토고등공예학교 도안과를 졸업해서 제도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吉井 2009) 고고학 연구실에서 하마다를 보조하며 여러 작업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미즈노와 스에나가도 일본고고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보고서에 사용된 사진은 여러 곳에서 받았는데, 특히 도요겐(東洋軒) 사진관의 다나카 가메쿠마(田中龜熊)가 촬영한 사진도 많다. 유물은 조선총독부 사진 기사인 사와 순이치⁵⁾와 다노 시치노스케(田野七之助)가 촬영한 것이다.

3) 보고서 체제

보고서 본문 상책은 먼저 금관총의 발견 과정과 유물 출토 상태와 수량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물을 기술하고 있는데, 용기류와 장식품 일부에 대한 보고로 상책은 끝난다. 금관을 비롯한 나머지 장식품과 갑주, 도검, 마구류는 결국 본문 하책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되지 못했다. 일본 동양문고에 남아있는 우메하라 고고자료를 보면 보고되지 못한 유물에 대한 조사 카드가 꽤 많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하책이 출간되지 못한 것은 금관총 유물의 정리를 담당했던 연구자들의 조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메하라가 유럽 유학을 가면서 보고서 간행이 늦어졌고 당시 조선총독부의 내부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32년

금관총 본문 상책(1924)	경주의 금관총(1932)
제1장 서설 제1절 고분의 현상과 그 복원 제2절 유물 발견의 전말과 그 정리 제3절 유물 출토 상태와 고분 구조의 개요 제4절 발견 유물의 종류와 수량 제2장 각종 용기 제1절 토기 제2절 쇠술 제3절 금속제 용기 제4절 칠기 및 목기 제5절 유리기 제3장 장식품(1) 제1절 이식류 제2절 경식류 제3절 팔찌 및 반지 제4절 과대류 제5절 요패류(1) 제6절 요패류(2) 제7절 식리 도판	1. 금관총의 발 2. 무덤의 원래 모습과 그 구조 3. 유물의 출토 상태 4. 유물의 종류와 수량 <u>5. 황금보관</u> <u>6. 금동관과 그 밖의 모자</u> 7. 귀걸이, 반지 및 팔찌류 8. 곡옥과 그 밖의 구슬 9. 과대와 요패류 10. 식리와 그 밖의 장신구 <u>11. 갑주, 도검, 기타 무기</u> <u>12. 마구류</u> 13. 금속제 용기 기타 14. 유리기, 칠기 및 토기 15. 금관총 피장자와 연대 신라 일본 및 관계 제국 연표 주요 참고도서

5) 사와 순이치에 대해서는 吉井(2009)의 글을 참조.

하마다는 재단법인 경주고적보존회의 지원을 받아 보고하지 못한 금관총의 일부 유물을 포함하여 『경주의 금관총』이라는 책을 간행한다. 하마다는 이 책에서 기왕에 발간된 보고서를 적절히 인용하고 보고되지 않은 나머지 장식품과 갑주, 도검, 마구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책에는 우메하라의 조사 카드가 거의 활용되지 않았는데 하마다가 일러두기에 우메하라의 많은 협조를 받았다고 기술한 점과는 대조적이다.

3. 금관총의 구조와 유물 출토 상태

1) 고분의 구조

고분의 구조에 대한 기술은 매우 빈약하다. 그것은 역시 유물이 수습되고 난 후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봉토

분구 일부가 반월형처럼 남아있었는데 동쪽은 단애처럼 되어 있었고 그 외면에는 흙과 모래가 얇은 층으로 남아있고, 그 안쪽 가운데에는 45.5cm 정도의 강돌들이 쌓여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양상을 보고 보고자는 적석총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금관총을 적석총의 일종으로 파악한 듯하다. 남은 분구의 크기는 남북 36.36m, 동서 15.15m 높이 6.6m 정도로 추정했다. 남아있는 봉토 중 돌이 쌓인 부분의 둘레를 약 60.6~75.8cm 두께의 점토로 감쌌고, 그 바깥에 두께 약 3.3cm의 토사가 덮여 있었다고 한다. 특히 이 흙은 자갈과 점토를 교대로 수평으로 쌓은 것에 주의를 표하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구조가 황남리 검총에서 확인된 바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나. 관과 광

고분의 관과 광은 적석 기저면에 위치하며, 바닥은 황색 점토층을 약 39.4cm 정도 파고 조성했다. 이곳에는 돌을 깔아 기초를 다져 목곽 바닥 관을 깔기 편하도록 하였다. 광의 네 면 둘레에는 큰 둥근 돌을 안쪽 면이 거의 맞도록 일렬로 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렬과 목곽 사이에는 약간의 간격이 있으며 그 틈에는 바닥에 깔린 것과 같은 크기의 작은 돌이 쌓여 있었다고 한다.

목곽의 평면형은 세장방형이며, 안쪽 너비가 2m였다. 목곽의 측판은 원래 18cm 정도의 각진 목재를 옆으로 쌓은 것으로 추정했다. 목곽의 길이는 서쪽 끝에서 3.3m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반부의 흔적이 분명하지 않아 길이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청동사이호 바

닥에 목재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목곽의 길이는 4.85~5.15m 정도라고 했다.

관은 목곽의 서쪽 부분에 놓여있었다고 한다. 한쪽은 서벽에 거의 붙어있었고 좌우 벽과의 거리는 48.5cm였으며, 곽의 중앙 선상에 위치한다. 유물 수습에 참여한 모로가의 측정에 의하면 크기는 길이 2.51m, 너비 1m이었고, 서쪽 끝에서는 측판의 목재를 바닥판의 바깥에 놓고 못 같은 것으로 고정했던 구조가 남아있었다고 한다. 참고로 현재 남아있는 목재로 추정하면 바닥과 뚜껑 모두 두꺼운 판자로 만들었다고 보았다. 또 옷칠한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일종의 ‘목심칠관’으로 추정하였다. 관의 양측 곽 벽을 따라 나란히 놓여있었던 철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길이 27.3cm, 너비 6.1cm 안팎의 얇은 철판과 삼각형에 가까운 쐐기 모양의 철판 여덟 개가 15.2cm 정도 두께로 포개진 상태로 곽의 서단에서 관이 놓인 부분을 지나 그 동쪽 45.5cm 정도까지 이르도록 목관 양옆 길이 약 3.3m 범위에 걸쳐 열을 지어 놓여있었다고 유물을 수습한 사람들이 증언하였다고 한다.

이상의 기술을 정리하면 금관총의 잔존 봉토는 약 36m, 동서 약 15m, 높이 약 6m가 남아 있었으나 원래 봉분 크기는 직경 약 45m, 높이 약 12m 정도로 추정되었다. 목곽의 크기는 길이 약 4.8m, 너비 약 2.1m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병현(1992)의 추정대로 너무 작게 추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보고자는 적석목곽묘의 이중곽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유물이 출토되는 부분만을 근거로 목곽의 크기를 추정했기 때문이다. 보고자들이 추정한 목곽은 내곽일 가능성이 크며 내곽 밖으로 외곽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김용성 2010). 그렇다면 현재 동반부 유물을 포함하는 내곽이 있고 내곽 내부는 판재로 구획된 유물을 포함하는 유물 공간과 목관 공간으로 구분되며, 그 밖으로 외곽이 있었을 것이다. 내곽과 목관 사이는 철정이 채워져 있었다. 목곽(내곽)과 간격을 두고 석렬이 있다는 기술과 그 틈에 바닥에 깔린 것과 같은 크기의 자갈돌이 쌓여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내곽과 외곽 사이의 석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금관총의 구조는 외곽과 내곽으로 구분되며 내곽은 유물 공간과 목관 공간으로 구획되었다. 목관과 내곽 사이를 철정으로 채웠고, 내곽과 외곽 사이는 석단과 석렬이 있었던 구조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2) 유물 출토 상태

유물 출토 상태는 여러 사람의 정보를 토대로 정리된 듯하다. 보고서에는 모로가의 ‘각서’와 오사카의 ‘소견’이 등장하며, 특히 금허리띠에 대해서는 모로가가 노지마 마사루에게 부탁하여 그린 그림, 이와미 서장이 직무상 필요로 요시다 순사 부장에게 그리게 한 그림, 와타리 경주 고적보존회 서기가 그린 그림이 등장한다. 하지만 모두 유물의 수량과 위치 관계에서 큰 차이가 발견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보고자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유물의 출토 상태를 복원해 갔을 것이다.

가. 관내

보고서에는 관내, 꺾내 동반부, 꺾내 서부의 3부분으로 나누어서 출토 위치를 기술하고 있다.

관내에서는 동단 가까이 약간 북쪽으로 치우친 곳에서 황금관이 발견되었다. 그 부근에서 진주와 유리소옥이 아주 많았다고 한다. 아마도 경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의 중앙부에는 17개로 된 금제 요패구를 드리운 허리띠 한 조가 놓여 있었으며, 그 요패는 끝이 모두 서쪽을 향하고 있었다. 관과 꺾내 사이에서 다면옥, 환옥, 소옥류가 발견되었으며, 그 가운데에는 6.7cm의 경옥제 곡옥 1개가 있었는데, 경식의 중심 장식이었을 것이다. 또 꺾내 양옆에는 금은 팔찌가 반지와 함께 있었으며 관의 서단에서도 역시 팔찌가 옥 귀걸이와 함께 발견되었다. 또 오사카의 말에 의하면 관의 서쪽 가운데쯤에 금동제 식리 한 켤레가 있었다고 한다.

나. 꺾내 동반부

꺾내 동반부는 최초로 유물이 채집된 곳이라고 한다. 쇠술 3개가 60.6cm씩 거리를 띄워 동북쪽에서 서남쪽 선상에 나란히 놓여있었고, 별도로 또 하나의 쇠술이 동남 모퉁이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 쇠술 위아래 및 같은 높이에서 각종 토기와 사이호, 초두, 고배 등의 청동기, 금은용기, 철기, 유리기를 비롯해 다수의 곡옥, 소옥, 금 · 은 · 금동제 관, 꺾내, 갑옷 등의 장신구가 서로 겹쳐 쌓여 있었다. 안고, 행엽, 운주 등의 마구는 이 부근에서 남측에 걸친 구역에 놓여 있으며, 원형이 거의 유지된 환두대도 한 자루⁶⁾는 자루 끝이 동쪽을 향해 남북 쪽 가까이 묻혀 있었다.

다. 꺾내 서부

꺾내 서부는 북서 모서리를 제외하고 가늘고 긴 이형철기(철정)이 놓여있었다. 관 서쪽 중앙에 향아리 하나가 있었다. 관의 양 측면 모두에는 대도류가 놓여있었고, 그 주변에는 옥류가

6) ‘余斯智王’이 새겨진 대도로 추정된다.

있었다. 관 북서 모서리에는 창 등이 발견되었다. 관의 양 측면에 놓인 대도류에 대해서는 이와미 씨의 소견을 소개하고 있는데 관 안에서 발견된 대도 중 관의 남측에서 출토된 것은 도자가 결합된 금동장 환두대도⁷⁾로 자루 끝이 서쪽을 향하고 있었다고 하고 서쪽에서 발견된 것⁸⁾은 은장이었다고 한다.

이상이 보고서 본문 상책에 기술된 유물 출토 상태이다. 유물 출토 상태는 크게 3개소로 구분해 보고하고 있다. 목곽(내곽)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해 보고하였고, 목곽 내부는 따로 보고했다. 이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환두대도와 이식인데,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환두대도는 착장된 것이 없고 모두 부장되었고, 피장자가 착장한 이식은 태환이식이라는 점이다. 또 보고자도 주목하고 있듯이 유물의 출토 상태로 보아 피장자가 한 사람 이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관의 서단에서 발견된 팔찌와 옥, 귀걸이는 순장자가 착장한 것일 수도 있다. 즉 금관총에도 순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환두대도의 출토 위치

유물 출토 상태는 유물 수습자의 기억과 현장 스케치를 토대로 복원했으나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의 중심 유물인 이사지왕 대도⁹⁾를 비롯한 대도의 출토 위치가 그러하다. 본문 상책의 출토위치와 하마다의 경주의 금관총에 기술된 위에 차이가 확인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보고서 본문 상책 제4절 발견 유물의 종류와 수량에는 도검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고, 출토 위치도 소개되어 있다.

(1) 도검

- (가) 환두대도(편과 함께) : 3자루
- (나) 환두목도(편과 함께) : 5자루
- (다) 대도 편 : 수 자루 분
- (라) 도자 편 : 수 자루 분
- (마) 환도병두 및 장식구 : 약 14개분
- (바) 규두대도 병두 : 2개

(5) 곽내 유물의 상태

곽의 동반부는 최초로 유물이 채집된 곳으로 주로 부장품을 넣어둔 곳으로 생각되며 출토

7) 도판 하책 제80의 (3).

8) 도판 하책 제80의 (2).

9) 보고서와 하마다의 『경주의 금관총』에는 대도, 태도, 환두대도, 환두태도 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동일한 의미인데 인용할 경우 보고서에 기술된 용어 그대로 인용한다.

유물이 가장 많다… 원형이 거의 유지된 환두대도 한 자루는 자루 끝이 동쪽을 향해 남벽 쪽 가까이 묻혀 있었다.

(6) 관내 서부 유물의 상태

관의 양 측면 모두에는 대도류가 놓여있었고 그 주변에는 옥류가 있었다... 그런데 이와미 씨는 관 안에서 발견된 대도에 대해 관의 남쪽에서 출토된 것은 도자가 결합된 금동장 환두대도로 자루 끝이 서쪽을 향하고 있었다고 하고 서쪽에서 발견된 것은 은장이었다고 한다(주-오사카 씨는 이 관의 남쪽에서 출토된 것이 목심 금동장 환두대도 몇 자루였다고 했다).

〈본문 상책〉

하마다의 『경주의 금관총』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금관총에서 다수의 도검류가 발견되었는데… 발견자의 보고에 의하면 관의 동쪽 부분 초두의 남쪽에 거의 완전하게 남아있는 환두대도가 한 자루, 관의 동측에는 도자를 덧붙인 금동으로 만든 환두대도, 서측에는 은으로 만든 환두대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존하는 대도 중에서 가장 완전하게 남아있는 것은 제2의 금동장 소도부 환두대도(84.8cm)이다. 세 개의 고리로 삼엽형(일명 삼계환, 삼루환)을 구성한 환두 아래의 손잡이 부분은 파손되어서 확실하지가 않지만, 소도에서도 같은 모양의 연호문을 타출한 금동판을 합친 것에 불과했다. 소도는 손잡이 가장자리까지 만들었으며 제작은 대도와 같다. 칼집은 대도의 그것과 하나로 합쳐지고 또한 소도의 칼집 위에는 긴 봉상의 비너 모양으로 생긴 것이 덧붙여 있다. 칼집 끝은 민무늬인데 어떠한 장식도 하지 않았다.

이것과 거의 똑같이 제작한 것으로는 금은장 소도부 삼엽형 환두대도가 있는데 칼집 끝은 결실되었지만 역시 비너 모양의 봉이 장식용으로 부착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 하나는 철 위에 금을 입힌 삼엽형 환두대도(72.7cm)는 파손되어 있지만, 손잡이에서 주름 모양과 기타 장식구가 금으로 만들어져서 제작이 아주 호화롭고 사치스러웠다. 이것에는 소도가 첨가되지 않았으며 비너모양으로 생긴 것만 부착되어 있었다.

그리고 두 자루의 대도는 제1의 초두 곁에 있었던 것 같다.

『경주의 금관총』

도판 하책 제80에는 3자루의 환두대도 사진, 도판 하책 제81에는 2자루의 환두대도 도면이 있다¹⁰⁾. 목차의 환두대도 3자루는 도판 하책 제80의 3자루의 환두대도를 가리키는 것은 분명

10) 동양문고 우메하라 고고자료를 보면 보고서에 실리지 않은 (2)의 도면이 있다(우메하라 4658). 이 도면이 도판 하책에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도판 하책이 우메하라가 유럽 유학을 간 사이에 편집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다. 도판 하책 제80에는 ‘(1)금동작소도부삼엽형환두태도’ ‘(2)금은작삼엽형환두태도’ ‘(3)금은작소도부삼엽형환두태도’로 표기되어 있다. 위에 인용한 2개의 기술과 비교하면 (1)금동작소도부삼엽형환두태도가 초두 주변에서 출토된 것이다. 그러나 (2)와 (3)의 출토 위치는 본문 상책과 하마다의 기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본문 상책에서 ‘도자가 결합된 금동장 환두태도’는 도판 하책 제80의 ‘(3)금은작소도부삼엽형 환두태도’로 관의 남쪽에서 출토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하마다의 『경주의 금관총』에서는 관의 동쪽에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본문 상책의 ‘서쪽에서 발견된 것은 은장’이라고 한 것은 도판 하책 제80의 (2)금은작삼엽형 환두태도이다. 본문 상책의 서쪽에서 발견되었다는 기술처럼 『경주의 금관총』에서도 서측에는 은으로 만든 환두태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마지막에 ‘두 자루의 태도는 제1의 초두 곁에 있었던 것 같다.’라고 기술하였는데 초두 곁에 2자루의 환두태도가 있다는 기술은 (1)과 (2)가 같이 나왔는지, (1)과 (3)이 같이 나왔는지 모호하다.

관의 동쪽 초두 부근에 (1)이 출토된 것은 분명하다. 관의 남쪽, 관의 동쪽이라는 서로 다른 위치를 기술하고 있는 (3)은 ‘관의 양 측면 모두에는 대도류가 놓여있었고’라는 기술을 중시한다면 목관의 남쪽에서 동쪽으로 치우친 곳에서 출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2)는 서쪽이라고 하였는데 목관 북쪽에서 서쪽인지 아니면 목관의 서쪽, 즉 피장자의 발치 측인지 분명하지 않다. 본문 상책의 금관총 유물 배치 약도를 보면 목관의 양 측면과 아래쪽에 ‘태도’라는 표시가 있다. 즉 피장자의 좌우 측면과 발치 측에 태도가 부장된 것인데 (2)는 피장자의 오른쪽인지 발치 측인지 불분명하다. 하지만 하마다의 『경주의 금관총』의 도면 3을 보면 관의 동반부에 환두태도 1점을, 관의 서부 피장자 좌우에 태도를 각각 그려 놓았다. 발치 측에도 태도로 추정되는 표시가 있으나 이 그림으로 본다면 피장자의 좌우에 1점씩 총 2점을, 관의 동반부에 1점이 부장된 것으로 생각된다.

3점 환두태도의 위치가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착장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부장된 것이다. 또 이사지왕 명이 새겨진 환두태도는 (1)이 분명한데 그 위치는 목관의 동쪽 초두 옆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4. 금관총 발견과 의의

첫째,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사업에 끼친 영향이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금관총은 발견은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사업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21년 금관총의 발견을 계기로 학무국에 고적조

사과가 신설되면서 박물관 관련 업무가 이관되는데 신라 고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게 된다. 특히 금령총과 식리총은 금관총 이후 나름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문제의식을 느끼고 실시한 발굴이다. 금관총의 발견은 신라 고분 조사에 관심이 거의 없어진 시기에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부작용도 엄청났다. 도굴이 증가했고 금관과 같은 유물에 관심이 집중되어 체계적인 발굴보다 유물 수집 식의 조사가 빈번해졌다. 서봉총과 대이비드총의 발굴은 바로 이러한 상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일본고고학계에 끼친 영향이다. 특히 금관총의 발견은 교토제국대학 고고학 연구실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하마다는 유럽 유학을 통해 식민지 고고학의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명확히 배워왔다. 특히 런던대학 페트리로부터 고고학 연구법 등을 직접 사사한 하마다는 19세기 제국주의와 고고학이라는 관계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고 왔을 것이다. 즉 이집트에서 페트리의 발굴 성과가 제국적 차원에서 어떻게 가치를 인정받았고, 그 결과 대학에서 고고학이 독립 학문으로 인정받는 과정(김경민 2008)을 몸소 체험하고 왔다.

1916년 3월 유럽에서 귀국한 하마다는 교토제국대학에 일본 최초의 고고학 강좌를 개설하게 되고 1917년 유럽으로 유학 간 세키노 다다시를 대신해 1918년 고적조사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식민지에서의 고고학적 연구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온 하마다는 한반도 고적조사에 직접 관여하게 됨으로써 식민지 고고학의 성과를 일본 고고학에 적용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하마다는 1918년 한반도의 조사 경험과 금관총 조사가 그 후의 교토제국대학 고고학 연구실의 조사 연구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회고했다. 금관총의 유물을 조사한 이후 금속제 장신구에 관심을 가진 하마다는 가모이나리아마 고분을 1923년 재발굴하였고, 금관총 금관에 달린 경옥제 곡옥에 주목하여 시마네 현 다마쓰쿠리 유적 출토 유물을 재조사하게 된다(吉井 2009). 또 유럽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유물을 금관총 금관과 식리총 식리 등을 복제해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조선 고적 조사 보고서의 편집을 교토제국대학 내에서 진행하면서 일본의 고고학자를 양성해 갔다. 금관총 보고서에 나오는 시마다나 미즈노, 스에나가나 조선고적연구회 고적조사 보고서에 등장하는 고바야시 유키오(小林行雄)와 쓰노다 분에이(角田文衛)는 전후 일본 고고학에 많은 영향을 준 인물들이다. 하마다는 식민지 고고학의 성과를 일본 고고학에 ‘응용’한 것이다(濱田 1935).

맺 음 말

금관총의 발견과 조사 과정은 조선총독부의 고적 조사 사업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 고고학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고적조사과가 발족하였고 금관총 보고서 간행에 참여한 일본인 연구자들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근대적인 고고학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금관총의 발견은 신라 고분을 무분별하게 조사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유물에 눈이 먼 제국 관료들의 지원 아래 신라 고분은 처참하게 유물 수집의 대상이 되었다.

금관총은 당시 제도적 장치가 있었음에도 공식적인 발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일본인들에게 문화재 수집에 대한 좋지 않은 태도 또는 의식을 자리 잡게끔 했다. 즉 조사나 기록은 적당히 하고 금관과 같은 유물을 도굴식으로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자 하는 그릇된 인식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서봉총의 조사는 그러한 인식이 당시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으로 유물의 출토 맥락을 중시하는 전통보다 유물 그 자체¹¹⁾를 연구하는 경향도 이즈음부터 아주 강해졌다. 일제강점기 고고학이 가지는 문제점을 본질주의적 접근, 계통론적 접근, 유물 중심의 연구라고 평가할 때(이성주 2013) 우메하라의 금관총 유물 조사는 유물 중심의 연구가 일본 고고학에 자리 잡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11) “꾸준히 유물 그 자체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것을 연결해 연구를 진행해 가고, 넓게 알게 표면만 보고 신기한 설을 명확히 내세우는 것은 피하고 싶다.” 우메하라가 자신의 자서전 격인 『고고학 60년』에서 서술한 말인데 유물 중심의 연구 자세를 강조하는 말이다.

■ 참고문헌

- 吉井秀夫, 2006, 「일제강점기 경주 신라 고분의 발굴 조사」 『신라 고분 100년 발굴조사』 국립경주 문화재연구소 학술 심포지엄.
- 吉井秀夫, 2008, 「澤俊一とその業績について」 『高麗美術館研究紀要』 第6號 高麗美術館.
- 吉井秀夫, 2009, 「일본고고학사에서 본 조선고적조사사업과 조선총독부박물관」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세미나』 (국립중앙박물관).
- 吉井秀夫, 2011, 「교토대학 고고학연구실 소장 금관총 관련자료와 그 성격」 『신라고분 정밀측량 및 분포조사연구보고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 김경민, 2008, 「제국주의와 고고학-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용성, 2010, 「일본인의 신라 고분 조사」 『先史와 古代』 제33호 (한국고대학회).
- 濱田耕作・梅原末治, 1924a 『慶州金冠塚とその遺寶 本文上册』 朝鮮總督府.
- 濱田耕作・梅原末治, 1924b 『慶州金冠塚とその遺寶 圖版上册』 朝鮮總督府.
- 濱田耕作・梅原末治, 1928 『慶州金冠塚とその遺寶 圖版下册』 朝鮮總督府.
- 濱田耕作, 1935, 「朝鮮における考古學的調査研究と日本考古學」 『日本民族』 岩波書店.
- 濱田青陵, 1932, 『慶州の金冠塚』 慶州古蹟保存會.
- 오영찬, 2011,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과 운영」 『한국문화』 55.
- 이성주, 2013, 「일제강점기 고고학조사와 그 성격」 『일제강점기 영남지역에서의 고적조사』 학연문화사.
- 이순자, 2009,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서경문화사.
- 이청규・김대환, 2000, 「경주지역 분묘조사와 연구-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인류학연구』 제10집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연구회).
- 정인성, 2009, 「일제강점기 ‘慶州古蹟保存會’와 모로가 히데오(諸鹿史雄)」 『大邱史學』 第95輯 (大邱史學會).
- 早乙女雅博, 2001, 「新羅の考古學調査100年の研究」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39集 (朝鮮史研究會).
- 차순철, 2006, 「일제강점기의 신라고분조사연구에 대한 검토」 『문화재지』 39호 (문화재청).

금관총 출토 ‘이사지왕’ 명 대도의 보존처리와 제작기법

권 윤 미

(국립중앙박물관)

금관총 출토 ‘이사지왕’ 명 대도의 보존처리와 제작기법

권 윤 미 (국립중앙박물관)

목 차	
I. 머 리 말	IV. ‘이사지왕’ 명 환두대도의 구조와 제작기법
II. 환두대도의 구조와 명칭	V. 맺 음 말
III. 보존처리	

I. 머 리 말

‘이사지왕’명 환두대도는 1921년 경주 금관총 발굴 당시 출토된 유물로, 피장자의 곁에서 발견된 3점의 환두대도 중 한 점이다. 발굴 당시부터 여러 조각으로 파손되어 있던 이 칼은, 2011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에서 보존처리를 진행하던 중 표면을 덮고 있던 녹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금구의 표면에 새겨진 고대의 명문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신라고분 출토 유물에서 발견된 최초의 ‘王’과 관련된 명문으로 큰 고고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환두대도의 제작기술과 자세한 구조에 관해서는 생각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연구된 자료가 많지 않고, 대부분 육안으로 접근이 가능한 도상과 외형 연구에 국한된 바가 많다. 이는 유물의 전체적인 내부 구조나 결합방식 등을 자세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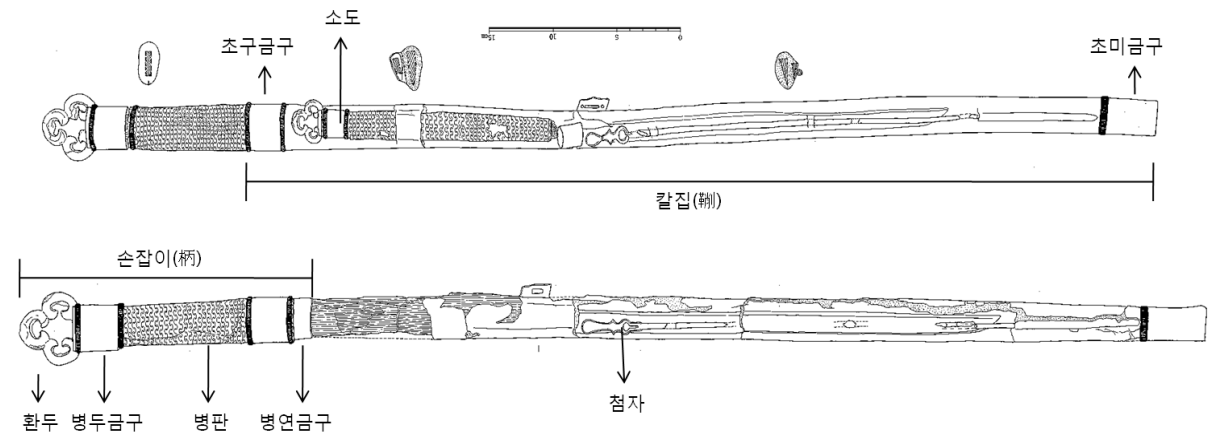
과학적으로 제작기술을 밝히기 위한 연구로서는 입사장식 대도들의 보존처리와 제작기법에 관한 자료들이 발표되었었고, 방사선 촬영 등의 비파괴 조사를 통해 환두부와 병부의 제작기법이 주요 유적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철제칼날에 대한 금속학적 연구들도 최근 몇 년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유물들의 단편만 가지고 진행된 경우가 많아 현재까지로서는 그 외의 부분에 관해서는 자료가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유물의 각 부

분이 심하게 파손된 채로 발견되었으나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조사와 보존처리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유물의 성격을 밝히는 데 있어 전화위복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경주 금관총 출토 ‘이사지왕’명 환두대도의 보존처리 내용과, 보존처리 과정 중 실시한 유물의 구조와 제작기법에 관한 과학적 조사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환두대도의 구조와 명칭

조사결과를 정리하기에 앞서 환두대도의 구조와 각부 명칭을 정리하고자 한다.



도 1. 환두대도의 부위별 명칭 (*항남대총 남분 출토 금은제한두대도)

Ⅲ. 보존처리

1. 보존처리 전 상태조사

보존처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유물의 형태와 재질, 손상상태 등을 파악하고 보존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보존처리 전 상태조사는 주로 실측 및 상태기록, 사진 촬영, 방사선조사, 현미경조사, 성분분석 등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유물에 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게 된다.

◎ 보존처리 전 : 전체길이 약 85.7cm. 총 중량 1144.2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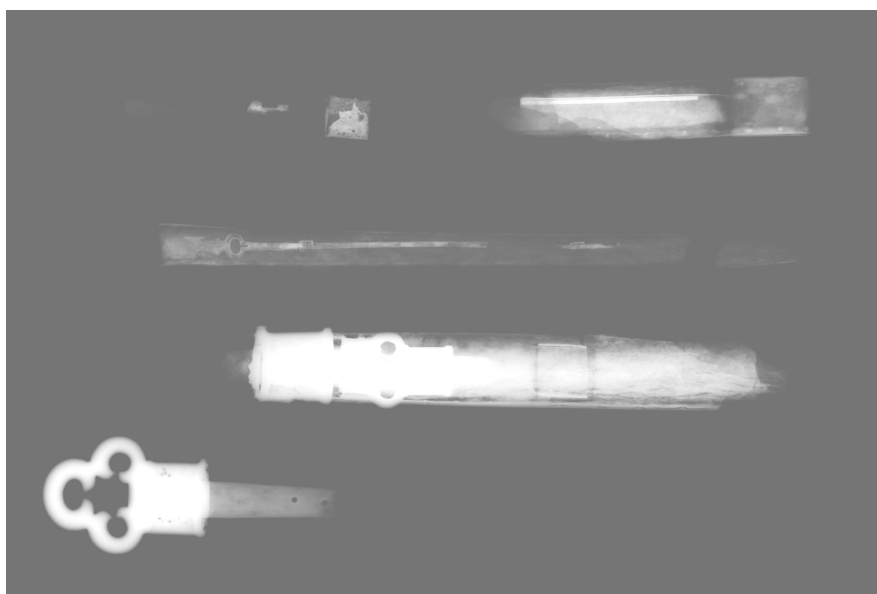
손잡이머리에 세 개의 고리가 모여있는 형태의 환두대도로, 대도의 칼집 앞면에 형태가 같고 크기가 작은 소도 1개와 첨자 1개가 부착되어 1조를 이루고 있다. 칼날은 철제로, 날은 한 쪽에만 있는 직도이다.

발굴 당시 보고서에 의하면 출토 당시부터 크게 4부분으로 부러져 있었으며, 2011년 보존처리 시작 당시 보관상자에서 같은 개체의 것으로 보이는 철제편과 은제금구, 작은 금동편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본체 각 편의 연결면은 조금씩 결실되어있어 완전히 연결되지는 않는다. 환두와 각각의 고정금구, 칼집은 비교적 잘 남아있으나, 대도와 소도의 병판과 첨자는 손상이 심하였다. 특히 병판은 대부분 소실되어있고, 남아있는 일부분도 모두 부식되어 작은 충격에도 부서질 만큼 취약한 상태이다. 첨자 역시 대부분 파손되고 결실되었으며 남아있는 손잡이 부분도 내부가 금속심이 없이 가루와 같은 상태이다. 첨자가 부착된 가운데 부분의 편은 금속칼집이 앞, 뒷면으로 분리되어 내부의 목제칼집, 철제 칼날이 모두 분리되는 상태이다. 내부의 목질이나 철제 도신부분에는 합성수지 접착제가 소량 남아있어 분리된 편들이 앞서 임시로 고정된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물은 전체적으로 이물질과 부식화합물이 두텁게 덮여있었으며, 표면에서 청록색 동부식화합물과 검은색과 보라색의 은부식화합물들이 관찰되어 여러 가지 금속재료로 제작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편 of 일부에서 금도금층과 은제로 추정되는 부분도 확인되어 현미경 조사와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안쪽에 남아있는 목제칼집 역시 갈라지고 틀어져 있으며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철제 칼날은 부러져 있으며 부식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고 크게 팽창하였는데, 겉을 감싼 칼집부분도 그 영향을 받아 파손이 진행되고 있었다.



도 2. 보존처리 전 사진



도 3. X-선 사진

2. 이물질 제거

부드러운 붓으로 표면의 이물질을 가볍게 털어내며 유물 표면의 부식 정도와 이물질과의 결합력 등을 파악하였다. 이 후, 표면의 부식층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며 수술용 칼로 제거하고 면봉, 붓, Ethyl Alcohol을 사용하여 표면을 세척하였다.

소도의 손잡이를 감싼 C자 교차문의 병판 편은 매우 얇고 부식으로 인해 취약한 상태여서 아크릴계 수지인 5wt% Paraloid B-72(in Xylene) 용액으로 강화한 후, 표면의 이물질을 조금씩 조심스럽게 제거하였다. 대부분의 표면 부식층과 이물질은 수술용 칼로 일일이 제거하였고, 은제금구 표면의 검은색 부식피막은 추가로 5wt% EDTA-3Na(in DI water)를 면봉에 적셔 조금씩 표면을 닦아내고 증류수와 Ethyl Alcohol 세척을 반복하여 이물질 제거를 완료하였다.

칼집에서 분리가 가능했던 가운데 부분의 철제칼날은 정밀분사가공기(Air-Brasive)를 사용해 내외부의 부식화합물을 제거하고 Ethyl Alcohol로 세척하였다.

3. 안정화 처리와 강화 처리

유기물과 여러 가지 금속재질로 이루어진 본 유물의 특성으로 인해, 일부 약품의 경우 인접한 다른 재질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금속의 안정화 처리는 제한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비철금속의 표면은 부식억제제인 3wt% B.T.A.(in Ethyl Alcohol) 용액을 사용하여 안정화 처리하였다. 분리된 철제 칼날은 칼집의 목질이 많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칼날도 은판과 도금판, 목질이 결합된 칼집 안에 남아있어 알칼리수용액 침적법의 탈염처리를 진행하지 않고 진공상태에서 건조 후 강화처리를 실시하였다..

목재 칼집부분은 HPC(in Ethyl Alcohol)용액을 1wt%에서 2wt%로 농도를 높여가며 수 차례 도포하여 강화 및 코팅해 표면을 보호한 후, 목재와 결합된 비철금속재료 표면은 아크릴계 수지인 10wt% Paraloid B-72(in Xylene) 용액을 도포하여 강화 및 코팅하였다.

분리된 철제칼날은 100℃에서 진공건조하고, 아크릴계 수지인 10wt% Paraloid NAD-10(in Naphtha) 용액에 진공 함침하여 강화하였다. 분리되지 않은 내부의 철제칼편은 같은 용액을 균열과 내부에 주사기로 흘려 넣고 표면은 붓으로 도포하여 강화 및 코팅하였다.

4. 접합과 복원

함께 보관되던 금속 잔편 중에서 금동제 칼집의 결실부 편을 찾아 제자리에 접합하였고, 떨어져 있던 장방형 패용장치도 제 위치를 확인하여 접합하였다. 위치를 알 수 없던 작은 철제

편은 소도 칼날의 습베로 확인되었는데, 접합은 가능하나 이동 시와 핸들링 시 파손의 위험이 우려되어 추후 유물의 전체 접합복원 가능성을 두어 일부러 접합하지 않고, 필요 시 제 위치에 접합하기로 하였다.

작은 금동편들의 접합에는 Cyanoacrylate계 순간접착제 Loctite 401을 사용하였고, 접합면의 강도가 약한 부분은 뒷면에 유리섬유판을 잘라 덧대고 아크릴계 수지인 Paraloid B-72(in Acetone)로 접합하여 보강하였다.

칼집과 칼날이 판상으로 모두 분리된 세 번째 편은 유물의 형태복원과 파손방지를 위해 하나의 편으로 접합하여 고정하였다. 부러져있던 내부의 철제칼날은 Epoxy계 수지 Araldite Rapid를 사용하여 접합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는 제거가 용이한 Cellulose계 수지 Cemadine-C에 Micro-balloon과 무기안료를 혼합하여 색을 맞춘 뒤 접합면의 중간중간에 점을 찍듯이 놓아 접합하였다.

소도의 경우 유물 각부를 고착시키고 있던 부식물이 제거되자, 대도에서 분리되는 되지 않으나 좌우로 움직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움직임에 따라 손잡이 장식부의 남은 편이 파손의 우려가 있어 아래쪽에 Cellulose계 수지 Cemadine-C + Micro-balloon + 무기안료를 소량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고정하였다.



도 4. 보존처리 과정- 이물질제거/세척/칼날 접합

5. 보존처리 후 상태

◎ 보존처리 후 : 전체길이 약 85.7cm, 총 중량 1120.4g.

보존처리 결과, 유물 표면에 덮여있던 부식물과 이물질을 유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거하여 유물의 본래 표면이 드러났으며 이를 통해 초구금구와 초미금구의 앞/뒤 세 곳에서 선각된 명문 6글자가 육안에 드러나게 되었다. 환두부와 병판, 초미금구, 첨자는 동합금으로 제작되었고 병두금구와 초구금구는 은으로 제작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아말감도금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칼집 결실부의 일부 편과 분리되어 있던 패용장치와 소도의 병연금구도 제자리에 접합되었으며, 금속의 안정화와 각 부분의 표면 강화를 완료하여 유물의 전시와 연구에 안정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유물은 연결면이 조금씩 결실된 상태이고 목질부와 철제부의 틀어짐과 균열과 팽창이 심하여 연결면이 딱 맞지 않는 상태이다. 현 상태로 유물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고 각 편 하중이 크고 재질은 취약한 상태라, 무리한 접합과 복원 시 유물의 이차적인 손상이 우려되어 금번 보존처리에서는 길이 방향의 접합을 진행하지 않았다. 보존처리 과정에서도 가급적 유물의 본래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으며, 추후 유물의 보존처리 시 손상 없이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유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제거가 가능한 일반적인 접합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도 5. 보존처리 후 사진(앞)



도 6. 보존처리 후 사진(뒤)

IV. ‘이사지왕’명 환두대도의 구조와 제작기법

1. 대도

1-1. 손잡이

손잡이의 머리부분에 세 개의 C자형 고리가 클로버형태로 모여있는 삼환형식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환두와 아래쪽의 스킴베가 한 몸으로 주조된 일체형이다. 환두의 높이는 약 48mm, 너비는 약 56.5mm이다. 보존처리 중 노출된 부분과 X선 사진 판독결과 축에는 두 개의 구멍이 있고, 칼의 스킴베부와 환두의 스킴베를 겹치고 리벳으로 결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금은 밖으로 드러나는 환두부를 위주로 베풀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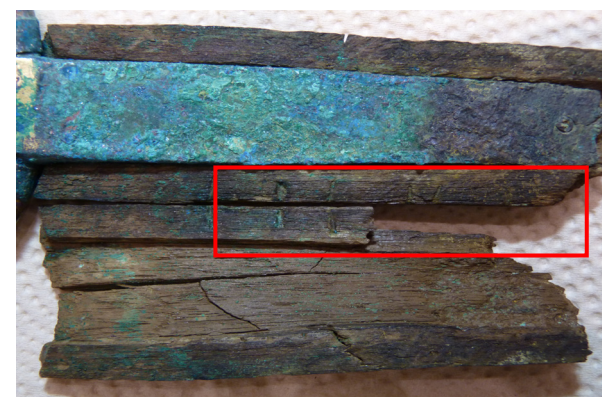
환두의 바로 아래, 병두금구와의 경계에서는 기존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부속품이 확인되었

다. 환두의 받침대처럼 단을 이루고 있는 이 부속금구는 앞선 연구에서 요(凹)형금구라 소개된 바 있으며(2004, 구자봉), 이 글에서도 그 명칭을 따르고자 한다. 요형금구는 병두와는 별도로 제작하여 조립한 것으로 손잡이의 목질부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 덕분에 손잡이 결합부의 내구성이 매우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 조립순서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먼저 환두를 제작하고 도금한 뒤, 환두에 요형금구를 장착하였다. 완성된 환두부에 칼날을 결합하고 두 개의 나무판을 깎아 만든 손잡이 씌운 후 원통형으로 제작된 병두금구를 끼워 고정하였다. 병두금구에는 양쪽에 각목문대(刻目文帶)인 연금구(緣金具)가 끼워져 있는데, 연금구는 별도로 만들어져 부착된 것으로 보여 땀의 가능성도 고려된다. 땀의 사용여부나 구체적인 적용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C자형의 문양이 위아래 교차하는 호문을 타출한 금속판으로 손잡이를 감싸고 병두금구의 끝에 끼워 넣은 뒤 'ㄱ'형 못으로 칼날방향에서 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병연금구 장착하였는데, 병연금구는 칼집내부에 들어가 있어 육안 확인이 어렵고 X선 사진에서 존재가 확인되었다. 병연금구의 자세한 형태 확인을 위해 유사유물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황남대총, 천마총, 무령왕릉 등 다양한 유적의 출토유물에서 일부나마 밖으로 드러난 병연금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X선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병연금구의 위치로 볼 때 손잡이의 길이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긴 것을 알 수 있다.



도 7. 환두부와 병두금구(앞/옆)



도 8. 'ㄱ' 형 못의 흔적: 손잡이(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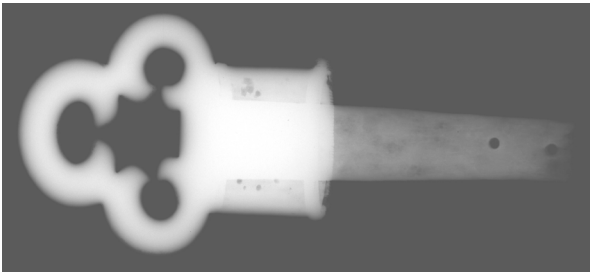
도 9. 'ㄱ' 형 못: 병부(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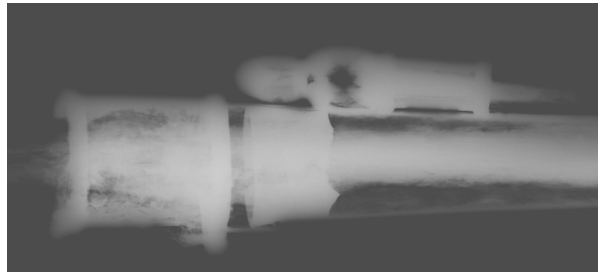
도 10. 환두부 습베: 리벳구멍(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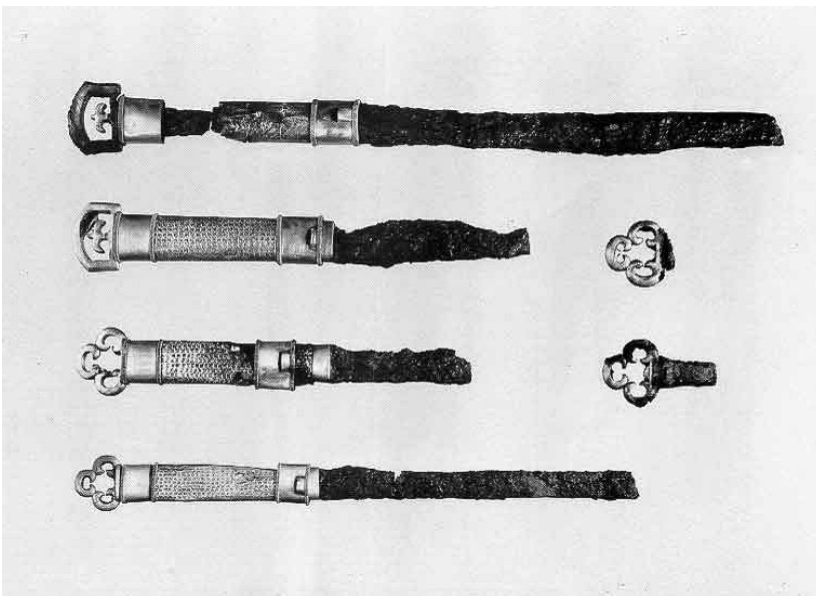
도11. 환두부 습베: 리벳구멍(아래)



도 12. X-선 사진: 손잡이



도 13. X-선 사진: 병연금구(옆)



도 14. 병연금구와 패용장치(철형금구) (*항남대총 남분 출토 금은제한두대도)

1-2. 칼

금관총 출토 '이사지왕'명 환두대도의 칼날은 단면 이등변삼각형인 외날로, 첼로 제작되었다. 칼날의 너비는 약 27.8mm, 칼등의 너비는 약 13.2mm이다. 스페가 있어 환두부의 스페와 리벳으로 직접 결합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칼날의 스페 부분은 결실되어있다. 스페와 칼날이 이어지는 부분의 형태는 칼집 내부에 있어 확인이 어렵다.

1-3. 칼집

소도와 첨자를 별도로 보았을 때, 칼집은 목제 칼집, 금속제 칼집외판, 초구금구, 초미금구로 구성되어있다. 칼집의 뼈대인 목제부는 두 쪽의 나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쪽에 칼이 들어갈 자리를 판 다음 두 판을 맞대고 무늬가 없는 금속판으로 겹을 꼭 맞게 감쌌다. 칼집 금속판의 결합에는 원형 리벳을 박거나 별도의 금구를 덧대어 고정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사지왕'명 환두대도는 칼등 쪽에서 직경 2.1~2.2mm의 원형 리벳을 일정한 간격으로 박아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칼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칼의 착용을 위한 패용장치라 할 수 있다. 금관총 출토 환두대도에는 두 개의 패용장치가 있다. 하나는 칼집 뒷면 일부를 철(凸)형으로 돌출시킨 장치이고 다른 하나는 칼집 중앙부 측면에 위치한 장방형 고리이다.

철형금구는 칼집의 뒷면에 철형으로 돌출되어 있는 패용금구를 말하며, '이사지왕'명 대도는 초구금구와 칼집이 만나는 경계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초구금구의 아래쪽과 칼집의 위쪽에 가로로 상하두개의 선을 내고 두 선 사이를 타출하여 돌출시켰다. 철형금구의 표면과 내부에는 부식물로 인해 광물화된 직물흔이 남아있는데 이는 착용을 위해 연결했던 끈의 흔적으로 유추된다.

장방형금구는 철형금구의 보조적 역할이며, 약간 경사진 장방형을 이루고 있다. 별도로 만들어 달지 않고, 칼집 금속판의 양끝 일부를 접어 세워 맞대고 작은 금속띠를 가로로 한바퀴 둘러 원형리벳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였다. 금관총 출토 환두대도는 복수패용금구로서, 철형금구를 주금구로 하고 장방형금구를 보조금구로 하여 직물 등으로 두 금구를 연결하여 착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칼집의 금속판 전면부에는 일부를 돌출시켜 공간을 만듦으로써 소도와 첨자의 칼집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 마무리로 칼집의 입구와 끝은 각각 초구금구와 초미금구라 명칭하는 금속장식으로 고정하였다. 칼집입구에 위치하는 초구금구는 병두금구와 같은 형태로, 원통형이며 양쪽에 연금구가 둘러진 형태이다. 은으로 제작하고 금도금을 하였다. 초미금구는 칼집의 끝장식

으로, 칼집 끝의 고정과 보호를 위한 장치이다. 직사각형으로 자른 금속판으로 감싸고, 양끝을 겹쳐 4개의 원형 리벳으로 고정하였다. 칼집은 칼등 쪽에서 고정한 반면 초미금구는 반대방향인 칼날 쪽에서 고정하였다. 이 초미금구에는 앞뒤로 명문이 선각으로 새겨져 있다.

바닥면의 막음판은 현재 없는 상태이며, 초미금구의 외면이나 바닥면에서 별도의 못구멍이 라던가 막음판을 따로 장착했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도 15. 칼집(옆) : 원형리벳(밖/안)



도 16. 대도의 끝부분



도 17. 패용장치: 철형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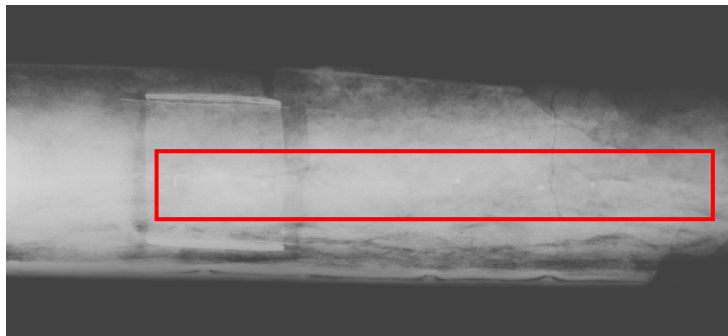
도 18. 패용장치: 장방형금구(앞/옆)



2. 소도

소도의 환두 및 금속제 금구의 제작기법은 대도와 동일하다. 다만 구성은 환두+병두금구+병판+병연금구+칼+칼집(대도 칼집에 일체형으로 설계)으로 조금 간단하다.

손잡이의 나무는 대도의 손잡이나 칼집처럼 두 쪽의 나무판을 합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긴 막대형이며 양쪽에서 각각 환두와 칼의 스페를 그냥 꽂은 듯하다. 소도의 칼집은 따로 만들지 않고 대도의 칼집 앞면에 칼집모양으로 돌출시킨 공간에 장착되게 만들어져 있다. 병판은 대도와 마찬가지로 C자가 교차된 호문을 반복 타출한 금속판으로 감쌌는데 대도에 가려지는 뒷면에서 'Π'형 못으로 고정한 것이 대도와 다르다. 이 못은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X선 조사를 통해 발견되었다.



도 19. X선 사진: 소도 병판 고정 못

3. 첨자

첨자는 길고 가느다란 젓가락 모양의 금구로, 대도의 칼집 앞면에 부착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칼집 앞면의 일부를 띠고리 모양으로 돌출시키고 칼집 끝부분에는 첨자 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게 공간을 만들어 이 두 곳에 첨자를 끼울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다른 유물에서 표면을 은판 등으로 감싼 사례도 있으나, 본 유물의 첨자는 동합금에 금도금으로 장식하였다.

4. 명문부

유물에서 확인된 명문은 총 6 글자로, 모두 날카로운 바늘이나 끌 등의 도구를 이용해 선각으로 새겨졌다.

발견된 명문은 초구금구의 앞면에서 '尔'자 1자, 초미금구의 앞면에서 '十'자 1자, 초미금구의 뒷면에서 '尔斯智王' 4자이다. 명문은 모두 칼집에 새겨져 있으며, 경주박물관 소장 금관총 출토 환두대도(경주352)에서도 최근 '尔'와 '十', '八'의 글자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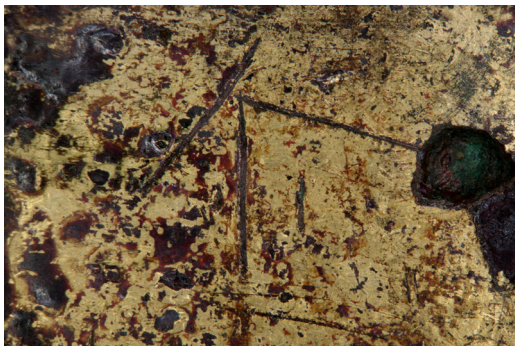
도 20. 명문부: 초구금구(앞)/초미금구(앞)/초미금구(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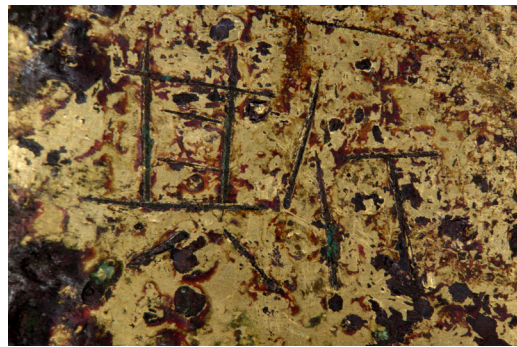
a. ‘尔’ 명문: 초구금구(앞)



b. ‘十’ 명문: 초미금구(앞)



c. ‘尔’ 명문: 초미금구(뒤)



d. ‘斯’ 명문: 초미금구(뒤)



e. ‘智’ 명문: 초미금구(뒤)



f. ‘王’ 명문: 초미금구(뒤)

도 21. 명문 확대

V. 맺 음 말

지금까지 금관총 출토 ‘이사지왕’명 환두대도의 보존처리 내용과 구조 및 제작기법에 관한 조사 내용을 정리하였다.

칼날은 철제이고 칼집은 목제와 금속판으로 이루어져있다. 환두부와 병판, 초미금구, 첨지는 동합금이며 병두금구와 초구금구는 은으로 제작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아말감도금의 흔적이 확인된다. 결실부의 일부 편과 분리되었던 편들이 제자리에 접합되고 약해진 재질의 안정화와 강화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전시와 연구자료로서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보존처리를 통해 유물 표면을 덮고 있던 부식물과 이물질들을 제거하여 유물 본래의 표면이 드러났으며, 이를 통해 초구금구와 초미금구의 앞과 뒤 세 곳에서 선각된 명문 6글자가 드러났다. 명문은 ‘尔’, ‘十’, ‘尔斯智王’으로 이는 최초로 신라고분 출토 유물에서 확인된 ‘王’과 관련된 명문이며, 금관총의 피장자를 밝히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문자자료로 큰 의미를 가진다.

명문 이 외에도 손잡이와 칼집의 각부가 해체되어 내부구조의 확인과 결합순서의 추측이 가능하였다. 덕분에 유물의 단편이나, 완형의 유물에서는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환두대도의 구조와 제작기술에 관한 세부적인 특징조사가 가능하였다.

조립순서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 대도: 환두-요형금구 장착-환두부와 칼날 결합-목제 병부 장착-병두금구-병판 고정-병연금구.
- 칼집: 목제 칼집-금속제 칼집판 고정-초구금구-초미금구.

대도와 소도 병판의 고정에는 ‘⌈’형 못을 사용하였으며, 칼집외판과 초미금구의 고정에는 원형리벳을 사용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황남대총(남분,북분)출토 환두대도들과 구조와 제작기법 면에서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소개된 내용 이외에도 많은 부분 추가조사와 연구가 남아있으며, 앞으로 국내출토 환두대도의 제작기법과 관련된 더 많은 자료들이 소개되어 시대별 지역별로 심도 깊게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모아질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구자봉, 2004, 삼국시대의 환두대도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국방군사연구소, 1994, 한국무기발달사.
국립대구박물관, 2007, 한국의 칼.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3, 황남대총 남분 발굴조사보고서(도판,도면)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 황남대총 남분 발굴조사보고서(본문)

주 제
발 표
3

신라 적석목곽분의 연구와 금관총

박 광 열
(성림문화재연구원)

신라 적석목곽분의 연구와 금관총

박 광 열 (성림문화재연구원)

목 차

- | | |
|-----------------------|-----------------|
| I. 머 리 말 | IV. 금관총의 위계와 성격 |
| II. 적석목곽분의 구조에 대한 재검토 | V. 맺 음 말 |
| III. 왕릉의 비정 | |

I. 머 리 말

신라 천년고도 경주에는 수 많은 신라의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삼국시대인 사로국과 관련된 목관묘와 목곽묘는 월성을 중심으로 볼 때, 탑동 21-3번지 목관묘를 제외하고 대체로 외곽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이후 신라조기인 4세기대에 이르면 중대형의 목곽묘가 월성의 서북방향에 조성되어 있어 이러한 분묘군이 고대 국가인 신라국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세기말에 이르면 거대한 정치체를 가진 신라의 왕과 그 일족 및 귀족들의 무덤인 적석목곽분 구조의 고층이 조영되면서 서북지역에 그들만의 집단묘역이 축조되면서 왕경 및 주변지역과 차별화되는 계기가 되어 6세기 중엽까지 조영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적석목곽분은 일제강점기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와 연구를 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현재도 신라토기의 발생, 외래계문물의 수입과 황금의 사용, 기원과 계통관, 적석 및 목곽의 구조, 왕릉비정과 절대연대 등에서 많은 이견이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본고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최근에 발굴 조사된 쪽샘지구 41호분의 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적석목곽분 구조의 재해석 및 왕릉의 비

정과 절대연대를 검토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심포지움의 과제인 금관총의 위계와 성격에 대하여 약간이나마 언급해 보고자 한다.

II. 적석목곽분의 구조에 대한 재검토

1. 목곽묘와 위석목곽묘

1) 목곽묘

경주분지에 거대한 봉토를 지닌 적석목곽분이 조영되기 이전인 기원후 1세기부터 2세기 중엽까지는 목관묘가 주요제이며, 그 연원은 대체로 『삼국지』 「위서」 동이전과 『삼국사기』에 보이는 고조선의 유이민 세력이 남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세기 중엽이후부터 사로국이 주변 소국을 통합하여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우위를 점한 새로운 정치체의 지배세력들은 그들의 위계에 걸맞은 목곽묘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목곽묘의 출현을 알리기 시작한 무덤은 월성 주변의 탐동 21-3번지 목관묘, 서면의 사라리 130호 목관묘로 볼 수 있다. 이 두 무덤은 묘광이 확대되어 부장공간이 넓어진 형태로 이전의 조양동 38호, 60호묘 등의 묘광이 좁고 깊은 형태와는 다른 것으로, 이는 사로국의 영역확장과 더불어 강력한 지배자의 출현을 알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목곽묘의 출현은 전기의 목곽묘를 계승하여 자체 발전하였다는 견해와 한사군 설치 이후 낙랑군을 중심으로 서북한 지역의 목곽묘가 전래되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설이 있다. 이와 같은 전기 목곽묘의 전개과정을 보면 2세기 중엽에서 3세기말까지는 일명 ‘김해형’이라 불리는 장방형의 구조가 주로 축조되었으나, 4세기대는 ‘경주형’이라 하는 세장방형의 목곽묘가 지배층의 주요 묘제로 유행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목곽묘는 4세기말 5세기초에 이르러 이 묘제를 기본으로 하여 일정한 외부의 영향을 받아 적석목곽분이 만들어 졌다는 자체발전설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경주 주변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장방형 대형 목곽묘는 포항 옥성리 78호, 황성동 강변로 1호묘이다. 옥성리 78호는 묘광의 크기가 길이 572cm, 너비 330cm로 평면비가 1.7:1 이고, 황성동 1호는 1.2:1로 양자 모두 주부곽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지만, 옥성리 목곽묘의 경우 서쪽의 묘광과 목곽 사이와 남쪽의 묘광과 목곽 사이에 별도로 부장공간을 만



그림 1. 포항 옥성리 78호 목곽묘

들어 토기를 열지어 부장한 형태로 보아 주부곽으로 분리되기 전의 과도기적 구조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주지역의 이러한 대형의 장방형 목곽묘는 영남지역내에서도 김해·부산지역의 목곽묘와 차이가 있고 조사된 수도 적으며, 또한 묘광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얇고 주부곽 분리형이 잘 찾아지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4세기대의 목곽묘는 영남지역에서 김해형과 경주형으로 현저하게 차별화가 이루어진다. 이에 대하여 김해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장방형 이혈 혹은 동혈의 주부곽식이 선호되고 경주의 주변 지역에서는 동혈 혹은 이혈의 세장방형 주부곽식이 축조되었다고 연구되고 있으나, 이는 신라 초기에 해당되는 조사가 미진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단적으로 구어리 1호 목곽묘를 비롯하여 월성로 가-5호, 가-6호, 가-13호, 가-29호, 가-30호, 가-31호 등의 존재로 보아 경주 지역의 4세기대 주요 묘제는 소위 경주형이라 불리는 세장방형이 아니라 대형의 장방형 목곽묘가 지배세력의 주요 묘제로 채택되었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특히 5호는 부곽의 동편, 6호는 주곽의 동편, 13호는 주곽, 29호는 주곽 중앙, 30호와 31호는 부곽 일부를 조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동혈 혹은 이혈의 장방형 목곽묘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4세기말 혹은 5세기초 대형의 장방형 목곽묘는 신라가 광역의 정치체로 성장함과 동시에 최고 지배층의 정치적 상징성과 강화된 계세사상 등의 영향으로 부장품의 량이 늘어남에 따라 묘제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왕묘가 출현하면서 고종인 적석목곽분이 조영되는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적석목곽분의 태동에 대하여 북방 시베리아 목곽분의 동단 마지막 형식이나 북방 초원지대의 목곽분으로 기마민족 이동의 산물(시베리아 기원론), 재지의 토광묘에서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남정으로 인한 결과(고구려 기원론), 원삼국시대의 목곽묘에서 북유라시아 무덤과 관련성 혹은 목곽묘와 사방적석식에서 발전한 구조(자체 발전론)로 보고 있으며 발생 연대는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전엽까지 실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2) 위석목곽묘

위석목곽묘(圍石木槨墓)는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과 그 구조에 있어서 묘광을 파고 묘광과 목곽 사이에 돌로 충전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지만, 위석목곽묘는 초기철기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축조되어 왔으며¹⁾ 이후 원삼국시대에 본격적으로 사용되며 특히 4세기대 부터는 영남지역에서 상위의 주요제로 채택된 것으로 생각된다.

3~4세기대의 위석목곽묘는 2개의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동혈주부곽식으로 평면비가 1:3 이하인 장방형과 그 이상인 세장방형으로 구분되고, 다음으로 이혈주부곽식으로 평면비가

1) 청동기시대의 지석묘 하부구조인 매장주체부를 시설함에 있어서 판석조로 이루어진 석관의 주위를 돌을 채워 넣어 위석을 하거나 상부에 돌을 쌓아 적석한 형식이 많이 조사되었다. 다만 목관(곽)재를 사용한 흔적을 확인하지 못하여 위석목곽묘의 범주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위석묘나 적석묘의 구조임에는 틀림없다.

1:2.5 이하인 장방형과 그 이상인 세장방형으로 구분된다. 이 시기의 위석목곽묘는 중산리유적을 대표로 하는 세장방형의 동혈주부곽식인 황성동·중산리 유적이며, 장방형은 옥성리 76호, 마산리 1호를 지표로 한다. 또한 이혈주부곽식인 여자형(呂字形)은 주곽이 장방형, 부곽은 방형인 구어리 1호, 임당 G-5·6호, 복천동 31·32호가 있으며, 주부곽 모두 장방형의 구조는 김해 양동리, 대성동 3호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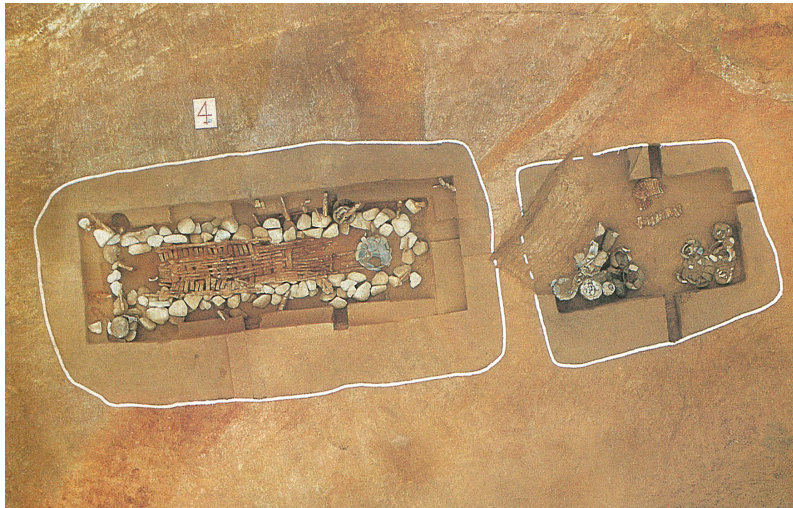


그림 2. 경주 구어리 1호 목곽묘

그림 3. 경산 임당동 G-6호
적석목곽묘

동혈주부곽식의 세장방형 위석목곽묘는 경주 주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축조되었으나, 4세기 중후반이 되면 대형의 이혈주부곽식 묘제가 등장함에 따라 소멸된다. 그리고 5세기 이후에는 영천 완산동 고분군, 의성 대리 고분군을 비롯한 주변지역의 묘제로 채용되거나 경주·포항·울산 등에서 압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세장방형석곽묘로 전환되기도 한다.

이혈주부곽식의 장방형 위석목곽묘는 전시기의 대형 장방형목곽묘의 전통에 위석이 결합된 구조로 3세기말부터 장방형의 주곽에 위석이 채용된 경우이다. 이러한 류는 영남 각지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되며, 대표적으로 월성로 고분군, 사라리 1호, 임당동 G-5·6호, 조영동 CII-2호, 복천동 31·32호, 36호이다. 이러한 이혈 주부곽식의 장방형 위석목곽묘의 존재가 인식되면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순수목곽묘에서 적석목곽분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묘제로 보고 사방적석식 적석목곽묘 혹은 위석식 목곽묘로 부르며 적석목곽분의 범주에 넣어 적석목곽분 발생의 시기를 4세기 중엽으로 올려 보는 근거 자료로 보기도 한다.

위석목곽묘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신라 적석목곽분의 태동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류로 취급하여 존재의 의미를 평가절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적석목곽분의 개

념을 보면 거대한 봉토, 호석, 매장주체부의 주부곽식 및 묘광과 목곽 사이의 위석 충전, 목곽 상부의 적석으로 정의된다. 그렇다면 기원론 중에서 시베리아 북방 목곽묘와 공통된 요소는 호석과 상부적석이, 고구려 적석총과는 상부적석·주부곽식과 위석 충전이 공통되며, 자체발전론은 매장주체부의 주부곽식과 묘광 사이 위석 충전 방식이 해당된다. 현실적으로 보면 고구려의 적석총 구조에서 상부적석 위에 봉토를 덮으면 가장 타당한 논리로 보인다. 하지만 황남동 109호 3·4곽이나 최근에 조사된 쪽샘지구 41호의 구조를 보면 기존의 묘제인 위석목곽묘에서 봉분이 높고 넓어지면서 봉토를 쌓기 위하여 호석이 만들어 졌고, 매장주체부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2차 위석을 쌓고 목곽 상부에 적석한 후 봉토를 덮는 방식이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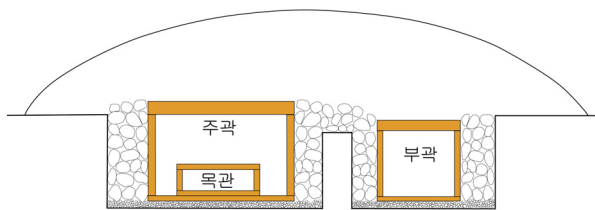


그림 4. 이혈주부곽식 위석목곽묘 복원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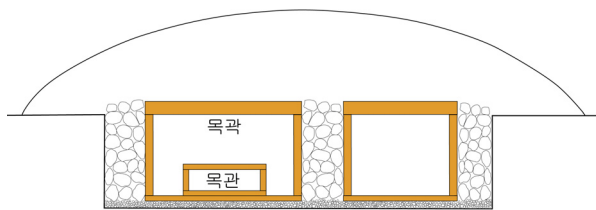


그림 5. 동혈주부곽식 위석목곽묘 복원 모식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경주지역의 초기적석목곽분으로 대표되는 황남동 109호 3·4곽, 110호 등의 구조를 보면 이혈주부곽식으로 주부곽 모두에 묘광과 목곽 사이에 1차로 돌을 쌓아 위석을 하고 피장자를 안치한 후 목개를 덮고 2차로 묘광의 어깨선 주위에 2차로 위석을 이등변 삼각형 모양으로 돌리고 그 상단에 목개를 덮은 후 그 위에 2단 정도의 적석을 평면으로 깔고 사이에 잔자갈로 정지한 후 치밀한 점토로 피복하고 봉토를 쌓은 형태이다. 이러한 초기적석목곽분의 구조는 위석목곽묘에서 진화 발전하였지만 호석이나 상부적석 아이템은 고구려의 적석총에서 도입되어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4세기대에 유행하는 이혈주부곽식 위석목곽묘의 구조는 이러한 초기적석목곽분 구조의 선행형식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석목곽묘에 어떠한 연유로 어느 시점에 주부곽 모두 위석을 채우고 목곽상부에 적석이 되는 요소가 결합되는 구조가 생겨난 것일까? 그것은 경주지역의 최고의 적석목곽분들이라 판단되는 월성로 고분군의 가-6호, 8호, 12호, 13호분 등의 출토유물을 볼 때 4세기 후반 경으로 생각한다. 이 시기에 고구려의 적석총 적석 아이디어가 결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 지하식 적석목곽분

4세기말 왕족 및 귀족을 비롯한 상위계층은 적석목곽분을 축조함으로 인해 비로소 신라에 고총이 성립된다. 경주지역에서의 이러한 고총의 축조는 월성 서북편 황토지대인 현재의 월성로를 기준으로 팔우정 로타리에서 선덕여고 사거리 사이에 위치한 동편의 인왕동 고분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서쪽으로 확산되어 경주 특유의 기반층인 황갈색사력층 지대인 쪽샘지구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왕을 비롯한 최상위 계층의 고총은 월성 서북편 또 다른 황토지대인 대릉원에서 서북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조영되면서 서봉황대가 있는 노서동고분군에서 종말을 고한다.

초기의 지하식 적석목곽분은 월성로 가-6호나 13호분을 기점으로 시작하여 황남동 109호 3·4곽, 황남동 110호분, 쪽샘지구 41호분 등에서 가장 완성된 형식이 이루어진다. 월성로 고분군의 경우 지표가 될 수 있는 유적이지만 불완전한 발굴로 인하여 전모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황남동 110호와 쪽샘지구 41호의 구조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황남동 110호분은 봉토는 삭평되었지만 자갈이 혼입된 점토와 순수 점토를 교대로 쌓았고 동서 방향으로 타원형의 형태로 남아 있었으며, 크기는 동서 15m, 남북 9m, 높이 1.55m이다. 잔존 봉토 하 1.3m 아래에서 적석부가 확인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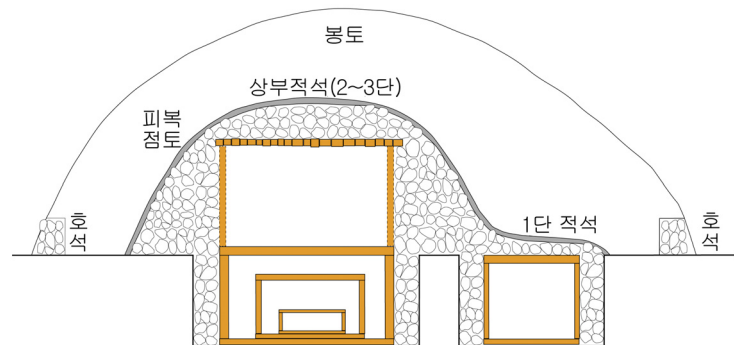


그림 6. 지하식 적석목곽분 복원 모식도

동서 9.7m, 남북 4.2m로 중앙부가 함몰되었는데 적석상부로부터 1.6m이다. 매장주체부의 주곽은 동서 5m, 남북 3.1m, 높이 1.8m이며, 부곽은 방형으로 너비 4.1m, 높이는 지표에서 1.38m이다. 묘광의 구조는 이혈주부곽식으로 축조순서를 보면 먼저 묘광을 파고 주부곽에 목곽을 설치한 후 묘광과 외곽 사이에 천석으로 1차 위석을 쌓고 그 내부에 내곽을 설치하고 내외곽 사이에 천석으로 채워 석단을 만들고 내곽 안에 목관을 안치하였다. 이후 목개로 상단을 덮고 외곽과 묘광 후면에 2차로 위석을 돌리고 1단으로 상부적석을 하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석과 적석 상부에 점토로 밀봉한 후 봉토를 성토 하였다. 이때 부곽은 2차 위석만 돌리고 상부적석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쪽샘지구 41호분은 남북 19m, 동서 21m로 이혈주부곽식 구조이다. 주곽은 평면형태가 장방형이고 외곽의 크기는 동서 5.4m, 남북 3.3m, 높이 3.6m이며, 내곽은 동서 3.8m, 남북 1.6m,

높이 1.4m이다. 부곽은 방형으로 4m, 높이 1.78m이다. 축조순서를 보면 먼저 묘광을 파고 주부곽에 목곽을 설치한 후 묘광과 외곽 사이에 천석으로 1차 위석을 쌓고 그 내부에 내곽을 설치하고 내외곽 사이에 천석으로 채워 석단을 만들고 내곽 안에 목관을 안치하였다. 이후 목개로 상단을 덮고 외곽과 묘광 후면에 2차로 위석을 1.6m 높이로 돌리고 목재로 상단을 덮었다. 그 위에 2~3단으로 상부 적석을 하고 잔자갈로 정면한 후 2차 위석과 적석 상부에 점토로 밀봉한 뒤 봉토를 성토하였다. 이때 부곽은 위석만 돌리고 상부적석은 1단만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반지하식의 구조는 4세기대의 이혈주부곽식 위석목곽묘에서 계승 발전된 구조임이 틀림없다. 즉 5세기대의 이혈주부곽식 적석목곽분과 차이점은 무덤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봉분의 성토를 위해 호석을 쌓아 돌린 점, 이중곽이 존재한다는 점, 2차 위석을 쌓아 외곽을 보호하고 공간을 확보한 점, 상부에 적석을 2~3단 쌓고 치밀한 입자의 점토로 피복한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신라의 적석목곽분은 고구려의 적석총 구조나 북방 시베리아의 목곽묘와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고, 4세기대의 위석목곽묘의 구조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자체 계승 발전한 묘제이다.

지하식 구조의 적석목곽분은 주로 초기에는 월성로 가-13호분, 황남동 109호 3·4곽, 황남동 110호분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최상위 계층에서 사용하였지만, 이후 지상식 적석목곽분의 가장 이른 단계로 판단되는 황남대총이 조영되는 시점부터는 주로 봉분의 직경 30m 정도 이하의 중하위 계층의 무덤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지상식 적석목곽분

지상식 적석목곽분 조영의 시작은 황남대총 북분, 천마총, 금관총이라 할 수 있다. 지상식 적석목곽분의 구조는 지하식과 달리 부곽이 없는 단곽식으로 주곽 내부에 별도로 부장공간을 크게 마련하였다. 지상식 적석목곽분은 지하식과 달리 축조 공정이 한층 더 복잡하고 세밀해진다.

축조 공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묘역의 전체를 정지하고 호석의 범위를 결정하고 매장주체부에 깊이 약 50cm 내외로 굴착, 2) 외부 목곽을 설치하고 묘광과 호석 사이 1차 위석을 쌓음, 3) 내부 목곽을 설치하고 목곽부 사이에 위석으로 석단을 만들, 4) 1차 위석과 호석 사이에 목가구조 설치(중소형의 경우 목가구조 생략) 5) 호석과 1차 위석부 사이에 수평으로 1차 봉토 성토 6) 내곽 내부에 목관 및 부장개 설치 등 매장주체부 설치 7) 내외 목곽에 목개를 덮고 상부에 적석을 함, 8) 상부 적석부에 잔자갈로 면을 고르고 점토로 밀봉함, 9) 2차 위석을 목가구조의 구획에 따라 쌓아 올림, 10) 봉토를 중심부 방향으로 내경하는 방식으로 2차 성토 함. 이러한 축조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사람이 죽은 후 1)~6)까지의 1차 축조 공정이 이루어지고(사망 직전에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차 축조 공정은 7)~10)까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물론 지상식 적석목곽분 전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중소형분은 이 가운데서 4)와 9)와 같은 몇 개의 공정은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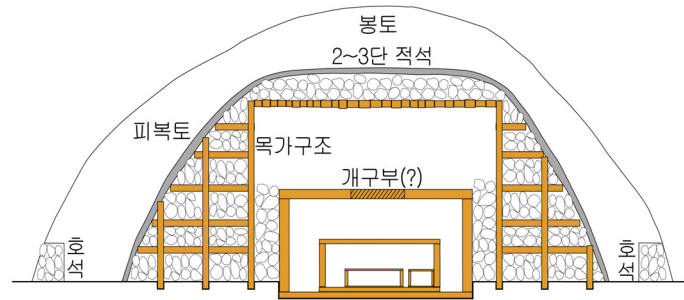


그림 7. 지상식 적석목곽분 복원 모식도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장자의 위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황남대총 남분은 지상식 적석목곽분이기는 하지만 구조에 있어 주부곽이 분리되어 있어 지하식의 전통이 남아 있다. 그러나 목곽의 형태에 있어서 외곽과 중곽 사이에 1.8m 높이의 석단이 돌려져 있으며, 중곽과 내곽 사이에 50cm의 석단을 돌린 형태이다. 또한 외곽과 중곽의 목개에 문시설이 있는데 이는 목관과 부장품의 매납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남분의 축조가 확실히 2차례의 축조 공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북분은 남분과 달리 부곽이 없는 단독곽 형태로 외곽을 설치하고 중곽과 외곽 사이는 비어 있으며, 중곽과 내곽 사이에 55cm 높이의 석단을 설치하고 내부에 자갈을 채운 구조이다. 북분의 매장주체부에서 특이한 점은 석단의 동쪽이 비어 있어 외곽과 중곽 사이의 빈공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목실묘와 같이 사자의 영혼이 공간을 넘나들 수 있도록 한 구조와 흡사하여 곽에서 실로 변화 발전한 것으로 생각되는 구조이다. 천마총의 매장주체부 구조는 북분과 흡사하지만 북분에서 보이는 내곽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금관총 또한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황남대총 북분이나 천마총과 유사한 매장주체시설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왕릉의 비정

1. 절대연대 자료의 검토

금관총의 연대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인접하여 위치한 서봉총을 비롯한 발굴 조사된 고총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서봉총은 기년명이 있는 유물이 출토되어 적석목곽분의 축조연대를 가장 정확히 알려주는 무덤이다. 이 무덤에서는 십자형꼭지가 달린 은제합 뚜껑의 내면과 합 의 저면에서 음각으로 된 명문이 발견되었고, 이것이 절대연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은함에 새겨진 명문 명문을 보면, 銀盒蓋內面 : 『延壽元年太歲在卯三月中 太王敬造合杆用三

斤六兩』, 銀盒外底面 :『延壽元年太歲在辛三月中 太王敬造合杆用三斤六兩』이라 음각되어 있다. 명문의 내용을 보면 연수원년에 대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 은합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명문에서 보이는 연수는 연호가 분명하지만 현재까지 자료에 의하면 중국, 일본, 한국에 사용한 예를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신묘년은 현재까지 적석목곽묘의 편년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다음 4개의 안을 상정해 이를 중심으로 비교 검토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1) 391년(신라 내물마립간 36년, 고구려 광개토대왕 원년), 2) 451년(신라 눌지마립간 35년, 고구려 장수왕 39년), 3) 511년(신라 지증왕 12년, 고구려 문자왕 20년), 4) 571년(신라 진흥왕 32년, 고구려 평원왕 13년)이다.

이상의 연대중 하나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나 1)의 391년은 적석목곽분의 개시기의 연대와 공반유물의 상대편년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고 4)의 571년은 적석목곽분와 황구식석실분의 합분으로 이루어진 보문리 부부총의 조사결과와 적석목곽분의 소멸시기로 보아 제외할 수 있다. 2)의 451년은 은합의 명문내용과 연대가 장수왕과 관련된 것으로 고구려에서 수입된 것으로 주장하지만, 서봉총의 공반유물을 비추어 볼 때 50년 이상 전세기구를 설정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3)의 511년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은합의 연수원년과 신묘년은 지증왕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즉 지증왕 즉위년(500년)에 왕은 64세의 고령이었으며, 신묘년은 즉위 12년 후인 511년이 되는데 이때 나이는 75세가 된다. 고대에 있어서 인간의 수명이 현재보다 짧다고 보았을 때, 장수한 왕에 속하는데 이 십자늪은 합은 지증왕의 노령을 걱정하여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이유로 연수라는 일연호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지증왕 4년(503)에 정식으로 신라의 국호가 제정되고 왕은 신라국왕으로 불리었으며, 이때부터 익호가 정해졌다는 것으로 볼 때 9년 후인 511년에는 독자적인 연호 사용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봉총의 십자늪은합은 지증왕 12년(511) 신라에서 제작되어 동왕 15년(514) 사이의 기간에 매납된 것으로 전세기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지증왕과 관련된 유물이다.

호우총에서 출토된 청동제 호우는 바닥면에『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이라는 명문이 양각되어 있다. 명문의 내용으로 보아 제작년대는 415년으로 장수왕이 부왕의 명복을 비는 기념으로 고구려에서 제작된 용기이다. 이 명문 때문에 호우총의 연대를 415년에서 멀지 않은 시기로 보거나, 공반 출토되는 유물의 상대연대가 6세기 초엽이므로 호우의 전세기구를 100년 정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반출토된 유물의 상대편년에 대입하면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되고 있는 적석목곽분 출토유물과 평행하거나 약간 늦은 정도의 형식이 아니라 모든 유물이 6세기 초반으로 편년되는 종말기 적석목곽분에서 출토된 유물과 평행하거나 오히려 늦은 퇴화기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청동호우의 제작연대는 인정하되 분묘에 매납

되기까지 전세기장 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호우총은 출토된 신라토기를 분석하여 상대 편년한 결과와 공반유물의 연대를 고려해 볼 때, 서봉총의 절대연대인 511년을 상회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증왕과 관련이 깊은 무덤으로 생각된다.

2. 왕릉의 비정

신라 적석목곽분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은 황남대총 남분의 피장자가 마립간기의 여섯왕 중에 누구냐에 있다. 남분의 중요성에 대해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적석목곽분의 기원, 구조, 연대, 배치구도 등의 연구에 절대적인 위치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남분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지만 현재도 1) 내물왕릉설(402년) 2) 눌지왕릉설(458년) 3) 실성왕릉설(417년) 등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어 오히려 신라 적석목곽분의 연구에 문제가 될 정도이다.

황남대총 남분을 1) 내물왕릉으로 비정하는 근거는 첫째, 황남동 109호 3·4곽, 황남동 110호, 황남대총 남분간에 토기로 상대 편년한 결과 약 50년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삼자 간에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 둘째, 복연의 풍소불묘(415년)에서 출토된 단병계 등자와 109호 3·4곽의 등자는 동일한 형식으로 남분의 장병계 등자는 후출하는 형식이어서 연대 차이가 있다고 하나, 효민둔 154호묘, 칠성산 96호묘, 만보정 78호묘 등에서 출토된 마구류를 분석하여 계기적 변화를 비판하고 남분이 칠성산 96호보다 약간 늦은 4세기말이나 5세기초로 볼 수 있다는 점, 셋째, 5세기 초반으로 편년되는 동진의 흑갈유자기소병이 북분에서 출토되었으므로 북분보다 선축된 남분은 최소한 그 이전으로 편년할 수 있다는 점, 넷째, 신라를 본격적으로 국가를 성장시키고 김씨왕계를 정착한 내물왕을 위해 기념비적 상징물을 조영할 필요가 있어 이른바 눌지마립간 19년(435)조의 『修葺歷代園陵』 기사로 볼 때, 대상은 눌지왕의 부모인 내물왕이 그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황남대총 남북분이 조영되었다는 점 등이다.

2) 눌지왕릉으로 비정하는 근거는 첫째, 신라토기의 상대편년이 최초 황남동 109호에서 110호를 거쳐 황남대총 남분에서 완성되는 패턴이 거의 차가 없다고 남분의 연대를 올려보고 있으나, 경산 임당동이나 부산 복천동 고분군 등에서 출토된 토기를 볼 때, 편년의 간격을 좁힐 이유가 없다는 점, 둘째, 내물왕릉은 『삼국유사』에 「陵在占星臺西南」의 기록으로 비추어 볼 때, 황남대총은 첨성대의 서북에 위치하므로 내물왕릉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월성에서 서북으로 고총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입에 위치한 인교동 119호가 가능성이 높다는 점, 셋째, 눌지마립간 19년(435)조의 『修葺歷代園陵』 기사와 관련하여 눌지가 직계조상의 묘를 확대 개축한

것으로 그 대상은 인교동 119호(추정 내물왕릉), 황남동 106호(전미추왕릉)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후부터 고총이 조영되었기 때문에 황남대총은 발굴조사 결과 수습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435년을 넘을 수 없다는 점 등이다.

3) 실성왕릉으로 비정하는 근거는 첫째, 황남대총의 외형적 특성이 내물왕릉이 될 수 없다는 점, 둘째, 금동제옥충장식등자 및 과대의 형식과 금동제 수지대관의 전환기적 양식 등의 절대연대가 5세기 초엽후반인 점, 셋째, 남분의 부장유물의 절대 다수가 고구려 계통인 것으로 볼 때,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실성왕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필자는 최근 남분이 실성왕릉으로 비정한 바 있다. 그 근거로 내물왕릉은 『삼국유사』에 첨성대 서남에 위치하고 있어 인교동 119호분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서북에 위치한 황남대총은 위치가 다르다는 점이다. 내부에서 출토된 직물과 자작나무껍질, 옷칠 등의 단수명 유기물시료를 가지고 C-14을 측정한 결과 기원후 420년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연대(김종찬 2006)를 보더라도 일단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눌지왕릉설은 눌지왕이 김씨왕계에 장자계승 원칙을 확립하고 강력한 왕이었던 왕권에 비해 발굴조사 결과 내부에서 금관이 출토되지 않고 비의릉인 북분에서 나온 점 등으로 보아 여전히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반하여 실성왕릉으로 보는 근거는 첫째, 실성이 내물왕에 의해 392년 고구려에 질자로 보내져 402년 내물이 죽자 고구려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다. 실성이 고구려에서 질자생활을 할 때는 불교를 중시한 광개토대왕 시절로 당시 불교를 접했을 개연성이 많다. 따라서 불교의 상징인 연화문 도상과 관련된 유물이 남분에서 최초로 출토된 사실은 실성왕릉일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본다. 둘째, 비록 실성이 사위인 눌지에 의해 살해되었지만, 눌지왕은 왕위계승의 정통성 확보 및 반정에 따른 민심의 진정 등의 목적으로 봉분 외형은 크게 해주었지만 내적으로 부정하는 의미에서 금동관을 부장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한 사정으로 미추의 둘째딸이고 처모이며 왕위 계승권에 있는 눌지의 장모인 아류부인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북분은 금관을 부장했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셋째, 남북분에 고구려 계통의 문물이 다량으로 부장된 것은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가 밀접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450년 고구려의 장수가 실직의 벌판에서 사냥하다가 하실라 성주 삼직에 의해 피살된 후 급격히 관계가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결과를 고려하면 눌지보다는 실성왕릉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넷째, 눌지왕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실성왕릉을 거대하게 만든 후 중형 규모였던 자신의 직계조상의 묘를 확장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소형이었던 인교동 119호분을 수습하였다. 이를 계기로 거대한 왕릉이 월성 서북 방향으로 조영되어 나갔으며, 눌지왕릉은 자비왕이 내물왕릉(119호)과 실성왕릉(황남대총)의 중간 지점인 106호(전미추왕릉)에 배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IV. 금관총의 위계와 성격

1. 구조의 검토

1921년 신라의 고도 경주에서 조사된 금관총(128호분)은 최대의 신라유물이 출토됨으로써 주목을 받았지만, 당시 계획된 발굴조사가 아니라 봉황대(125호분)와 서봉황대(130호분) 사이에 있었던 인도를 도로로 개설하고 민가를 증개축하면서 매장주체부가 있었던 동쪽부는 이미 삭평되었고 서쪽에 봉토와 적석부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남은 봉토를 이용하여 시내 저지대를 매립하는 공사를 하던 과정에 유물의 일부가 노출되어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다.²⁾

봉토의 크기는 잔존한 상태로 남북 36.3m, 동서 15.5m, 높이 6.6m였으나, 봉분의 끝자락을 기준으로 복원하였을 경우 지름 45m, 높이 12m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적석부의 범위는 동서 36.3m, 남북 27.2m로 동서로 긴 타원형을 이룬 형태이다. 매장주체부인 내곽은 표토에서 약 39.4cm의 황토층을 파고 설치하였으며, 크기는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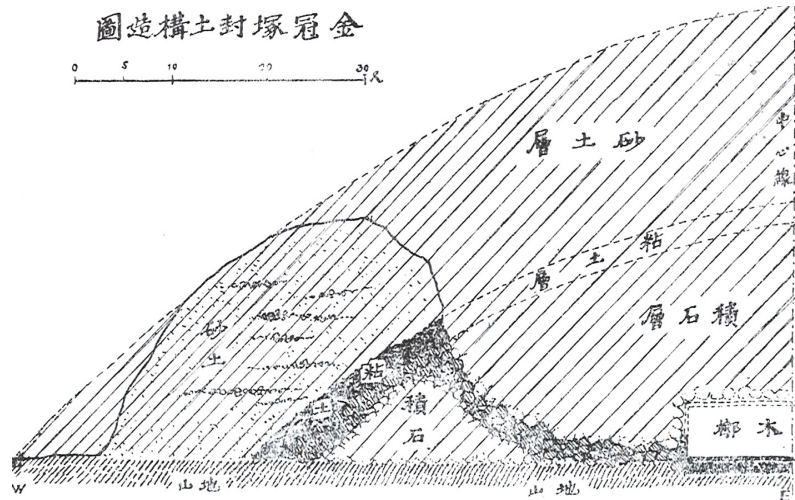


그림 8. 금관총 봉토 구조도

서 4.8m, 남북 2m이며, 관은 내곽의 서쪽에 위치하며 크기는 길이 2.5m, 너비 1m로 추정하였다. 유물의 부장은 내곽의 동쪽에 위치한다.

이상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금관총은 지상식 단독곽 형태의 적석목곽분이다. 봉분의 크기가 비슷한 천마총과 비교해 보면, 봉분 지름 47m, 높이 12.7m의 크기에 적석부 지름이 23.6m, 높이 6m이며, 목곽의 크기는 길이 6.6m, 너비 4.2m, 높이 2.1m로 차이가 있다. 금관총의 적석부 길이를 추정함에 있어 오차가 10여 미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목곽의 크기가 중소형분 보다 작게 측정된 것은 내곽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외곽의 존재를 고려하면 목곽의 크기는 동서 6m내외, 남북 4m내외로 추정할 수 있다. 보고서의 기록이 자세하지 않

2) 당시의 기록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 파란색 유리옥을 서너 개씩 손에 들고 있었고, 일부 청동 및 금제품이 확인되었다’라는 현장 보고상황으로 볼 때, 일부 유물은 이미 흩어졌다고 기록하였다.

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지상식 적석목곽분의 축조공정에 의해 만들어졌다.

금관총의 구조복원을 통해 검토해 본 결과 마립간기의 왕릉급은 아니지만 최상위급에 해당되는 고총으로 판단된다.

2. 유물의 분석

1) 철기의 연화문

금관총에서 출토된 목제 철기류는 여러 점이지만, 그 중 연화문 도상이 그려진 것은 2점이다. 그 중 한 점은 목제 철기의 구연부 하단에 시문이 된 것으로, 만개한 연화의 잎을 형으로 연속 배치하였다. 또 다른 한 점은 목제 발의 저부로 추정되는 유물에 연화문이 그려진 것으로, 만개한 6엽의 연화가 복련으로 그려져 있으며 내부의 씨방과 7개의 씨엽을 표현한 것으로 청동제 초두와 호우총의 청동제 주자의 연화와 유사한 형태이다.



그림 9. 금관총 청동사이호



그림 10. 철기의 연화문 도상

2) 연화보주개와 사이호

금관총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서 청동제 사이호 뚜껑의 손잡이는 연봉형의 보주로 이루어져 있다.

3) 청동제 주자·조두·초두

금관총에서 출토된 초두 뚜껑에는 8엽의 연화문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호우총의 청동제 주자, 원주 법천리의 초두, 국립동경박물관 소장 전합천 출토 용화문 초두 뚜껑과 거의 동일하다.



그림 11. 호우총의 청동호우 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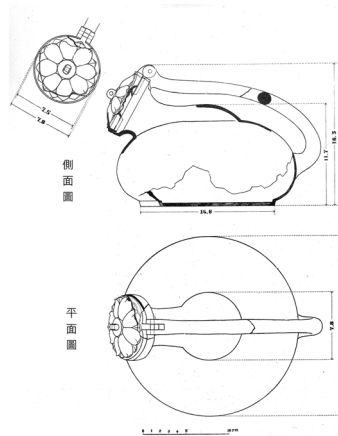


그림 12. 호우총 청동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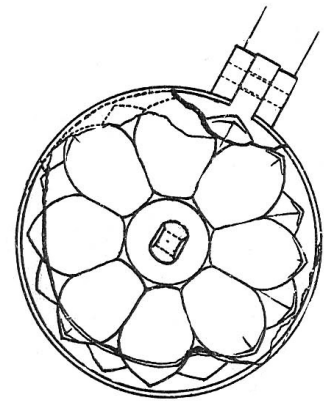


그림 13. 호우총 청동주자 뚜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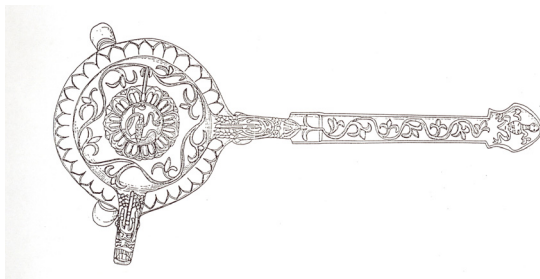


그림 14. 傳합천 출토 초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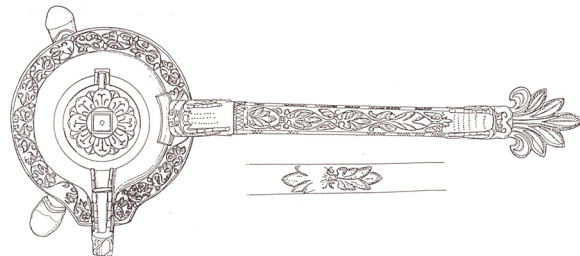


그림 15. 금관총 출토 초두

호우총에서 출토된 청동제 주지는 청동제 호우와 함께 고구려에서 제작하여 신라로 반입된 유물로 판단된다. 이 주자 주구의 뚜껑에 부조된 8엽의 연화문은 제작기법이 정교하여 연화의 꽃잎 끝이 약간 들린 듯이 돌출하였으며, 사실적으로 묘사된 것으로 복련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청동제 주자의 연화문 도상은 금관총에서 출토된 청동제 초두에서 볼 수 있는데, 양자는 동일한 장인이 제작하였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로 양식적으로 동일하며, 이외에 원주 법천리 4호분에서 출토된 청동제 주자의 뚜껑으로 추정되는 유물의 연화문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표현방법에 있어서 8엽의 연화에 중앙부를 갈라 그린 선을 이용하여 음각으로 연화를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초두의 용도는 물을 끓이거나 데우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용기로 볼 수 있지만, 당시 신라사회에서 이러한 용기류를 제작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계층이 한정되어 있어 고구려에서 직수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형태의 용기는 한대에 용수병 초두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제작 사용된 것은 육조시대이며 서역 불교예술의 영향으로 제작되었고 중국에서 고구려를 거쳐 신라에 전래된 유물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특히 자루의 끝에 조각된 연화문 도상은 고구려의 진파리 4호분에서 보이는 연화문과 무녕왕릉 왕

비의 배개장식에서 보이는 연화문 도상과 유사하다. 이 초두는 불교의 영향으로 제작되었고 용도는 정화수와 관련된 공양구의 일종으로 생각된다.

4) 금동제 식리

금관총의 식리는 바닥에 정 대신에 6엽의 만개한 연화좌가 박혀 있다. 이 연화좌가 박혀진 신발은 실용적인 측면보다는 장식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어떠한 종교적인 목적에서 제작한 것이 확실하며, 그것은 결국 불교와 연관해 볼 수밖에 없다. 이 식리는 신라의 최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데, 착용자는 불교의식을 주관하던 사람이었거나 최소한 불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신라토기류

금관총에서 출토된 토기류는 장경호를 포함하여 약 80여 개체분이 보고되었다. 유개고배류는 3점이 모두 일단투창으로 전형적인 신라토기 형식이며, 뚜껑은 투창형 꼭지가 부착되었으며 신부에 문양은 시문되지 않고 표면은 소성시 자연유의 영향으로 광택이 난다. 개배류는 13점이 출토되었는데 색조는 회흑색이며, 소성시 자연유의 영향으로 광택이 난다. 뚜껑은 투창형 꼭지가 부착되었으며, 꼭지와 개신 사이에 1조의 침선을 돌려 2단으로 구획하고 그 상단에 5줄의 삼각집선문을 횡으로 돌아가며 시문하였다. 대부분은 소형으로 대각에 일단투창이 뚫려져 있고, 신부는 구형으로 중앙에 이형의 파수가 종으로 부착되었으며, 구연부는 내경한다.

호뚜껑으로 판단되는 뚜껑류는 약 20여점으로 크기는 큰 것이 직경 21.8cm, 작은 것은 15.2cm로 독립적으로 출토되었다. 개신은 반구형로 뚜껑받이턱이 마련되어 있으며, 투창형꼭지가 부착되었다. 신부에 배치된 문양은 대체로 5가지로 전면에 침선을 사격자상으로 시문한 류, 신부 중앙에 침선 1조를 돌려 상단에 삼각집선문을 하단에 사격자상 침선을 시문한 류, 신부 상하단에 교차로 삼각집선문을 시문한 류, 침선 2조를 상하에 돌리고 중앙단에 2조의 침선으로 별모양으로 시문한 류, 침선 3조를 상하에 돌리고 각 단에 방형집선문과 원권문을 교차로 시문한 류 등이 있다.

장경호는 전체적으로 회청색의 색조를 지니며, 소성시 자연유가 부착되어 광택이 나고 경부와 견부 사이는 산화되었다. 저부는 들림 평저이고, 동체부는 최대경이 중앙에 있는 구형으로 견부에 침선 3조를 돌렸으며, 경부는 외경하다가 구연단 아래에서 내경하고 상하에 2조의 굽은 돌대 2조씩을 돌렸다. 단경호는 원저의 바닥에 동체부는 구형이고 경부는 직립하다가 외반하는 것과 급격히 외반하는 것이 있다.

장군형토기는 완형으로 3점이 출토되었다. 유개장군호는 평저에 동체부는 전체적으로 말각장방형을 이루며 상단 중앙부에 경부를 외반하는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구연단 아래에 갈고리 형태의 귀를 4개 등간격으로 부착하였다. 뚜껑은 드림턱을 마련하였으며 원형상의 꼭지를 부착되었다. 발형기대는 철제술의 뚜껑으로 사용된 것으로 대각부는 부장전에 이미 의도적으로 제거하였으며, 소성시 신부는 대각부에서 반원상으로 외경하고 굽은 돌대 2조를 상중하단에 돌려 구획하고 상단에 사격자문을 하단에 연속 반원문을 시문하였다.

금관총에서 출토된 신라토기류는 형식적으로 5세기 3/4분기 후반에 편년되며, 황남대총 남분의 토기에서 더 발전된 전성기 양식이며, 특히 뚜껑에 시문된 문양으로 볼 때 가장 화려한 장식 기법이 채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금관총의 성격

금관총은 월성에서 서북으로 이루어진 고총의 배치구도에서 보면 말단에 위치한 봉황대 고총과 인접해 있다.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금관총은 원래 봉황대와 접해 있어 일제가 시내로 통하는 남북도로를 개설하기 전에는 두 봉분 사이의 언덕을 넘어 다니는 통로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금관총은 봉황대(125호)와 봉분의 끝자락이 거의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금관총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면 금관, 조익형 금제관식, 금제관모, 금제과대, 금제팔찌와 지환, 금제이식, 금제완, 금제장식, 금동제식리, 환두대도, 경식, 곡옥, 금동제마구류를 비롯하여 최상위급에 해당하는 왕릉급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금관이 출토되었다고 왕릉으로 비정하기 어려운 것이 금관총 주변에 중대형분인 서봉총, 금령총, 천마총 등에서 금관이 출토되어 마립간기에 재위한 여섯 왕 중 내물왕을 제외하고 실성왕에서 지증왕까지 다섯 왕만 왕관을 착용했다면 황남대총 북분을 비롯하여 금관이 5개 출토되었으므로 더 이상 왕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월성 서북에 위치한 고총군에서 이미 발굴 조사된 고총보다 훨씬 대형인 봉황대를 비롯하여 8개가 있으며, 비슷한 규모의 고총이 20여개가 있으므로 이 고총군 또한 발굴조사를 실시한다면 금관이 출토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관=왕릉의 등식은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현재상태에서 봉분의 규모로 볼 때 대형분 30여개 중 금관총은 중간 정도 크기에 해당되어 왕릉으로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월성 서북으로 조영된 초대형 왕릉의 배치는 초입에 119호(내물왕릉)-106호(눌지왕릉)-황남대총(실성왕릉)-봉황대(자비왕릉)-서봉황대(소지왕릉)-134호(지증왕릉) 순서로 축조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배치 구도에서 노동동 고분군에 위치한 금관총·금령총·

식리총은 봉황대(125호)와 거의 연접한 고총으로 자비왕릉(479년), 노서동고분군에 위치한 서봉총은 서봉황대(130호)인 소지왕릉(500년), 은령총·호우총 등은 표형분(134호)인 지증왕릉(514년)의 배총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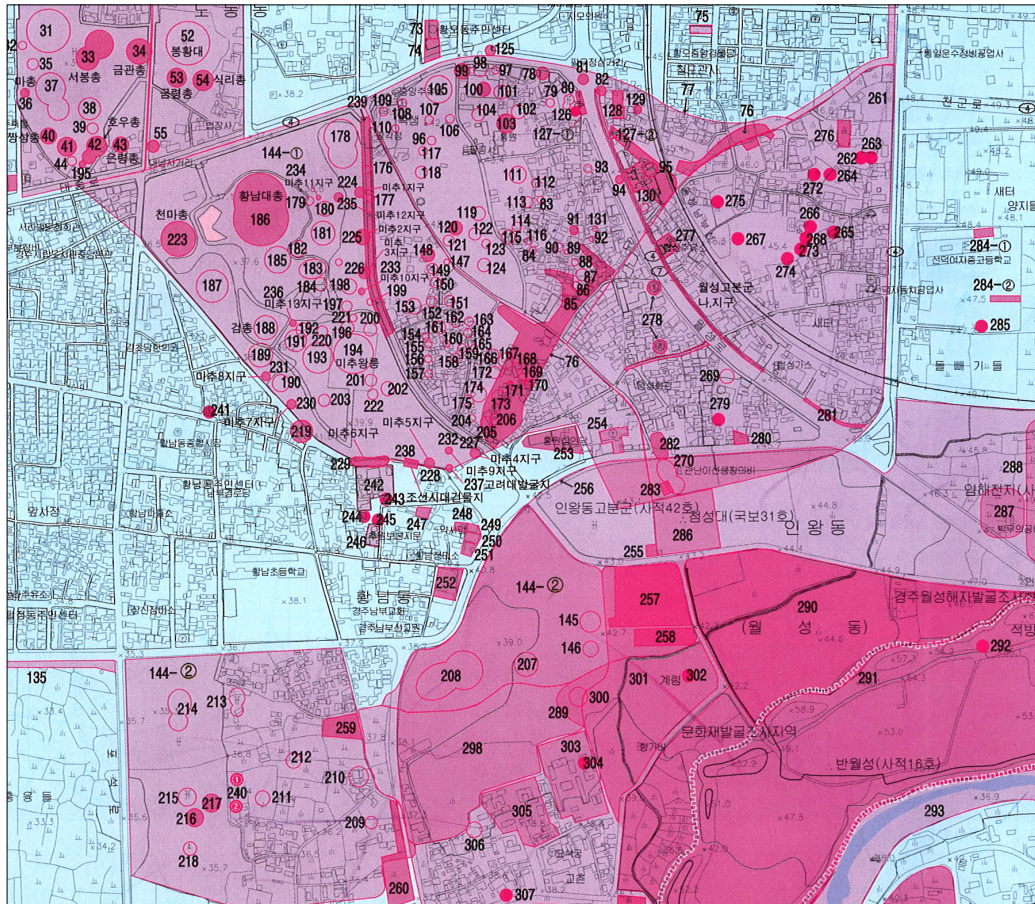


그림 16. 경주시내 일원 고총 분포도

V. 맺 음 말

신라 왕경에 분포하고 있는 적석목곽분은 4세기말에서 5세기초에 조영되기 시작하여 6세기 중엽에 황혈식석실분으로 전환되기 직전까지 마립간기의 왕과 귀족 등 상위계층이 사용한 것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된 묘제였다.

적석목곽분의 기원에 대해서는 북방 기원설이나 고구려 기원설보다는 재지의 목곽묘에서 사방 적석 구조로 발전한 후에 상부적석이 가미되어 완성되었다는 자체발전설이 타당하지만, 검토 결과 적석목곽분은 원삼국시대 영남지역의 재지 위석목곽묘에서 고총 발생의 필요에 의해 무덤이 확대되면서 매장주체부의 구조변화와 상부적석이 이루어진 묘제로 판단된다.

적석목곽분의 구조는 지하식과 지상식으로 구분되고 매장주체부의 부곽의 위치에 따라 동혈주부곽식·이혈주부곽식·단독곽식의 형태가 있다. 3개 형식 모두 앞 단계의 위석목곽묘 형태를 1차 구조로 하고 상부에 적석을 하고 봉토를 축토하는 2차 위석 및 적석 기법으로 축조하였다.

황남대총의 피장자는 실성왕일 가능성이 높고, 서봉총과 호우총의 절대연대를 검토한 결과 지증왕과 관련이 깊은 무덤으로 판단된다.

금관총의 구조는 황남대총 북분, 천마총과 같은 지상식 적석목곽분이며, 출토된 신라토기의 형식분류를 통한 상대편년을 감안해 보았을 때 무덤의 연대는 5세기 3/4분기 후반에 위치할 수 있으며, 피장자는 부장된 유물에 연화문 도상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판단하면 불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금관총은 주종인 봉황대의 연접분으로 배총 관계이며, 피장자는 봉황대의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자비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 참고문헌

- 강인구, 1981, 「신라적석봉토분의 구조와 계통」, 『한국사론』 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김대환, 2001, 「신라고총의 지역성의 의의」, 『신라문화』 2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김두철, 2007, 「소위 사방식적석목곽묘의 검토」, 『고고광장』 창간호, 부산고고학연구회.
- _____, 2013, 「신라 적석목곽분 구조의 재검토」, 『신라문화특강』 제16회, (재)성림문화재연구원.
- 김용성, 1981, 『대구·경산지역 고총고분의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3, 「황남대총 남분의 연대와 피장자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42.
- _____, 2004, 「신라고총의 확산과정」, 『신라문화』 2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_____, 2009, 『신라 왕도의 고총과 그 주변』 학연문화사.
- _____, 2011, 「적석목곽묘의 이해」, 『신라문화특강』 제5회, (재)성림문화재연구원.
- _____, 2014, 「신라 고총체계의 관점」, 『신라와 가야의 경계』. 영남고고학회.
- 박광열, 1999, 「신라 서봉총과 호우총의 절대연대고」, 『한국고고학보』 41.
- _____, 2001, 「신라 적석목곽묘의 개시에 대한 검토」, 『경주사학』 20.
- _____, 2007, 「신라 적석목곽묘 출토 황금유물과 초전불교」, 『문화사학』 27.
- _____, 2014, 「신라·가야토기의 성립과 분화」, 『신라와 가야의 경계』. 영남고고학회.
- 심현철, 2013, 「신라 적석목곽묘의 구조와 축조과정」, 『한국고고학보』 88.
- 이성주, 1992, 「울산 중산리 유적을 통하여 본 신라묘제의 기원」, 『제1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 _____, 1996, 「신라적석목곽묘의 전개와 의의」, 『신라고고학의 제문제』, 제20회 한국고고학회전국대회.
- 이재홍, 2007, 「경주지역 적석목곽묘의 출현과정에 대한 일고찰」, 『영남고고학』 43.
- 이종선, 2000, 『고신라왕릉연구』, 학연문화사.
- 이희준, 1995, 「경주 황남대총의 연대」, 『영남고고학』 17.
- _____, 1996, 「경주 월성로 가-13호 적석목곽묘의 연대와 의의」, 『석오윤용진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41.
- _____, 1997, 「토기에 의한 신라고분의 분기와 편년」, 『한국고고학보』 36.
- _____, 2007,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 최병현, 1983, 「고신라 등자고」, 『송실사학』 1.
- _____, 1992, 『신라고분연구』, 일지사.
- _____, 1993, 「신라 고분편년의 제문제」, 『한국고고학보』 30.
- _____, 1998, 「신라 적석목곽분의 기원 재론」, 『송실사학』 12.
- _____, 2000, 「황남대총의 구조와 신라 적석목곽분의 변천·기원」, 『황남대총의 재조명』. 국립경주 문화재연구소
- _____, 2012, 「신라 초기양식 설정과 편년」, 『영남고고학』 63.
- _____, 2013, 「신라 전기양식의 성립」, 『고고학』 12-1, 중부고고학회.
- _____, 2014,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형성과정과 신라마립간시기 왕릉의 배치」, 『한국고고학보』 90.
- 최수형, 2010, 「충전석목곽묘의 구조변화와 성격 검토」, 『중앙고고연구』 7.
- 함순섭, 2010, 「황남대총을 둘러싼 논쟁, 또 하나의 가능성」, 『황남대총』, 국립경주박물관

‘奈斯智王’銘 大刀와 新羅文字資料

이 용 현

(국립대구박물관)

‘尔斯智王’銘 大刀와 新羅文字資料

- 관련 문자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기초적 검토 -

이 용 현 (국립대구박물관)

목 차

머 리 말

1. 金冠塚 ‘尔斯智王’銘 大刀의
銘文 樣相
2. 新羅 古墳 出土 文字資料와
‘尔斯智王’銘文
3. 中古期 新羅 文字資料로 보는
‘尔斯智王’

4. 智證麻立干 3년의 王號 採用과
‘尔斯智王’
5. 麻立干期 王室系譜 속 ‘尔斯智王’
맞춤말을 대신하여- 十(X)의 의미-

머 리 말

2013년 7월 국립중앙박물관은 금관총 출토 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도에 ‘尔斯智王’이라는 명문을 발견하였음을 공표하였다.¹⁾ 금관총은 5세기 3/4분기에서 4/4분기에 걸쳐 혹은 6세기초까지도 편년되고 있는 듯하다.²⁾ 이른바 마립간기 신라무덤의 주인공을 가리는 것이 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이래 학계의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공표 직후, 각종 매스컴을 통해 學者諸賢의 코멘트가 紙上을 메웠지만 정작 문자자료적 측면에서 접근한 정식은 적다. 본고에서는 신라 고분 출토 문자자료는 물론, 중고기 신라 비문과 각석 등 관련 자료를

1)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2) 최병현은 3/4분기, 伊藤秋男은 3/4분기에서 4/4분기, 藤井和夫, 白井克也와 이한상은 4/4분기, 홍보식은 6세기초. : 이한상, 2004, 『황금의 나라, 신라』: 최병현, 1998, 「신라 적석목곽분의 기원 재론」 『崇實史學』32 : 藤井和夫, 1979, 「慶州古新羅古墳編年試案」 『神奈川考古』6 : 白井克也, 2003, 「新羅土器型式分布變化年代觀」 『朝鮮古代研究』4, 홍보식, 2013, 「5-6세기 신라의 고분문화와 양산부부총」, 『(백년만의 귀환)양산부부총』, 양산유물전시관 등

신출토자료와 비교 검토를 통해, 신출토 ‘이사지왕’명 대도의 物로서의 성격을 살펴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가 되고자 한다.

1. 金冠塚 ‘兪斯智王’銘 大刀의 銘文 樣相

금관총 출토 고리자루큰칼(環頭大刀)에 보이는 글자의 양상을, 2013년 7월 국립중앙박물관이 발표한 판독안을 토대로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대도1) : 칼집 [앞면]	상단 ‘兪’	하단 ‘兪斯智王’
	[뒷면]	하단 ‘十’
국립경주박물관 소장(대도2) : 칼집 [뒷면]		하단 ‘十’
	[앞면]	상단 ‘八’ ³⁾ 하단 ‘兪’

대도1 칼집 앞면 하단의 ‘兪斯智王’은 ‘仁斯智王’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같은 칼의 칼집 앞면 상단의 ‘兪’, 대도2의 뒷면 하단의 ‘兪’의 서체와 비교할 때, ‘兪斯智王’임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대도1에서 상단의 ‘兪’는 하단의 ‘兪斯智王’을 가리키는 것으로 略記의 형태로 판단된다.

대도1 칼집 뒷면 하단의 ‘十’과 대도2 칼집 앞면 하단의 ‘十’은 숫자인지 기호인지 판단의 근거가 명확치 않은데,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숫자 ‘十’으로 판단해둔다. 근거는 후술한다. 다만 대도2 칼집 앞면 상단의 ‘八’로 제시된 것은 그렇게 봐야하는지 보류해둔다. 글자의 방향이 다른 것과 크기가 다른 자의 1/2이하로 매우 작은 점에서 그렇다.

글자의 위 아래(天地) 방향은 칼1의 칼집 앞면 하단 ‘兪斯智王’은 아래쪽을 향하고 있으며, 상단 ‘兪’은 위쪽을 향하고 있다. 즉 ‘兪斯智王’과 ‘兪’는 글자방향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다. 다음에 대도1 뒷면 하단의 ‘十’을 글자로 볼 경우, 천지 좌우방향을 어떻게 봐야하는가 이다. 앞뒷면 및 상하단의 대응 관계로 볼 때, ‘兪斯智王’과 천지의 방향을 같이한다고 보아두어야 할 것 같다. 즉 대도1 뒷면 하단의 ‘十’은 칼집 상단쪽을 글자의 상단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결국 칼집에서 양쪽 끝 금구에 관 글자의 방향은 각각 양쪽 끝 쪽을 상단부로 삼고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글자의 방향은 또 대도2에서도 적용해도 좋을 듯 싶다. 글자를 쓸 때에, 금구의 상단부 쪽에서부터 붙여 쓰는 것이 특징이다. 단 ‘十’의 경우는 아래쪽에 붙여 썼다. 상하를 의식하여 새겼다고 보인다. 이 같은 원칙에서 볼 때, [앞면] 상단의 ‘□’을 최초판독안과 같이 ‘八’로 보게 될 경우, 글자방향이 변칙적인 것이 되고, 글자크기도 다르게 된다. 이에 ‘八’이란 안

3) 당초 이것을 八로 판독하여 발표하였다.

을 선뜻 취하기 어렵게 된다. 이것이 글자의 남은 획이라면 오히려 六이나 大 같은 계열의 글자의 왼쪽 일부인 듯한 감도 들기 때문이다. 이것이 제대로 새겨진 글자라고 한다면, 글자의 위치나 서식으로 보아서는 ‘尔’가 와야 할 자리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八자의 잔획 외에는 어떤 새김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꺼림직 하지만, 글자를 확정하기도 설명하기도 어렵다. 같은 금관총 대도 병부 장식에 같은 2례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과제다. 여기서 칼집 칼자루의 금속부분 한 건 단위로 글자의 맥락이 완결되고 있음을 간취하게 된다. 즉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대도1) : 칼집 하단 [앞면 ‘尔斯智王’ [뒷면 ‘+’

국립경주박물관 소장품(대도2⁴⁾) : 칼집 하단 [앞면 ‘尔’ [뒷면 ‘+’

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대도1 ‘尔斯智王 +’

대도2 ‘尔 +’

이는 ‘왕명++’의 서식이다. 대도2 앞면 상단의 ‘尔’는 하단의 ‘尔斯智王’을 略記한 것에 다름 아니다.

금관총(혹 금관릉)은 1921년 9월 발굴되었는데, 발굴보고서가 발간되다가 말아, 완간되지 못하였다. 간행된 부분에서는 개요와 토기, 금속기, 칠기와 유리제품, 이식과 파대 등 장식품까지만 서술되어서, 대도 관련 서술 부분은 간행되지 못하였다. 발굴 자체가 응급발굴로 서둘러 단시일 내에 이뤄지면서 발굴과정의 현장기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였다. 현장조사자들의 기억에 의존한 정리와 복원도 역시 서로 맞지 않아 유물 중 상당수가 출토상태를 알 수 없게 되어 버렸다.⁵⁾ 이처럼 유물의 출토양상과 유물 자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에 간행된 보고서의 개요에 해당하는 〈序說〉에서의 대도 관련 기술, 또 대도 관련 도판을 모두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원형이 거의 유지된 환두대도 한 자루가 자루 끝을 동쪽으로 해서 남벽 쪽 가까이에 있었다.⁶⁾
2. 관의 양 측면에 다 대도류가 놓여 있었다.⁷⁾
3. 출토된 도검 목록⁸⁾

4) 본고에서는 편의상 명문대도 2점 가운데, 현재 중앙박물관 소장품을 대도1, 경주박물관 소장품을 대도2로 부른다.

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11, 『慶州 金冠塚 發掘調査報告書(國譯)』(원본은 1923년 발간, 집필자 濱田耕作·梅原末治) 위의 책 제1장 제3절 유물 출토상태와 고분 구조의 개요, p.29

6) 위의 책 (5)곽내 동반부 유물의 상태, p.31 : 곽의 하부 쪽이 서쪽, 우측이 남쪽, 상부가 동쪽, 좌측이 북쪽이 된다.

7) 위의 책 (6)곽내 서부 유물의 상태, p.32

- (가) 환두대도(편 포함) : 3자루
- (나) 환두목도(편 포함) : 5자루
- (다) 대도 편 : 수 자루 분
- (라) 도자 편 : 수 자루 분
- (마) 환도 병두 및 장식구 : 약 14개 분
- (바) 규두대도 병두 : 2개

4. 도판

제4도 금관총 유물 배치 약도⁹⁾ : 환두대도, 대도(두 곳)¹⁰⁾

도판 제80 (1)금동제 소도부 삼루환두대도, (2)금동제 삼루환두대도, (3)금동제 소도부 삼루환두대도¹¹⁾

도판 제81 금관총 발견 삼루환두대도 그림¹²⁾

도판 제82 (1)금동제 이하도 파편 (2)금동제 이합도 파편 (3)금동제 대도 파편¹³⁾

도판 제83 (1)-(5)금동제 삼루 환두목도¹⁴⁾

도판 제84 금관총 발견 삼루환두목도 그림¹⁵⁾

도판 제85 금동제 등 도자 및 도 파편¹⁶⁾

도판 제86 (1)금동제 삼루환두 등 (1)-(13)¹⁷⁾

명문 대도1은 보고서 도판 제80-(3)과 도판 제81-(2)에 대응되며, 명문 대도2는 보고서 도판 제80-(2)에 대응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거의 완형에 가까운 것이 동남쪽에 있었다는 서술, 또 위치상 그것으로 보이는 그림 7의 ‘7 환두대도’에 小刀가 붙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간취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도판 제80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것이 문제의 ‘이사지왕’명 대도 즉 대도1인 것으로 보인다. 즉 대도1은 관 위의 부곽부, 그 중에서도 우측 중간부에서 발견되었다. 대도2를 포함한 그 외 대도의 정확한 위치는 유감이지만 판별해 낼 수 없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대도2는 아마도 피장자 상반신 좌측이나 우측 혹은 발치 중 한 군데에 있었다는 정도이다. 구자봉은 이것을

8) 위의 책, 3 무기류 (1)도검, p.34

9) 위의 책, p.30

10) 그림에서는 大刀가 아니라 太刀라고 썼다. 관의 좌, 우, 하단부 각각 3곳 즉 피장자의 왼쪽 팔 부분, 머리 오른쪽 부분, 발치 부분에 대도가 있었다고 표기하였다.

11) 주(5)의 책, p.193

12) 위의 책, p.194

13) 위의 책, p.195

14) 위의 책, p.196

15) 위의 책, p.199

16) 위의 책, p.1978

17) 위의 책, p.1978

일정한 의도에 따른 儀式에 의해 의도적으로 매납된 것이며, 이와 동류의 삼(루)환두대도는 5세기대의 것이라고 하였다.¹⁸⁾

2. 新羅 古墳 出土 文字資料와 ‘尔斯智王’銘

‘尔斯智王’銘 大刀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먼저 이 유물이 출토된 금관총과 같은 경주 내 고총고분에서 출토된 문자자료를 일별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박방룡에 의해 정리된 적이 있다.¹⁹⁾ 이를 바탕으로 관련 연구성과를 덧붙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호우총

- 명문 호우 (신120)

(상단중앙) # (제1행)乙卯年國/(제2행)罌上廣開/(제3행)土地好太/(제4행)王壺杆十
乙卯年, 國罌上廣開土地好太王 壺杆, 十.
을묘년, 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의 호우, 十.

명문 호우는 무덤 상단부 부장칸의 좌하부에서 출토되었다.²⁰⁾ 명문은 뚜껑과 그릇으로 이뤄진 청동합의 바깥바닥 부분에 주조된 것으로, 4자 4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당초 청동합 주조 단계에 함께 명문이 들어간 것이다.²¹⁾ 이것은 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은 광개토왕을 가리키며, 신라 자체 제작품이 아니라 고구려 제작품으로 신라에 이입된 것이다.²²⁾

▶ 瑞鳳冢

- 명문 은합(본14357)

바리 延壽元年太歲在辛 三月□太王敬造合杆 三斤
뚜껑 延壽元年太歲在卯三月中 太王敬造合杆用三斤六兩

아마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듯 하다.

“延壽元年, 太歲在辛卯, 三月中/太王/敬造合杆/用六斤六兩”²³⁾

18) 구자봉, 2011, 「삼국시대 장식대도 연구」 『북방사논총』 5, p.273, p.278

19) 박방룡, 2002, 「고분출토 문자」 『(특별전)신라의 문자』 국립경주박물관, pp.11-19

20) 김재원 등, 1948, 『壺杆塚와 銀鈴塚』 국립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2010, 『금석문자료1-삼국시대-』 p.126

21) 국립중앙박물관, 2010, 『금석문자료1-삼국시대-』 pp.122-125

22) 앞 주(20)의 책, 아래 정설

23) <바리 3근 + 뚜껑 3근6량 = 도합 6근 6량>에 대한 발상은 함순섭의 교시다.

정식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아 유구의 전모와 출토지점을 특정하기 어렵다. 글자에 대해서는 이흥직이 정리한 바 있으며²⁴⁾, 상세사진자료가 근년에 일부 공개된 바 있다.²⁵⁾ 은합은 뚜껑과 바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뚜껑 내면 중앙과 바리 바깥면 중앙에 각각 명문이 침각되었다. 延壽와 辛卯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고구려 연호이며 451년(장수왕39)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²⁶⁾ 신라가 연호를 쓰기 시작하는 것과 태왕호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 6세기이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은합은 고구려 제작품이며, 451년은 서봉총 연대의 상한이 된다.

▶ 皇南大塚 北墳

- ‘夫人帶’명 은 대금구(황북 55)

은으로 만든 허리띠에 달리는 부속 장식의 뒷면에 예리한 도구로 ‘夫人帶’라고 음각되었다. ‘夫人帶’란 夫人의 帶란 것으로 은허리띠의 소유자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명문이 근거가 되어 황남대총 북분의 주인공이 부인 즉, 여성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종래 거의 주목되지 않았지만, ‘夫人帶’ 아래쪽에 空格을 두었다가 끝자락에 ‘十’이 목격된다.²⁷⁾ 이에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夫人帶 十

- ‘夫’ ‘百’ 명 은관식(황북 2)

같은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은으로 만든 새날개모양의 관장식의 뒷면에 ‘夫’와 ‘百’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²⁸⁾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도 ‘十’이 보인다.²⁹⁾ 정리하면

[뒷면] 좌측 날개 좌상단부 ‘百’, 우측 날개 좌상단부 파손³⁰⁾

꽃이 하부 우상부 ‘十’ 꽃이 하부 좌부 ‘夫?’

- ‘下□’명 금동제품(황북 285)

마구류와 함께 출토된 용도 미상의 금동제품편에서 침각된 명문인 ‘下□’가 있다. □는 하단이 잘려나가 온전치 못하지만, 상단의 남은 획으로 추정컨대 ‘羊’ 혹은 ‘善’³¹⁾과 같은 글자계열로 추정된다.

24) 이흥직, 1954, 『延壽在銘 新羅 銀合杆에 대한 一·二의 考察』 『崔鉉培博士 還甲紀念論文集』

25) 앞의 주 21)의 『금석문자료1-삼국시대-』 pp.129-131

26) 정운용, 1997,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 연호』 『사총』 5, 고려대학교사학회, pp.61-62

27) 함순섭, 2010, 『신라의 허리띠꾸미개』 『(황금의 나라, 신라의 왕릉) 황남대총』 국립중앙박물관, p.146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5,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査報告書』 도판 105-1

28) 함순섭, 2010, 『신라의 ‘날개모양 관 꾸미개』 『(황금의 나라, 신라의 왕릉) 황남대총』 국립중앙박물관, p.39

29)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5,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査報告書』 도판 86-3

30) 1자의 글자가 있었을 가능성 농후

31) 老子의 『道德經』에 ‘道者萬物之奧 善人之寶 下善人之所保’가 보인다.

- ‘東’朱書 칠기편(황북609)

黑漆된 칠기의 외면에 朱書로 ‘東’자가 쓰였다. 이는 제작자(기관) 혹은 주문·수령자(혹 기관)로 추정된다.

▶ 皇南大冢 南墳

- ‘王公’銘 銅鏡

새무늬와 박국이라는 장기관에서 이름을 따와 鳥文博局鏡이라 불리는 동경이다. 바람의 신을 의미하는 여덟 마리의 새 가장자리에 10자의 길상구가 鑄造되었다. 형식으로 볼 때 3세기 이후 북방평원에서 제작된 것이다.³²⁾

王公大貴昌, □□宜官□

왕공은 크게 귀하고 번창하고, □□는 官□에 좋게되길

고구려를 통해 신라에 유입된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 ‘馬朗’朱書 칠기완(황남4773)

주곽에서 출토되었는데, 칠기 저부 외면에 주서로 ‘馬朗’이 쓰여 있다. 馬朗은 인명으로 보이는데, 신라의 인명으로는 보기 힘들다. 중고기 금석문과 같은 1차자료는 물론, 2차자료이긴 하지만 삼국사기 같은 문헌자료에 보이는 인명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질적이다. 비신라계식의 인명이다. 낙랑칠기 명문 사례에서는 저부의 명문은 인명은 受領者의 이름이다. 고구려를 통해 신라에 들어온 이입품이다. 칠기에 시문된 무늬가 북방 혹은 고구려계라는 박광열의 지적³³⁾은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 皇吾洞 17號墳

- ‘高德興’명 청동 초두(본13523)

보고서 미간으로 출토양상 등 구체정보가 부족하다. 삼족 초두로 자루 아래쪽 혹은 이면에 음각으로 ‘高德興□’이 새겨져 있다. 글자를 넣은 것은, 제작완성 후에 글을 새긴 것이 아니라, 이미 주조를 위한 범형의 제작단계에 계획된 것이다. 범형 제작을 위한 밀랍제작시, 글자는 침각된 것이다. □는 좌변은 금이나 우변에 불확실하여, 확정하기 어렵다. 덕이 높아지고 일이 잘되라는 吉祥句로 추정되거나 혹은 고덕흥은 이름으로 여겨진다.³⁴⁾ 초두의 명문은 이 시기

32) 이양수 『거울은 어디서 왔나』 주(26)의 도록, p.98

33) 한편 이 칠기의 문양분석을 통해 이것이 북방이나 고구려의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박광열, 2007, 『新羅 積石木槨墓 出土 黃金遺物과 初傳佛敎』 『문화사학』 27, p.214)

34) 국립경주박물관 상설전시실 전시설명패널(2014.6)

신라의 서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세련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고기에 접어들어서도 신라의 서체는 고졸하기 짝이 없다. 역시 고구려에 있었던 것이 신라로 이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高德興이 만약 인명이라면, 이는 제작자나 수령자와 관련될 텐데, 고구려 왕족의 성씨가 高씨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 天馬冢

- ‘董’朱書 칠기

주곽의 부장품 궤에서 출토된 왕실의 칠기그릇 가운데 파편(경주2409)의 겉면 구연부로 추정되는 부위에 검은색 혹은 짙은 색 바탕위에 붉은 글씨 ‘董’가 있다. 董은 중국의 성씨이기도 하고, 감독·관리한다는 의미의 말이기도 있다. 여기서는 글자 한 자만이 있을 뿐이어서 정확한 뜻을 특정하여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칠기가 고급물품이고 관련해서 제작자나 주문자 내지 수령자 개인의 이름이나 기관의 이름이 있는 경우가 있다.³⁵⁾ 그것으로 보아 董은 제작 혹은 수령자의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 이름이든 성씨가든 董은 중고기와 그 이전의 신라에서는 보기 힘들다.

▶ 鷄林路 14號墳

- 명문 청동합

뚜껑과 그릇으로 이뤄진 청동합에 글자가 있다. 부장부의 서남쪽, 우측 피장자의 머리 위쪽에 뚜껑이 뒤집힌 채 바리에 비스듬히 얹혀 있었다. 뚜껑 내부 중앙과 바닥 외부 중앙에 각각 같은 자로 보이는 글자 1자가 침각되어 있다. 弔의 이체자일 가능성, 帝일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죽은 이를 애도하기 위한 글자를 새긴 것이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³⁶⁾

▶ 皇吾洞 16號墳

- ‘大富’명 청동합

그릇과 바리로 이뤄진 청동합의 그릇 바닥 외부에 ‘大富’가 새겨져 있다.

- ‘大富貴’명 청동 말방울

고리가 달린 청동방울의 납작한 앞면과 뒷면에 3자씩 6자가 있다.

[앞면]大富貴 [뒷면]宜牛羊

부귀 크게(번창) 소, 양(등 가축) 좋게(번성)

35) 지금까지 알려진 낙랑칠기의 글자의 내용은 제작처 제작자가 주종을 이루며, 수령처(혹 주문자)가 추가되는 경향을 보인다.(임기환, 1992, 『제3편 낙랑 및 중국계금석문(1부 낙랑 제3장 칠기명)』, 『(譯註)韓國古代金石文1-고구려, 백제, 낙랑-』 pp.252-299)

36) 윤상덕, 2010, 『慶州鷄林路14號墳(국립경주박물관 학술조사보고 제22책)』, 國立慶州博物館, p.85

청동방울 주조단계에 글자를 집어넣은 것이다. 富貴, 牛羊은 중국고대 富貴, 吉宅과 관련된 관용적 길상구 계열의 용어다. 大, 宜는吉하거나 잘되는 의미로 활용되었다.

이상이 경주 소재 고분에서 출토된 문자자료들이다. 소재를 보면 금,은,청동,동의 금속제품과 칠기제품으로 되어 있다. 글자는 칠기에는 착묵에 의해, 금속기에는 주조나 침각에 의해 글자를 집어넣었다. 그릇의 경우는 바리 바닥이나 뚜껑 안쪽에 글자가 있다. 칠기의 글자나 금속기 중에 글자도 주조된 것들은 글자를 넣은 것이 제품을 만든 단계에서 함께 이뤄진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호우총의 ‘을묘’명 청동호, 황오동 16호분의 ‘대부’명 청동합과 ‘대부귀’명 청동령, 황오동 17호분 ‘고덕흥’명 청동초두, 황남대총 남분의 ‘왕궁’명 조문박국경과 천마총의 ‘동’주서 칠기, 황남대총 남분의 ‘마랑’주서 칠기가 그것이다.

서봉총 ‘연수’명 은합, 황남대총 북분 ‘부인대’명 은대금구와 ‘부’·‘백’명 은관식, 계림로 14호분 명문 청동합은 침이나 작은 뽕족한 송곳이나 조각도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은판과 같이 얇은 대상물 혹은 두터운 청동기에 새겨 넣은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제작이나 주조가 모두 끝난 뒤에 글자를 넣는 행위가 이뤄진 것이다. 즉 제작과 글자 보입의 사이에 시차가 있을 수 있다.

이 가운데 호우총의 호우, 서봉총 은합, 황남동17호분의 초두, 황남대총 북분과 남분의 칠기, 천마총의 칠기은 모두 고구려로부터의 수입품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글자 역시 신라에 들어오기 이전에 쓰여진 것이다. 즉 고분 소재 문자유물의 상당량이 고구려의 것 혹은 고구려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라는 점이다.

3. 中古期 新羅 文字資料로 보는 ‘尔斯智王’

이제 금관총 대도의 ‘尔斯智王’에 대해, 신라 중고기 초기 석문 즉 비석과 각석을 소재로 해서 고찰해보자. 신라 중고기 당대 자료에서 王을 신라 왕호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포1 “𐏃𐏃𐏃折盧葛𐏃田”(포항 중성리비, 501년 : ※ □의 관독은 추정)

냉1 “喙/𐏃夫智/王·乃智/王”

냉2 “沙喙/至都盧/葛文王”

냉3 “此七王等”(이상 영일 냉수리비, 503년)

봉1 “喙部/另卽知/寐錦王”

봉2 “沙喙部/徙夫智/葛文王”(이상 봉평비, 524년)

천1 “另卽知/太王”

천2 “沙喙部/徙夫智/葛𐏃王”

천3 “徙夫智/王”(이상 울주 천전리 서석 追銘=己未年銘, 537년)

갈문왕, 매금왕, 왕, 태왕의 4가지 칭호가 6세기 초엽에 보인다. 봉평비에서는 매금왕과 갈문왕이 같이 보인다. 무즉지 매금왕은 삼국사기의 범흥왕을 일컬으며 사부지 갈문왕은 삼국사기의 입종 갈문왕을 일컫는다. 울주 천전리서석에서 보면 매금왕은 태왕으로 불리기도 한 것 같다. 문제는 냉3의 ‘此七王等’이다. 이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들은 갈문왕을 비롯한 6부의 최고지배자 집단으로 ‘共論(함께 논의)’하여 ‘敎’를 내리고 있다. 그런데 ‘此七王等’의 해석에 따라 王의 범주가 달라진다. ‘此七’이 공론집단 7인을 지칭한다고 보는 데는 이론이 없지만, ‘王’에 대해서는

견해1. 왕은 葛文王만을 지칭한다³⁷⁾

견해2. 이들 7명 모두를 지칭한다³⁸⁾

로 크게 두 가지 해석으로 갈린다.

아울러 ‘喙/新夫智/王·乃智/王’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前世’ 즉 이전 세대의 왕 즉 소지왕과 눌지왕을 가리킨다고 보아 무리가 없다.³⁹⁾ 삼국사기대로라면 이 2왕의 당대 이름은 무슨 마립간이어야 하는데, 냉수리비에서는 소급하여 전세대의 ‘마립간’이란 지칭도 ‘王’으로 소급 적용하여 지칭한 것이 된다. 이상에서 보면 중고기 초기 당대자료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503년의 냉수리비에 의하면, ‘王’으로 지칭된 범주는 다음과 같다.

(가) 매금왕, (나) 갈문왕

(다) 6부의 고위자

(다)를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부/이름/관등)

沙喙/新德智/阿干支⑥·子宿智/居伐干支⑨

喙/尔夫智/壹干支②·只心智/居伐干支⑨

本彼/頭腹智/干支

斯彼/暮新智/干支

※ /는 구성구분, 원 속 숫자는 정형화된 경위의 관등

共論에 참가 범위는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탁부와 사탁부 외에 본피와 사피(=翳比)부가 참

37) 이와 관련된 연구사 정리는 김태식, 2004, 『냉수리비로 구축한 신라 ‘Seven Kings論’』 『신라사학보』 창간호

38) 주보돈, 2002, 『영일냉수리신라비에 대한 기초적 검토』 『금석문과 신라사』, 신서원(2002.9) 등을 비롯하여 학계의 정설이다.

39) 주보돈, 앞의 글(주38), pp.68-69

석하고 있다. 본피와 사피부에서 각각 1인씩 참석하고 있는데 이들은 각 부의 長이다. 탁부와 사탁부는 각각 2인씩 참석하고 있다. 본래는 탁부의 최고위자인 매금왕도 참석해야 했지만, 당시에는 有故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참석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즉 공론의 참석자는, 매금왕과 갈문왕, 그리고 주류 부인 탁부와 사탁부의 고위자 각 2인, 비주류 부의 부장 각 1인 등이었다. 즉 냉수리비에서 일컫는 ‘王’은

비주류부의 長(각 1인) 그리고 주류부의 고위자(각 3인)

의 범주가 된다. 물론, 견해1의 입장에서는 이들 (다)집단은 ‘王’의 범주에는 넣을 수 없다. 금관총 대도 명문에서의 ‘尔斯智王’은

尔斯智(이름)+王

의 구성으로, 냉1‘喙/𪛗夫智/王・乃智/王’과 천3‘徙夫智/王’(울주천전리 서석 추명, 537년)의 용법과 同類다. 냉1의 王은 소지왕, 눌지왕으로 간주되고 있고, 천3의 사부지는 봉2의 인물과 동일인이다. 고로 매금왕이나 갈문왕을 그냥 ‘王’으로 표기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고로 문제의 ‘尔斯智王’은

1. 매금왕, 2. 갈문왕

일 수 있다. 다음에 ‘此七王等’에 대한 해석에서 견해2를 수용한다면

3. (1) 주류부인 탁부와 사탁부의 고위자(대략 3인전후)
(2) 비주류부의 部長(각 부 1인을 넘지 않음)

의 범주로 한정할 수 있다.

4. 智證麻立干 3년의 王號 採用과 ‘尔斯智王’

지증마립간은 64세의 고령에 즉위하였다. 즉위 후 이어지는 다음 기사는 주목된다.

왕3년(502) 춘3월, 왕이 명령하여 旬葬을 금하였다. 前王이 薨去하였을 때, 남녀 각 5인을 순장시켰다. 이때부터 순장을 금지하게 된 것이다.

왕4년(503) 동10월, 국호와 왕호를 정하였다. 종래 국호는 斯盧, 斯羅, 新羅가 혼용되었었는데 新羅라 공식칭호를 정한 것이었다. 또 왕호 역시 方言으로 일컬었을 뿐, 정식으로 王호를 채택한 적이 없었는데, 정식으로 新羅國王의 칭호를 정한 것이었다.⁴⁰⁾

즉 이는 첫째, 斯羅나 斯盧나 新羅가 혼용되던 국명을 ‘新羅’를 공식적 용어로 확정, 둘째, 기왕에 쓰던 토착적 왕호에 대신하여 ‘王’호를 정식으로 채용한 것이었다. 그보다 한해 앞서, 지증마립간 3년(502) 3월에는 旬葬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국왕의 상장례와 관련 있는 조처로 보인다. 즉 전왕까지만 순장을 허용하고 앞으로는 금지할 것을 선포한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마립간시대의 종언을 고하면서 중고기 지배체제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조치이다.⁴¹⁾ 즉위기에 이은 분주에서 김부식은 신라의 방언 왕호가 〈居西干-次次雄-尼師今-麻立干〉으로 일컬어져 왔다고 전하고 있다. 실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도 지증까지는 麻立干으로, 法興부터는 王으로 표기되고 있다. 즉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마립간 4년조의 기사에 유의한다면, 지증왕 4년부터 왕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개칭한 것이 된다. 실제 5세기 고구려비문에서는 신라의 왕을 ‘麻錦’이라고만 일컬었지 王을 붙이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매금을 위의 거서간 등의 왕호와 대조시키는 데 있어서, 이사금설과 마립간설이 병존하는데⁴²⁾, 시기적 선후관계를 감안하면 매금=마립간이 타당하다.

앞서 지증마립간 3년조의 기사는 그 의미를 대수롭지 않게 볼 수도 있겠지만, 중고기 신라비문에서 ‘王’의 표기가 503년을 전후한 시기 무렵부터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면, 그 비중이 결코 적지 않다. 한편 新羅國王 創定의 기록을 냉수리비 건립 다음달에 副王 갈문왕이었던 지증이 正王에 취임한 것을 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⁴³⁾

고구려적 천하관에서는 王일 수 있는 것은 오직 고구려뿐이었다.⁴⁴⁾ 5세기대 고구려의 종속 아래, 정치가 좌우되던 상황에서 신라가 王을 칭하기란 현실적으로도 어려웠을 것이다. 국호와 왕호의 확정이야말로, 5세기에 이어내려온 고구려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脫高句麗 자립의 선언으로도 보인다.

이렇게 보면, 〈尔斯智王〉이라는 표기는, 王호를 공식적으로 칭하기 이전에 이미 麻立干을 王으로 호칭하였을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랬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王을 지칭한 503년에서 크게 벗어나는 시기를 설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王호는 상한은 503년을 전후한 시기 즉 6세기 초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40) 각각 삼국사기 지증마립간기의 기사

41) 이희준, 2011, 『황남대총 남분 내물왕설의 제기 배경과 개요 그리고 의의』 『황남대총』 국립중앙박물관, p.204

42) 기존의 양설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김병곤 2003, 『신라왕호 ‘매금’의 신라계 사용례 분석』 『경주사학』22, p.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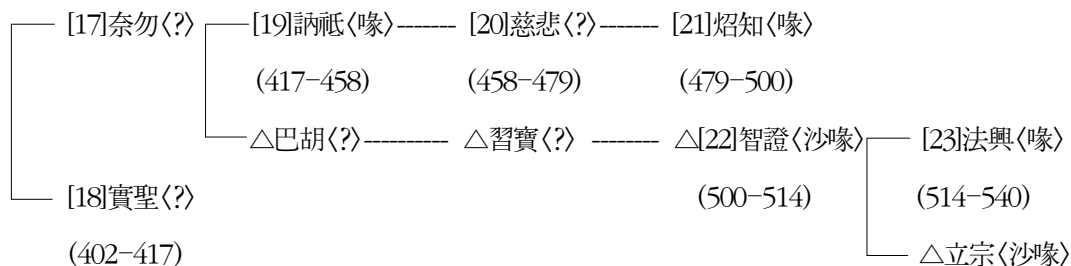
43) 武田幸男, 1991, 『新羅六部とその展開』 『朝鮮史研究會論文集』28, p.195

44) 420년에 건립한 광개토왕비에서 太王, 王은 모두 고구려왕을 가리킨다. 백제왕은 殘主로, 신라왕은 麻錦이라 지칭하였다. 5세기 대에 건립한 중원고구려비에서는 고구려왕은 大王, 신라왕은 麻錦이라 칭하였다.

5. 麻立干期 王室系譜 속 ‘尒斯智王’

대도에 명문이 있는 경우는 국내의 것으로는 유명한 칠지도가 있는데 이것은 백제의 것으로 왜에 보내진 것이다. 명문은 刀身에 있다. 명기된 백제 왕세자나 왜왕은 각기 주고 받은 인물들이다. 또 창녕 교동고분 출토 상감대도 역시 刀身에 글자가 있고 판독이 갈리고 있는데 ‘上部’는 확실히 읽을 수 있다.⁴⁵⁾ 관련 인물은 대도의 제작과 관련된 인물일 것이다. 적어도 피장자는 아닐 듯하다. 상기 양자는 도검 제작 과정에서 집어넣어진 것임에 틀림없다. 금관총 대도의 명문 ‘尒斯智王’등은 자루 금속부분에 새겨져 있어 기존의 것들과는 양상이 다르다.

대도에 새겨진 ‘尒斯智王’은 제작자 혹은 수령자(소유자)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황남대총 남분 출토 ‘夫人帶’명 대금구 은장식과 동류의 서식, 동류의 針刻으로 구성되어 있다. ‘夫人’이 대금구의 주인인 것과 같은 논법에서 ‘尒斯智王’도 대도의 주인이라 봐서 무방할 것이다. 칼 자체는 사여되고 수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尒斯智王’이 금관총의 주인공인지 아닌지는 단언할 수 없다. 양쪽의 가능성이 모두 공존한다 할 수 있겠다. 이를 전제로 해서, ‘尒斯智王’이 누구인지 더듬어 보자. 마립간기의 왕 즉 매금왕과 갈문왕의 왕실계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숫자]는 매금왕, 숫자는 王代, △는 갈문왕, < >는 部名, (-)는 재위년수⁴⁶⁾

사실 삼국사기에서 이르는 新羅 ‘王’ 즉 寐錦王을 이른바 正王으로 하고 葛文王을 副王으로 하는 독특한 二重王權구조를 전제로 하면서, 특정 部와의 대응관계를 보이는 듯 하다.⁴⁷⁾ 이러한 대응관계에서 고대 신라에서 원칙적으로 매금왕이 탁부, 갈문왕이 사탁부에 속한다고 보아 탁부, 사탁부를 왕권의 2중성에 대응시키는 견해도 있다.⁴⁸⁾

503년에 국호와 왕호를 책정한 것은 (22대)智證(至都盧,只折盧)이다. 그는 前王인 (21대)炤知

45) 이영식, 1993, 「창녕교동11호분출토환두대도명」 『송갑호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pp.603-604

46) 이 표는 武田幸男의 표(주 43의 논문)를 토대로 하여, 習寶의 父를 巴胡로 추정한 윤진석의 견해(2014, 『5-6세기 신라의 정치운영과 갈문왕』, 계명대박사논문)를 수용하여 수정한 것이다.

47) 武田幸男, 1991, 앞의 글(주 43), p.195

48) 문경현, 1987, 「울주신라서석명기의 신검토」 『경북사학』 10, pp.41-42, 1993, 「상중고기 신라6부의 사적 고찰」 『국사관 논총』 45, pp.158-161, : 윤진석(앞 주46의 논문)도 문경현의 견해를 부연하였다.

(毗處)때부터 副王인 갈문왕의 지위에 있었는데, 前王이 후사가 없이⁴⁹⁾ 死去하자 곧바로 즉위할 後王의 推舉가 이뤄지지 못하고 그 때문에 正王인 매금왕이 없는 異常사태가 계속되었고 그 사이 智證이 이를 실질적으로 代行하였다.⁵⁰⁾ 正王의 공위시대가 몇 년간 지속된 것이었다.⁵¹⁾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尔斯智王’이 지도로왕대 초기에 喪葬禮가 이뤄진 인물이라는 전제 아래서 집어보면, 시기적으로 매금왕이나 갈문왕으로는 21대 炤知가 유력하다. 단 炤知는 異名인 毗處(비처)에도 보이듯이 비처가 音借인 것으로 보이므로 炤知는 訓借인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尔斯智’는 音借에 틀림없다. ‘智’는 물론이거니와 ‘尔’·‘斯’는 이미 중고기 신라 비문과 목간 등에서 音借表記의 容字로서 빈번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로 양자간에 적어도 음운적으로는 공통성을 찾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音韻에서 본다면, 習寶의 習이 ‘尔斯智’의 ‘斯’와 공통될 정도다. 적어도 매금왕과 갈문왕의 족보에서는 ‘尔斯智’를 찾기 어렵다. 아마도, 지도로왕의 앞 세대로서 5세기말이나 6세기 초에 죽은 고위 귀족, 앞서 지적한 3장의(다)부류, 즉 매금왕과 갈문왕이 아닌 탁부나 사탁부의 고위자, 혹은 비주류부의 부장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일 가능성을 제기해두는 데서 그칠 수 밖에 없다. 경주고분 출토 장식환두대는 천마총, 식리총, 호우총의 용봉문계를 제외하면 모두 삼(루) 혹은 삼엽문 환두대도다. 삼(루)환두대도는 금관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⁵²⁾

박광열에 따르면 환두대도는 ‘용작환→삼환→삼엽환→소환→대도’의 순으로 계층성을 보여, 삼(루)환두대도는 상층에 위치한다.⁵³⁾ 위의 추정과 그다지 어긋나 보이지 않는다.

맺음말을 대신하여 - 十(X)의 의미-

마지막으로 이사지왕과 함께 새겨진 금관총 대도의 十에 대해 一言을 더하고자 한다. 금관총 대도2는 대도1의 축약형이라 할 수 있다. 축약의 이유는 글자를 넣은 공간의 협소, 같은 칼 안에서의 중복에 따른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주인공의 이름을 1자로 생략함에 ‘王’이라 하지 않고, 머리글자인 ‘尔’를 가져왔다.⁵⁴⁾ 위 3종 5건의 명문은 十을 내포하고 있다는 데 공통점을 갖는다. 내용구성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9) 기실 奈乙출신의 어린 미모의 여성과의 사이에 아들이 있었지만, 그는 지방출신이어서 後嗣로 공인받지 못했다. 삼국사기 지증마립간기 즉위조에서 ‘前王에 아들이 없었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 후사를 이을 자식을 가진 아들이 없었다는 의미에 다름 아닐 뿐이다.

50) 武田幸男, 1991, 앞의 글(주 40), p.195

51) 주보돈, 2002, 『영일내수리신라비에 대한 기초적 검토』 『금석문과 신라사』, 지식산업사

52) 早乙女雅博, 2000, 『第8章 新羅(2)三壘環頭大刀』 『朝鮮半島の考古學』 同成社, pp.225-227

53) 구자봉, 2002, 『삼국시대의 장식대도 - 환두대도를 중심으로-』 『한국의 칼 문화』, 육군사관학교

54) 황남대총 남분의 은제품에서 ‘夫’를 ‘夫人’의 약자로 본다면, 생략법의 유사례가 된다.

시 기	인 물	물 품	숫 자	자 료
乙卯年	國置上廣開土地好太王	壺杆	+	호우총 광개토왕 호우
	夫人	帶	+	황남대총 남분 부인대
	尔斯智王		+	금관총 이사지왕 대도1
	尔		+	금관총 이사지왕 대도2

호우총 광개토왕 호우는 〈시기+인물+물품+十〉의 서식으로 구성된다. 호우의 乙卯年은 제작 시기를 가리킨다. 이에 비해, 황남대총 남분 부인대는 시기가 생략되었고, 금관총 이사지왕 대도는 물품명까지 생략되었다. 물품 위에 명문이 鑄造되거나 針刻되는 것이어서 물품명은 생략될 수도 있던 것 같다. 호우총 광개토왕 호우와 서식의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서봉총 은합명이다.

시 기	인 물	물 품	숫 자	자 료
乙卯年	國置上廣開土地好太王	壺杆	+	호우총 광개토왕 호우
延壽元年太歲在辛三月 ⁵⁵⁾	太王	敬造合杆	三斤	서봉총은합바리
延壽元年太歲在卯三月中	太王	敬造合杆	用三斤六兩	서봉총은합뚜껑

광개토왕호우가 연수명은합과 달리 기년을 표시함에 간지만 사용하고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月 등을 넣지 않은 것은 글자를 넣을 공간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壺杆나 습杆는 각각 해당 용기의 당대 이름이다. 연수명 은합에서 숫자는 斤, 兩이 摘記되고 있어 용량 즉 부피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3근 6량이란 습杆를 만들 때 들어간 금속 즉 은의 양을 나타내거나⁵⁶⁾, 또는 그릇의 용량일 가능성이 있다.⁵⁷⁾ 그렇다면 광개토왕 호우의 十도 그러한 것인가. 기왕에 광개토왕 호우의 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1. 별 의미가 없으며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⁵⁸⁾
2. 什器(집기)의 什자의 약자⁵⁹⁾
3. 불교사상의 圓滿, 끝없음을 나타냄⁶⁰⁾
4. 終止符⁶¹⁾

55) 이 부분은 파손되었지만, 원형인 뚜껑을 참조하면 ‘中’으로 복원할 수 있겠다.

56) 신라 종이나 반자 등 주조제작된 청동제품에는 물품의 무게나 제작에 사용된 금속의 양을 명기하는 경우가 있다.

57) 낙랑칠기 가운데 ‘容一升’(建武5년 杯)과 같이 용량을 나타내는 용례가 보인다. 낙랑칠기의 경우는 <기년+제작처+그릇이름+용량>의 서식을 갖는다.

58) 국립박물관, 1948, 『호우총과 은령총(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1책)』

59) 金元龍, 1977, 『新羅壺杆塚出土の被葬者は誰であるか』, 『歴史讀本』 1977-9

60) 金載滿, 1956, 『慶州壺杆塚出土の靑銅壺の‘十’について』, 『考古學雜誌』 42-1

5. 吉祥句⁶²⁾
6. 10개⁶³⁾
7. 중량⁶⁴⁾

1은 공간상의 공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인데, 공백을 메우는데 왜 하필 十이란 글자를 썼는가에 대한 설명이 곤란하다. 2의 什의 약자설 역시 왜 그 곳에 什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어 취하기 힘들다. 4의 종지부설은 十이 마지막에 온다는 점을 간취한 것은 좋지만, 十이 종지부로 쓰인 사례나 배경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논할 수 있는 남은 것은 사상적 의미에서 파악한 3과 5, 실용적 의미에서 파악한 6이나 7이다. 그러나 어느 것도 결정적인 우위를 갖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十뒤에는 斤과 같은 수량사가 붙지 않는다. 이것이 새길 공간이 협소하여 수량사를 생략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수량사가 표기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하면, 7보다는 6의 추론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⁶⁵⁾ 그릇의 번호라고 한다면 十이외에 다른 번호, 적어도 十이하의 다른 수가 찍힌 용기가 어딘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아직 발견례가 없다. 여러 수 가운데 공교롭게 十만 남은 것 역시 지나치게 필연적이라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사상적인 면에서 의미를 부여한 5와 3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어 보인다. 단지, 5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길상구의 용례를 벗어나며, 글자 역시 1자라는 점에서 확신을 주기에는 저어된다. 5 역시 불교의 원만, 원융 사상이 왜 그 대목에서 사용되었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좀 더 고찰이 필요하다.

그런데, 호우와 은합은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것이긴 하지만, 고구려 제품이다. 이와 관련해서 같은 서식을 갖는 것이 2005년 보고된 중국 吉林省 集安市 禹山墓區 太王陵 주변에서 수습된 好太王 銅鈴이다.⁶⁶⁾ 방울 곁면에 시계바늘방향으로 3자씩 4행을 새겨 넣었다.

辛卯年 好大王 所⁶⁷⁾造鈴 九十六

신묘년, 호태왕, 만든 [바의] 방울, 96

61) 古江亮, 1956, 『隅田八番宮所藏畫像鏡私考』, 『日本歴史考古學論集』

62) 駒井和愛, 1970, 『隅田八番宮所藏畫像鏡考』, 『東方學』40

63) 末松保和, 1954, 『近時發見の新羅銘文』, 『新羅史の諸問題』

64) 이주현·이용현·유혜선, 2006 『호우총 은령총의 출토유물-토기와 청동용기를 중심으로-』, 『호우총 은령총 발굴 60주년기념심포지엄』(국립중앙박물관)

65) 기실 필자가 전고에서 중량으로 파악한 것은 연수명 은합과의 서식비교, 신라의 중 명문에 보이는 사례에서 판단이었다.

6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吉林省博物館, 2010, 『集安出土高句麗文物集粹』, 科學出版社, p.155

67) 중국의 발굴보고자들은 이를 巫로 읽었으며, 武田幸男은 이것을 所로 읽었다. 그에 앞서 조법종(2004, 『중국 집안박물관 호태왕 명문 방울』, 『한국고대사연구』 33, p.375)도 所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는 있다. 본고에 서는 所로 확정한다.

干支(時)	王名	容器名	數
辛卯年	好大王	所造鈴	九十六
延壽元年,太歲在卯,三月中	太王	敬造合杆	用三斤六兩
乙卯年	國置上廣開土地好太王	壺杆	十

※ 용기명 란에서 굵은 자는 용기명, 그 앞에 관칭된 가는 자는 제작행위를 명기

상기 3건은 서식이 동일하다. 또 3점 모두 陵墓喪葬禮에 활용된 것이라는 점에서, 고구려 국가의 儀禮나 법령 등 규정에 입각한 書式이라 할 수 있다. 호태왕청동령의 수자 九十六에 관해서는 96개⁶⁸⁾ 혹은 96번(호)⁶⁹⁾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 해석을 적용하면, 광개토왕 호우의 十도 제작된 개수 혹은 번호가 된다. 금관총 대도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금관총 대도1,2의 十도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다면, 尔斯智王의 것으로 제작된 혹은 尔斯智王이 제작한(실제로는 제작을 명한) 10개의 칼 또는 칼중 10번째의 것이 된다. 그런데, 금관총과 천마총 유물 중에는 十자(혹 X모양)의 침각된 사례가 수 건 목격된다.⁷⁰⁾ 이에 이를 十 즉 숫자로 선뜻 확정하기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𠂇나 ‘#’, 十은 招福除魔기호로 알려져 있다.⁷¹⁾ 즉 十은 도교적인 주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종의 除魔 및 祭儀 기호가 신라토기에서 지적된 바 있다.⁷²⁾ 더 나아가 황남대총 남분 조익형은관식의 ‘百’, ‘十(X)’과 함께 ‘夫’는 ‘奉’의 이체자, 간략화한 글자일 수 있다.⁷³⁾ 즉 조익형관식에서는 의례와 관련된 夫(=奉)와 함께 ‘十(X)’가 쓰이고 있다는 점이 시사성있다. 황남대총 남분이 5세기 3/4분기, 금관총이 5세기 4/4분기이므로 5세기 4/4분기 금관총에서 신라고위층의 의례에서 주술적 기호 ‘十(X)’가 확인되는 것이며, 이는 앞서 3/4분기 황남대총에서도, 또 뒤의 6세기 1/4분기의 천마총에서도 사용되고 있었다. 즉 금관총 명문대도는 <이사지왕>을 대상으로 한 주술적 의례를 위해 제작, 사용된 것이었다.

68) 조법종은 所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해석에서는 중국측의 공식견해를 존중하여 巫로 해두고, ‘신묘년에 호태왕의 巫가 방울 96개를 만들었다’고 해석하였다.(앞 주(61)의 조법종 논문, p.379.)

69) 武田은 96번, 96번째의 방울로 해석하였다.(앞 주(40)의 武田논문)

70) 금관총의 은제고리, 철제품에 十(혹 X)이 보인다. 또 천마총의 은 대금구 부속품에도 十(혹 X)이 보인다.

71) #, 十, ☆ 등은 除魔, 除災에 시 기원하여 延命, 招福, 祈願成就 등을 의도하는 것으로 道敎的呪術性이 높은 신앙이다. : 平川南, 2000, 『墨書土器の研究』, pp.300-304, 新井秀規 『神に捧げられた土器』 『文字と古代日本-信託と文字』 吉川弘文館

72) 시대는 다르지만 ‘夫’는 경북 상주 청리고분 출토 단각고배(주(19)의 책, p16), 경주 화곡리 요지 출토 토기 등에서 보인다. 이동주, 2013, 『경주화곡출토 在銘토기의 성격』 『목간과 문자』 10, pp, 226-227. 김재홍, 2014, 『신라왕경 출토 명문토기의 생산과 유통』 『한국고대사연구』 73, pp.136-137

73) 고대일본의 사례를 참조하면, 夫등은 奉과 관련된다. :平川南, 2000, 『墨書・刻書 ‘夫’의檢討』 『墨書土器の研究』

마지막으로 호우총의 명문 호우와의 관련성에 대해 첨언한다. 호우총의 十은 그것이 10이란 實數인지 혹은 주술적 사상적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둘 다 가능성이 있어 어느 한쪽으로 판단할 결정적 자료는 없다. 그러나 호우 자체가 고구려에서 王室의 喪葬禮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呪術的·儀禮的 도구로서였고, 아울러 신라에 유입되어서도 그것은 신라 왕실 혹은 고위층의 喪葬禮에 활용되었다는 것은 신라 사회에서 그러한 용도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호우총의 연대와 무관하게 415년에 제작된 호우는 신라에 들어와 전세된 것이기 때문에, 5세기 후반 신라 고위사회에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여기서 호우 자체의 儀禮性과 함께 文面의 ‘#’나 ‘+’ 혹은 ‘X’도 영향을 끼쳤을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⁷⁴⁾

이에 〈주인공 + 十(X)〉의 서식은 광개토왕 호우의 유입을 통해 신라 사회에 수용되거나 강화되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⁷⁵⁾ 그것이 초기에는 신라왕실과 같은 상층류의 상장례에 활용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 넓은 범위의 신라 사회로 확산되었다고 전망할 수 있다. 신라 최고위 귀족의 상장례 의식 속에서 고구려류의 일단을 문자에서도 볼 수 있다.⁷⁶⁾

※ [謝辭] 홍보식(부산박물관), 김대환(중앙박물관), 신용비, 윤온식(이상 경주박물관), 함순섭, 이현태(이상 대구박물관), 葛偈容(鄭州大學) 諸位께 교시 및 자료제공을 받았다.
특기하여 감사의 예를 올린다.

74) 호우의 마지막 자가 원래 ‘十’이란 實數를 나타낸 것이었다면, 신라에서 그것이 변용되어 수용된 것이 되며, 호우의 그것이 원래 주술적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면, 그대로 신라에 직수용된 것이 된다.

75) 혹여 향후 5세기 이전에 신라지역에서 十(X)의 사례 발견이 이뤄진다면 하더라도, 즉 호우에 앞서 제마기호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라상류사회에서 그것이 주술적 의례로 활용된 계기로서 역시 광개토왕과 그 호우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76) 6세기 이후 신라 중앙과 지방에서 발견되는 토기의 주술적 기호 중 十(X)의 연원도 설명할 전망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관련 자료의 구비가 이뤄진다면, 고구려에서 신라중앙으로, 신라중앙에서 신라지방으로의 동류의 문화전파의 흐름을 그릴 수도 있다.

‘𡇗斯智王’銘 대도와 금관총의 주인공

김 재 홍

(국민대학교)

‘尔斯智王’ 銘 대도와 금관총의 주인공

김 재 홍 (국민대학교)

목 차

머 리 말

I. 銘文大刀와 명문

1. 명문대도의 분석

2. 大刀銘文의 분석

II. 尔斯智王, 명문대도, 金冠塚의 피장자

1. 이사지왕과 명문대도

2. 금관총의 피장자와 이사지왕

맺 음 말

머 리 말

신라 적석목곽묘는 다른 지역에는 잘 보이지 않는 독특한 형태의 무덤으로서 麻立干 시기를 대표하는 무덤양식이다. 이중에서 금관총은 1921년 주택 공사 중 신라 무덤에서 최초로 금관이 발견되어 세상의 주목을 받았으나 유물 수습 후 메모와 기억을 바탕으로 유물 정리와 보고서 작업이¹⁾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금관총 조사 이후 92년이 지난 2013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의해 금관총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금관총 고리자루큰칼(環頭大刀)을 보존처리하는 과정에서 명문이 확인되어 금관총, 더 나아가 신라 고분의 피장자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경주 금관총에서 출토된 환두대도에서 ‘尔斯智王’이라는 명문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신라무덤에서 출토된 최초의 王號에 해당한다.²⁾ 명문은 칼집의 금속제 장식에 線刻되었는데, 마구리 두겹(鞘尻裝飾)의 앞뒷면에 ‘尔斯智王’·‘十’, 아가리 테두리(鞘口裝飾)에 ‘尔’가 새겨져 있다. 또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된 금관총 출토 환두대도에서도 칼집의 마구리 두겹에 ‘尔’·‘十’, 아가리 테두리에 ‘八’이라는 명문이 확인되었다. ‘尔斯智王’이라는 왕명은 『三國史記』, 『三國遺事』

1) 浜田耕作・梅原末治, 1924 『慶州金冠塚と其遺宝』, 古蹟調査特別報告3, 本文上冊, 朝鮮總督府; 浜田青陵, 1932 『慶州の金冠塚』, 慶州古蹟保存会.

2) 국립중앙박물관, 2013.7.3 「신라 금관총 출토 大刀에서 ‘尔斯智王’ 명문 확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신라 금석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는 ‘𑖦𑖫𑖼𑖫𑖼’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보도자료에서는 ‘𑖦𑖫𑖼𑖫𑖼’은 금관총의 주인공으로서, 麻立干(내물왕~지증왕) 중 한 사람이거나 포항 냉수리신라비(503년)에 보이는 ‘此七王等’과 같은 기록을 통해 왕(마립간)이 아닌 사람도 왕으로 불린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대체적인 논지는 금관총의 피장자=𑖦𑖫𑖼𑖫𑖼=명문대도의 소유자를 동일한 인물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후 여러 논의에서도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𑖦𑖫𑖼𑖫𑖼’명 환두대도가 발견된 지점은 피장자의 신체부위가 있는 목관이 아니라 부장궤에서 발견되어 환두대도와 피장자를 직접적인 관련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이사지왕이 명문 환두대도의 소유자라는 증거도 생산과 소비라는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단순히 금관총의 피장자=𑖦𑖫𑖼𑖫𑖼=명문대도라는 공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올바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은 먼저 보고서와 관련자료를 토대로 환두대도와 그 출토위치를 분석하고 이를 금관총에서 출토된 명문자료와 비교하여 명문대도와 이사지왕의 관계를 설정하려고 한다. 이어 명문대도의 이사지왕과 피장자와의 관련을 논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사지왕의 성격에 대한 문제에도 접근하여 마립간 시기의 사회상을 밝히는데 일조를 하였으면 한다.

I. 銘文大刀와 명문

1. 명문대도의 분석

명문대도의 나오는 ‘𑖦𑖫𑖼𑖫𑖼’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문이 새겨진 자료인 환두대도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금관총 보고서에 실린 유물목록에는 刀劍 항목에 環頭大刀 3자루, 環頭木刀 5자루, 대도편 수자루, 도자편 수자루, 環刀柄頭 및 장신구 약 14개체, 圭頭大刀 柄頭 2점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규두대도는 사진상으로 보아 圓頭大刀와 鬼文大刀의 병두로 판단된다. 이것은 금관총에서 출토된 도검의 총량이라기 보다는 수습 후에 정리된 도검의 수량이며, 보고서에는 사진과 일부 도면이 실려 있다. 형태가 거의 완전한 환두대도 3자루 중에서³⁾ (1) 金銅製 환두대도는 小形木刀가 붙어 있는 것으로 길이 2자 8치(84.4cm)이며, 부장궤에서 출토되었다. 이것은 거의 완형의 상태로 자루 끝이 동쪽을 향해 남벽 쪽 가까이에서 출토되었다. (2) 金銀裝 환두대도는 출토 위치가 불분명하지만 주로 대도는 목관 주위를 서, 남, 북으로 둘러싸듯이 출토되고 있어 목관 주위로 추정된다. 보고서 기술과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목관 바깥 북측에서 출토되었을 것으로⁴⁾ 추정된다. 다른 환두대도가 은·금동제인 것에 비해 칼집

3) 이하의 번호 (1)(2)(3)과 도판번호는 보고서(濱田耕作・梅原末治, 1924 앞 책)에 실린 사진의 일련번호이다.

자루는 銀製이고 環頭・칼집 상단・하단은 金製이므로 다른 것에 비해 중요한 자료이다. 만약 이것이 목관 바깥 서측에서 출토되었다면, 기꽃이(蛇行狀鐵器)와 함께 같은 위치에서 발견된 예이다. (3) 金銅製 환두대도는 소도가 붙은 것으로 길이 2자 4치(72.7cm)이며, 목관 바깥 남측에서 자루 끝이 서쪽을 향하여 출토되었다. 도면상으로는 기꽃이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대도의 손잡이 부분과 칼집 아랫부분이 결실되어 있고 소도는 환두부만 남아 있다. (2), (3) 환두대도는 목관 바깥 남・북측, 즉 목관 바깥 좌우에 부장되었던 것이다. (1), (3) 환두대도는 실측도가 보고서 도판 제81.에 실려 있다. 환두목도 5자루도 자루고리의 형태가 三累이며, 보고서 도판 83.84.에 사진과 도면이 실려 있다. 다른 환두대도 및 도자는 환두부의 형태가 삼루, 삼엽, 원두, 귀두이다. 삼루와 삼엽 환두도는 신라의 특징적인 칼이나 원두・귀두대도는 경주의 신라고분에서는 드물게 출토되는 것이다. 원두・귀두대도의 환두는 그 형태가 송산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환두장식과 유사하여 편년과 더불어 백제와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보고서의 기술상으로는 대도의 鬼頭가 목관 바깥 서측 2자(60cm)정도 상부에서 출토되었다고 하여 목관 상부에 부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銀裝大刀가 목관 서측에서 출토되었다고 하여 다른 기술이 보인다. 귀두가 은제이므로 동일한 대도를 달리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이곳에서 귀두와 은장대도가 함께 출토된 것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구슬류와 더불어 대도가 목관 상부에 부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환두대도 중에서 목관 내부에서 피장자 곁에서 착장된 채로 출토된 것으로 보고된 것은 한 자루도 없는 상태이며, 대부분 목관을 둘러싸면서 남, 북측에 놓인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환두대도와 달리 (1) 환두대도는 부장곽에서 자루 끝이 동쪽을 향해 놓여 있었다.

□ (1)금동제 소도부 삼루 환두대도(국립중앙박물관 보관품)



앞면 尔斯智王

앞면 尔

뒷면 十

□ (2)금은장 삼루 환두대도(국립경주박물관 보관품)



앞면 十

앞면 八

뒷면 尔

4) (2)금은장 환두대도의 부장 위치는 김대환선생(국립중앙박물관)의 교시에 의하며, 이 글을 빌어 감사드린다.

현재 시점에서 환두대도 3자루 중에서 2자루에서 명문이 확인되었다. 보고서 도판 제80. 금관총 발견 무기 (1)금동제 소두부 삼루 환두대도와 (2)금동제 삼루 환두대도에서 확인되었다. 모두 三累 環頭大刀이다. (1)삼루 환두대도에서 명문은 칼집 금속제 장식부에 線刻되었는데, 칼집 하단(鞘尻) 앞뒷면에 ‘尔斯智王’·‘十’, 칼집 상단(鞘口) 앞면에 ‘尔’가 새겨져 있다. 문자가 새겨진 초구와 초고는 모두 금동으로 청동에 금으로 도금한 후에 날카로운 도구로 문자를 새겨 넣었다. 칼집 상단과 하단의 부속구에 문자를 새겨 칼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부속구를 모두 결합한 이후 칼이 완성된 상태에서 문자를 새긴 것이다. 이 점은 ‘尔斯智王’이 환두대도를 생산한 제작자인지 아니면 소유자인지를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칼집을 손으로 잡았을 경우에 앞면에는 ‘尔斯智王’·‘尔’가, 가려진 뒷면에는 ‘十’가 새겨져 있다. ‘尔斯智王’은 칼집 끝에서부터 위를 향해 새겨져 있어 칼을 세워놓고 보면 문자가 거꾸로 보이며, ‘尔’는 칼집 상단의 윗부분에서 1/3 지점에 새겨져 있어 문자가 바르게 보이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문자를 읽는 방향이 다른 이유는 칼을 패용하는 방법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칼집 하단의 ‘尔斯智王’은 칼을 어깨에 메었을 경우에 읽는 방법이고 칼집 상단의 ‘尔’는 칼을 세워서 잡았을 경우에 읽기 편한 방법이다.⁵⁾ 즉 문자의 서사방향이 다른 이유는 패용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패용방식의 차이는 고구려 龍神塚 벽화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는 명문을 읽는 방향을 고려하여 명문을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명문의 서사방식이 사용자인 소유자를



고려하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뒷면에 새겨진 ‘十’은 칼집 끝장식의 아랫부분에서 위로 2/3 지점에 새겨져 아래에서 위로 읽게 새겨져 있다.

또한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 중인 금관총 출토 (2)금은장 환두대도에도 명문이 칼집 금속부에 線刻되었는데, 칼집 상단 앞면에 ‘八’, 칼집 하단 앞면에 ‘十’, 칼집 하단 뒷면에 ‘尔’이라는 명문이 확인되었다. (1)과 달리 칼집 상단과 하단이 금제로 되어 있으며, 칼 부속구를 모두 결합한 후에 문자를 새겼다. 칼집 상단 앞면의 ‘八’은 칼이 세워진 방향에서 90° 회전하여 새겨

5) 환두대도에 새겨진 문자의 방향이 대도의 패용과 관련을 가진다는 사실은 함순섭선생(국립대구박물관)의 교시에 의하며, 이 글을 빌려 감사드린다.

져 있다. 칼집 하단 앞면의 ‘十’은 칼집 끝 장식의 아랫부분에서 위로 2/3 지점에 거꾸로 새겨져 있어⁶⁾ (1)환두대도의 ‘十’과 동일한 자리에 위치한다. 칼집 하단 뒷면의 ‘尔’는 칼집 끝을 향해 새겨져 있어 칼을 세워놓고 보면 문자가 거꾸로 보이는 형상이다. ‘尔’의 문자를 읽는 방식은 칼을 메었을 때를 고려하여 새긴 것이다.

위에서 관찰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명문의 위치와 방향 등의 형태와 명문의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형태상으로 명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의 ‘尔斯智王’·‘尔’와 (2) ‘尔’는 칼을 패용하였을 경우에 읽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동일인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 쓴 것이다. 그 원리는 칼집 하단에서는 칼집 끝 방향에서 위로 문자를 새겨 칼을 메었을 경우에 보게 하는 방식이고, 칼집 상단에서는 칼을 세웠을 경우에 보이게 하는 방식이다. (1), (2) 환두대도에 보이는 ‘十’도 칼집 하단의 아래에서 위로 2/3 지점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 동일한 위치와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 위치와 새기는 글씨의 방향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十’을 새기는 일정한 원칙이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八’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자를 아래위로 새긴 것이 아니라 옆으로 90° 회전하여 새기고 있다. 일단 글씨를 새긴 방향이 위의 문자와는 다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자를 새긴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몇 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 (1)환두대도의 ‘尔斯智王’·‘十’과 (2) 환두대도의 ‘尔’·‘十’와 같이 칼집 하단의 문자나 부호로서 아래에서 위로 새기는 방법이다. ② (1) 환두대도의 ‘尔’와 같이 칼집 상단의 문자로서 위에서 아래로 문자를 새기는 방법이다. ③ (2) 환두대도 칼집 상단의 ‘八’과 같이 칼집을 세운 상태가 아니라 낀 상태인 옆으로 문자를 새기는 방법이다. 이로 보아 문자를 읽는 방법은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을 새긴 시점에 다를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도의 명문이 새겨진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도명문을 새긴 시점은 금속제 부속구의 제작단계가 아니라 부속구를 모두 결합하여 칼을 완성한 이후이다. 그리고 문자를 새긴 방향은 칼의 패용을 고려하였으므로 사용자 곧 소비를 염두에 두고 문자를 새긴 것이다. 그런데 (2) 금은장 환두대도 칼집 상단에 보이는 ‘八’은 달리 볼 수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의 추가조사에서도 금제 초구금구(칼집 상단)와 은제 초구금구에서 八과 유사한 문자가 발견되었는데, 모두 옆에서 읽는 방법으로 새겨져 있다. 이는 다른 문자와 달리 ‘八’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다른 시점에 새겨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도에 새겨진 명문의 내용은 크게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尔斯智王’·‘尔’ 등의 문자로서 구체적인 단어나 약자로 이루어져 있다. ‘尔’는 단 한 글자이지만, ‘尔斯智王’의 약칭으로 보인다. 특히 칼집과 그 부속구가 금·은으로 이루어진 (2) 금은장 환두대도에

6) ‘十’은 칼집을 세워 놓고 보았을 때에 윗부분이 길게 되어 있어 아래에서 위로 새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약칭인 ‘尔’를 새긴 것은 생산자보다는 소비자인 소유자를 고려한 문자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이사지왕이 누구인가를 고려할 경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八’, ‘十’ 등의 부호나 숫자이다. ‘八’은 숫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나, ‘十’은 그 형태에 따라 숫자, 부호, 주술구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大刀銘文의 분석

‘尔斯智王’·‘尔’ 등의 문자는 구체적인 단어로서 고유명사에 해당한다. (2) 환두대도의 ‘尔’는 (1) 환두대도의 ‘尔斯智王’과 칼집 하단의 위치에 같은 방향으로 문자를 새기고 있으므로 ‘尔斯智王’을 약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尔’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尔斯智王’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尔는 爾의 약자로서 금석문에 자주 등장하는 문자로서 포항冷水里新羅碑(503년)의 ‘喙/尔夫智/壹干支’와 울진鳳坪里新羅碑(524년)의 ‘悉尔智/奈麻’에도 보이는 문자이다. 斯는 신라 금석문에 보이는 인명에 많이 사용되는 문자이다. 포항中城里新羅碑(501년)의 ‘斯德智’(斯는 초서), 냉수리비의 ‘斯夫智王’(斯는 초서)·‘斯德智/阿干支’의 예가 있다. ‘智’는 □가 ▽의 형태를 띠고 日이 크고 오른편으로 치우쳐 있는 전형적인 신라 금석문에 보이는

〈봉평리비의 인명표기〉

職 名	出身地名	人 名	官 等 名
悉支 軍主	喙	尔 夫 智	奈 麻
悉支 道使	(")	卒 次	小舍帝智
居伐牟羅 道使	(")	烏 婁 次	小舍帝智
阿大兮村 使人	(阿大兮村)	奈 尔 利	居 □ 尺
葛尸條村 使人	(葛尸條村)	奈 尔 利	
男弥只村 使人	(男弥只村)	翼 □	
	(")	於卽斤利	

※ ()는 추정한 것임.

서체이다. 智는 신라 금석문의 인명의 끝에 붙이는 어미로서 존칭에 해당한다. 지는 異斯夫智나 居柒夫智의 예로 보아 夫·夫智와 동일한 존칭어미로 사용되었다. 지는 신라 금석문에서 국왕을 포함한 상위계층의 남성에서 주로 사용한 존칭어미이다. 다음 아래계층에는 次, 그 아래의 신분이나 계층은 利를 존칭어미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예가 봉평리비에 보이는 인명의 계층성이다(표). 다음으로 王은 지에 비해

작게 새겨져 있다. 그러나 금석문에서는 획수가 많은 글자는 크게, 획수가 작은 글자는 작게 쓰는 경향(호우총 출토 호우의 예)이 많으므로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尔斯智王’은 尔斯(이름)/智(존칭)/王(직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왕의 이름이 이사지이며, 후대와 같이 묘호를 쓰기 전에 신라에서는 왕의 이름을 왕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냉수리비의 斯夫智王·乃智王(눌지왕), 봉평리비의 牟即智寐錦王(범흥왕)이 동일한 예에 해당한다.

그런데 금관총의 명문대도에 나오는 이사지왕이라는 명문은 출신지가 생략되어 있다. 중고기 신라의 비문에 나타나는 인명에 대한 표기에도 일정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官職名-出身地名-人名-官等名の 순서가 지켜졌다. 앞서 기록한 인물과 같은 직명이나 출신지명일 경우에 되풀이하하여 기록하지 않았다. 관등은 높은 순서대로 기록하였고 중복되더라도 생략하지 않았다. 국왕의 경우에는 出身地名-人名-王號의 순서로 기록되는데, 봉평리비의 ‘喙/牟即智/寐錦王’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문자를 새기는 방식에서 획수와 필순에서 정확하게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는 황남대총 부분에 보이는 ‘夫人帶’를⁷⁾ 새기는 방법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부인대는 위에서 아래



로 문자를 새기고 있으나 획수와 필획이 정확하지 않게 새겨졌다. 문자는 필획을 무시하고 새기기 편한 방향에서 새기고 있다. 횡으로 새긴 획은 왼쪽이 날카롭고 오른쪽이 깊고 넓은 형태이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새기고 있다.⁸⁾ 종으로 새긴 획은 아래가 날카로운 것과 위가 날카로운 것이 있다. 어떤 획은 위에서 아래로 긋고 어떤 획은 아래에서 위로 새김으로써 서로 문자를 시작하는 지점이 달라 진행되는 방향이 달랐던 것이다. 이는 새기는 사람이 오른손잡이로서 자신이 새기기 편리한 방향에서 한자를 모양 그대로 서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현상이다. 이러한 황남대총 북분의 ‘부인대’ 단계와

비교하여 금관총 ‘이사지왕’ 단계의 문자 습득의 이해도가 향상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尔斯智王’과 더불어 함께 고려하여야 할 문자가 ‘十’이다. ‘尔斯智王’과 ‘十’은 같은 방법으로 새겨져 있는 문자로서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문자 중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문자를 새긴 예가 있다. 황남대총 북분의 부장곽에서 출토된 은제 허리띠에 나오는 ‘夫人帶’·‘十’이다. 은제 과대의 띠끝꾸미개에는 날카로운 금속제 도구로 ‘夫人帶’와 ‘十’이라는 명문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새겨져 있다. 보고자는 이를 은제과대 장식을 만든 장인이 주문 생산에 의해 구입자 혹은 주문자를 구별하기 위해 새긴 것이어서 무덤 주인공의

7) 국립중앙박물관, 2010 『황남대총』, 특별전 도록, p.146, 도판184.

8) 함순섭(국립대구박물관)선생은 날이 날카로운 송곳으로 새길 경우는 깊고 넓은 쪽이 마치는 지점이 시작이 아니라 마치는 지점일 수 있다는 금속공예 기법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다. 횡으로 새긴 것은 앞으로 현미경 조사 등 세밀한 조사가 요구되지만, 종으로 새긴 것은 두 가지 방향이 모두 인정되므로 필획과 필순이 다르다는 점에서는 이상이 없다.

性別과 피장자를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하였다.⁹⁾ 이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한 견해이지만, 부인대명 허리띠끝꾸미개는 피장자가 허리에 차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장곽에서 출토되어 반드시 피장자가 허리띠끝꾸미개의 원소유자라고 할 수만 없다. 이 경우에는 신라의 왕비에 해당하는 부인이 허리띠끝꾸미개의 제작자(주문자)이자 사용자(소유자)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를 곧바로 황남대총 북분의 피장자와 완전히 일치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부인의 구체적인 이름은 없으나 왕비와 관련된 허리띠라는 의미와 더불어 ‘十’이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부인의 이름이 알 수 있는 예로는 눌지왕의 비인 阿老夫人, 지증왕의 비인 鳥生夫人 등을 들 수 있다. 이전에는 주로 부인대의 해석에만 주력하고 ‘十’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았으나 이번 자료와 더불어 재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금관총 출토 은제 허리띠끝꾸미개(도판 제39-4)에서도 동일한 문자인 ‘十’이 발견되었으며, 또 다른 은제 금구에서 ‘十’이 새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황남대총 북분의 허리띠꾸미개와 금관총의 대도·허리띠끝꾸미개의 명문은 동일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일하게 지위를 알려주는 ○○○王과 夫人이 새겨져 있으며, 부호나 숫자에 해당하는 ‘十’이 일정한 간격을 두거나 앞뒷면에 분리하여 새겨져 있다. 이렇게 보면 ‘余斯智王’과 더불어 ‘十’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명문대도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十’을 ‘八’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숫자인 十이 되어 (2)환두대도는 10자루의 환두대도 중에서 8번째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八’에 해당하는 문자가 대도의 금속제 부속구에서 2점 더 확인되어 10 중의 8이라는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十’은 호우총 출토 호우와 일본 스다 하치만 신사[隅田八幡神社]에 보관되어 있는 人物畫象鏡에도 나오는 문자이다. 이러한 十의 의미에 대해서는, ①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미 없는 표시로 보는 설(김재원), ② 열 개를 鑄造하였음을 나타낸다고 보는 설(末松保和), ③ 불교사상에 의한 圓滿·無盡함을 나타내는 뜻으로 보는 설(金在滿), ④ 什器의 什의 약칭으로 보는 설(김원용), ⑤ 일종의 종지부로 보는 설(古江亮), ⑥ 일종의 길상의 뜻으로 보는 설(駒井和愛) 등의 견해가 있다. 아직 정설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신라의 다양한 금석문에서 해석을 찾아야 한다.

한국 고대 금속기에서 ‘十’이 기입된 예는 호우총 출토 호우, 황남대총 북분 은제 허리띠장식, (일본 隅田八幡神社 인물화상경) 등과 더불어 금관총 출토 명문대도(3점), 은제 허리띠끝꾸미개(1점)에도 보인다.

이로 보아 ‘十’은 숫자, 길상구, 종지부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며, 대도의 제작자인 공인이나 감독관이 제작단위나 제작처(제작 공인집단)를 표시하기 위해 새겼거나 주술적인 의미

9) 문화재관리국, 1984 『황남대총 남분 발굴조사보고서』, p.93

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글에서는 칼의 사용과 무덤에 부장된 의미로 보아 주술과 관련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금관총 출토 금속기 제작자는 명문대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주술적인 의미에서, 무덤에 부장하는 습속과 관련하여 무덤에 묻힌 靈이 무덤을 벗어나지 못하게 봉하는 의미에서 ‘十’을 대도나 허리띠꾸미개에 새겼던 것이다. 경주 화곡리 명문 토기에서 十자를 새긴 위치가 바닥 외면의 굽 안에 새긴 것도 이것과 관련하여 해석할¹⁰⁾ 수 있다.

이러한 주술적인 의미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자료가 황남대총 북분 부장곽에서 출토된 명문 있는 은제 관꾸미개(銀製冠飾)이다. 여기에서는 ‘夫’·‘百’이 예리한 도구로 선각되어 있다.¹¹⁾ 단 2자만 새겨져 있어 구체적인 의미를 알기는 어렵지만, 이와 관련된 자료가 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2012년)에서 출토된 청동접시의 명문자료이다.¹²⁾ 신라 王京의 1坊 내 35호 건물지 내에서 地震具로 사용된 청동용기에서 ‘辛番東宮洗宅’이 새겨져 있으며, 나중에 ‘番’자는 지우고 그 위에 ‘夫’자를 새기고 있다. ‘夫’자는 일본 墨書土器에서 ‘奉’과 관련되어 간략하게 사용되기도 하는 문자이므로 奉(봉헌하다, 받들다)으로 해석할 수 있다.¹³⁾ 이와 관련하여 해석하면, 夫자가 ‘받들다’라는 奉을 의미하며 의례와 관련하여 사용된 문자로 볼 수 있다. ‘百’은 제작된 수량인 지 아니면 단순히 많다는 의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와 같이 무덤에 봉안된 금속제 부장품에 보이는 ‘十’은 ‘夫’와 더불어 주술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문자로 볼 수 있다.

또한 금관총에서는 ‘八’이라는 문자가 다수 발견되었다. 기존에 알려진 것과 더불어 금관총에서 출토된 다른 명문대도의 칼집 장식에서 ‘八’의 명문이 2개 더 발견되었다. 금관총에서 발견된 (2)금은장 명문 환두대도나 칼집 장식에 새겨진 ‘八’은 새긴 위치와 방향이 횡으로 되어 있어 다른 문자나 부호와 다른 시점에 새겨진 것으로 보인다. ‘八’이 3개나 발견되었기 때문에 대도의 일련번호라기 보다는 다른 의미에서 새긴 번호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도를 포함한 무기는 武器庫에 보관되었을 것인데, 대도가 보관된 무기고의 창고번호가 8번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다른 예가 없는 상황에서 창고의 번호로 추정하는 선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로 보아 ‘八’은 보관자가 관찰하기 편하게 횡으로 숫자를 새겨 보관의 편리성을 보여주고 있다.

10) 졸고, 2014 『新羅 王京 출토 銘文土器의 생산과 유통』 『韓國古代史研究』73, pp.139~140.

11) 국립중앙박물관, 2010 『황남대총』, 특별전 도록, p.39, 도판14.

12) 최순조, 2013 『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 유적 출토 신명문자료』 『木簡과 文字』10, 한국목간학회.

13) 졸고, 2013 『韓國古代呪符木簡의最新資料と『龍王』銘木簡』 『古代東アジアの國際交流』, 交響する古代Ⅲ, 明治大學 日本古代學研究所.

Ⅱ. 兪斯智王, 명문대도, 金冠塚의 피장자

1. 이사지왕과 명문대도

금관총 부장례에서 이사지왕 명문대도가 출토되었으므로 금관총 피장자=명문대도=이사이왕의 개별적인 관계 아래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몇 가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① 금관총 피장자=명문대도=이사이왕을 모두 일치시키는 경우이다. 금관총의 피장자는 평소 자신의 왕호가 새겨진 명문 환두대도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가 죽자 무덤에 부장하였다. 제작처가 왕실공방인지 部의 공방인지에 관계없이 칼을 소유하게 될 사용자의 왕호를 새긴 것이다. 이 경우에 금관총에서 금관이 출토되었으나 금관총이 왕릉급에 해당하지 않는 무덤이므로 이사지왕은 국왕이 아니라 여러 왕(干支) 중의 하나라는 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확하게는 이해되지만 당시 간지라는 신라식 용어를 중국식인 왕으로 모두 단순히 바꾸었는지 아니면 일정한 범위의 간지들을 왕이라 하였는지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사료나 금석문에서 국왕이 아닌 구체적인 ○○王이 존재할 가능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금관총 피장자는 여성이라는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이사지라는 남성의 이름을 소지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 물론 금관총 피장자를 남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므로 결정적인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② 금관총 피장자≠명문대도=이사이왕의 공식이다. 명문대도가 피장자의 신체 부위에 착장되지 않았으므로 명문대도를 사용한 이사지왕은 금관총 피장자가 아니라는 가정이다. 금관총이 여성의 무덤이라는 견해를 수용하면 더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목관 주위를 ‘兪斯智王’의 약칭인 ‘兪’가 새겨진 명문대도를 비롯하여 장식대도가 놓여있으므로 피장자가 대도를 소유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¹⁴⁾ 이를 근거로 금관총 피장자를 남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 피장자를 이사지왕과 일치시킬 수도 있게 된다.

③ 금관총 피장자=명문대도≠이사이왕의 공식이다. 금관총 피장자가 명문대도를 사용하였지만 이사지왕과 일치시키지 않을 수 있다. 명문대도는 국왕인 이사지왕이 하사한 칼이며 사용자는 금관총에 묻힌 인물에게 된다. 그러나 명문대도 중에 이사지왕의 약칭인 ‘兪’가 있어 국왕이 명문대도를 하사하면서 약칭을 사용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14) 금관총 보고서의 유물출토 상태는 발굴 후 수습자의 메모와 기억을 토대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목관 내에 대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주저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금관과 금허리띠의 위치에 대한 기술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거의 일치하며, 3인의 수습 도면에서 대도에 대한 기술은 없다. 이로 보아 피장자의 신체부위에서 대도가 출토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단순히 금관총 피장자=명문대도=이사지왕으로 관련 지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에 금관총과 그 부장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장자와 이사지왕의 관계를 설명하기로 한다. 이사지왕과 명문대도의 소유관계, 그리고 금관총의 피장자와는 어떠한 관계인 지를 명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1) 금동제 환두대도에 새겨진 ‘尔斯智王’은 환두대도와 어떤 관계인가가 문제이다. 이는 이사지왕이 환두대도를 제작·생산하고 사여한 인물인가 아니면 환두대도를 사용한 인물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환두대도의 제작·소비와 관련된 문제이며, 문자를 새긴 방법이나 시점과 관련을 가지고 검토하여야 한다. 환두대도의 명문은 끝 혹은 송곳으로 새긴 陰刻이며, 새긴 이후에 금·은과 같은 금속으로 문자를 메우는 象嵌의 형태가 아니라 날카로운 도구로 그은 線刻으로 새긴 것이다.

먼저 명문대도가 부장된 위치가 목관의 동쪽에 있는 유물 부장곽(궤)인 점이 주목된다. 이 환두대도는 목관 내 피장자의 곁에서 착장된 채로 출토된 것이 아니라 부장곽에서 발견되었으며, 다른 명문대도도 목관 바깥 북측에서(?) 출토되었다. 일단 피장자와의 관계가 착장대도에 비해 동일성을 갖기 힘든 상황이다. 물론 (2)명문대도가 피장자가 안치된 목관 좌우에서 여러 개체가 함께 부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피장자와의 관계란 측면에서 한발자국 떨어지게 된다. 또한 이사지왕의 왕명이 새겨진 (1)환두대도는 부장곽에 부장되어 피장자와의 관련성을 좀 더 떨어지게 하고 있다.

명문대도에 새겨진 이사지왕은 남성에게 붙인 왕의 호칭으로 추정할 수 있다. 6세기 이후에 신라 왕족이나 귀족은 남자가 智·夫智, 여자가 娘·里를¹⁵⁾ 존칭어미로 사용하고 있어 이사지왕은 남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5세기 신라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5세기 적석목곽묘가 조영되던 시기에 신라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여성도 智를 존칭어미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남성의 존칭어미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사지왕은 이름이 이사지이며, 이름을 왕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사지왕을 추정하기 위해 이사지라는 이름과 왕이라는 왕호로 나누어서 그가 어떠한 인물을 지칭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신라 중고기 금석문에서 신라 왕명이 전하는 기록은 냉수리비가 있다. 냉수리비에는 신라 왕의 구체적인 이름이 나온다. ‘斯夫智王’, ‘乃智王’이 나오며 이들은 ‘前世二王’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로 보아 냉수리비가 세워진 503년 무렵에는 생존해 있지 않은 이전의 왕을 지칭하고 있다. 이중에서 내지왕은 눌지왕의 또 다른 왕명인 丙只王과 발음이 같아 눌지왕을 나타내므로 사부지왕은 그 이전의 왕인 실성왕을 지칭할 가능성이 높다. 이 비에는 또 다른 왕에 대한

15) 줄고, 2012 『신라 통일기 梵鍾의 銘文 분석과 사회상』 『韓國古代史研究』68, pp.242~243.

언급이 보인다. ‘此七王等共論’에서 七王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으며 그 앞에 기록된 “至都盧/葛文王, 斯德智/阿干支, 子宿智/居伐干支, 尔夫智/壹干支, 只心智/居伐干支, 頭腹智/干支, 暮斯智/干支”의 7인을 지칭하고 있다. 갈문왕이나 간지를 칭하고 있는 인물을 모두 칠왕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표기상으로 왕을 칭하고 있는 경우는 至都盧/葛文王 1인 뿐이다. 비록 보통명사로서 왕은 二王, 七王과 같이 2그룹이 있으나 실제로 왕을 칭하고 있는 인물은 3인에 불과하다. 또한 지도로/갈문왕도 왕이 아니라 갈문왕이라고 칭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왕을 칭한 경우는 국왕에 해당하는 경우만이다. 비록 일반명사로서는 왕이라 칭하는 그룹이 존재하고 있으나 고유명사인 왕호로서는 국왕만이 ○○왕을 칭하고 있다. 동일한 비문에서 고유한 왕호를 칭할 수 있는 경우는 신라 국왕(돌아가신 국왕도 포함)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신라 중고기 금석문에 보이는 국왕의 호칭은 몇 차례 변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524년에 세워진 봉평리비단계에서는 범흥왕이 ‘牟即智/寐錦王’이라는 매금왕 칭호로 불리우고 그 아래에는 徙夫智/葛文王을 칭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일반적으로 ○○王의 구체적인 예로는 매금왕과 갈문왕이 있게 구별하게 된다. 그러나 냉수리비에 보이는 바와 같이 단지 ○○왕이라고 칭할 경우에는 국왕만을 지칭하여 갈문왕과 구별하고 있다. 신라 국왕은 일반적으로 ○○왕으로 지칭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에는 매금왕을 칭하였을 것이다. 매금왕은 麻立干(매금)에다가 왕이라는 글자를 덧붙인 것이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539년에 새겨진 울주 川前里 書石 追銘단계에서는 범흥왕은 ‘另即知太王’이라고 칭하여 처음으로 태왕(대왕)으로 칭호가 변하고 있다. 太王이라는 칭호는 천하사방을 다스리는 대군주로서 왕의 존칭으로 같은 의미이다. 왕의 칭호가 마립간에서 태왕으로 바뀌는 시기는 금석문으로 보아 대략 530년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35년에 새겨진 천전리 서석의 乙卯銘에서는 ‘聖法興大王’이라 칭하여 태왕이라는 칭호와 더불어 불교적인 명칭이 결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신라 국왕은 다양한 칭호로 불렸으나 동일한 금석문에서 ○○○王의 호칭은 신라 국왕임을 알 수 있다.

냉수리비에 나오는 斯夫智王과 乃智王이 눌지왕이나 그 이전의 왕의 칭호와 관련이 있지만 왕이라는 호칭이 5세기 단계 눌지왕 이전에도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503년 단계에서 사용되던 왕이라는 호칭을 소급하여 이전 왕을 표현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신라에서는 지증왕 4년(503) 冬10월에 ‘新羅’라는 국호와 ‘新羅國王’이라는 왕호를 사용하였다고 삼국사기에는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냉수리비에서는 지증왕 4년 9월 25일에 공문하여 敎를 내리고 있다. 같은 503년에 해당하는 기록이지만 신라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국왕을 ○○王으로 칭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전 시기 금석문을 검토하기로 한다. 5세기 금석문에 보이는 신라 국왕의 호칭이 여러 곳에 보인다. 장수왕 2년(414)에 세워진 광개토대왕릉비에는 ‘新羅寐錦’, 중원고구려비에는 ‘高麗大王’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新羅寐錦’ ‘東夷寐錦’ ‘寐錦土內’ 등의 표현이 보인다. 중원

고구려비에서도 왕이나 대왕으로 호칭된 인물은 단 한 사람 고구려 국왕으로 한정되고 신라 국왕은 매금, 곧 마립간으로 호칭되고 있다. 고구려가 통괄하는 천하에서는 왕 곧 대왕은 고구려의 국왕 한 사람만인 것이다.

따라서 5세기 신라 적석목곽묘가 조영되는 시기에 신라 국왕은 고구려와의 관계에서는 매금에 해당하고 신라 국내에서는 매금이자 ○○○王으로 호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왕이라는 호칭은 자신의 독자적인 세계관(천하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집단의 장에 대한 호칭이었으며 상대적인 개념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지역집단을 ○○王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며, 이질적인 지역집단을 거느린 존재에 대한 호칭이었다. 고구려의 대왕에 대하여 신라의 왕은 매금으로 불리었으나 신라 국내에서는 매금이자 왕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사지왕은 어떠한 세력의 장이었는가. 먼저 이사지왕을 신라 국왕에 비정할 수 있다. 고구려와의 관계에서는 매금이라는 고유한 칭호로 불리웠으나 신라 국내에서는 매금이자 왕으로 호칭되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신라 土內에서 여러 지역집단을 아우르는 왕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경우는 위의 냉수리비에 보이는 七王과 같이 갈문왕과 ○○간지라고 칭해지는 존재이다. 곧 기존에 사용하던 간지를 중국식 표현인 왕으로도 불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적인 지역집단의 장에 대한 표현이므로 신라 6부에 속한 지역집단(部內部 등)과 더불어 지방의 지역집단 장에게도 해당하는 용어이다. 간지는 냉수리비(503년)에서는 신라 6부의 간지 등 회의(후대의 화백회의 등)에 참여한 집단의 장을 지칭하고 있으며, 중성리비(501년, 441년)에서는 신라 6부의 지역집단의 장(部 및 部內部)뿐만 아니라 지방의 촌 단위 지역집단의 장도 干支를 칭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중성리비단계 이전에 이미 간지는 중앙이나 지방의 지역집단의 장을 일컬으며, 미분화 상태이기는 하지만 시원적인 형태의 경위와 외위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미 신라 국왕의 운영체계에 포함되고 있었다. 이렇게 간지를 왕으로 보려고 한다면 신라 6부에 속한 지역집단의 장과 지방 촌 단위 지역집단의 장인 간지가 모두 왕으로 지칭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간지를 왕으로 호환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수많은 간지를 왕으로 상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회의나 신라 국가에 관계된 군사, 외교 등의 방면이나 국가 관련 비문에서 각 지역집단의 장인 간지를 구체적으로 ○○왕이라 칭하기 곤란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명문대도의 이사지왕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명문대도의 생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5세기 적석목곽묘가 만들어지던 시대에는 삼루대도를 비롯한 장식대도는 신분이나 지위와 관련하여 소유되고 있었다.¹⁶⁾ 용봉문대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삼루환두대도-삼엽문환두대도-소환두대도의 순으로 신분에 따라 소유되었던 것이다. 만약 裝飾大刀가 신분이나 계층성을 반영하고 있

16) 李漢祥, 1997 『裝飾大刀의 下賜에 반영된 5~6世紀 新羅의 地方支配』 『軍史』 35, pp.17~18.

다면 그 생산과 유통은 신라 국왕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 국왕과 관련된 공방에서 제작하여 분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6부의 지역집단도 무기를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신분과 관련된 장식대도는 신라 국왕과 관련하여 제작되어 분배되었을 것이다. 비록 6부나 지방의 공방에서 제작하였더라도 왕실공방과의 관련 아래에서 제작하였을 것이다.

일본 고대에서도 명문대도는 왜국 국왕과 관련하여 제작, 분배되었다.¹⁷⁾ 5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王賜명 철검에¹⁸⁾ 나오는 왕은 일본 국왕(倭王)을 지칭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왕으로 호칭하기도 하지만 중국 남조와의 관계에서는 王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또한 에타 후나야마고분(江田船山古墳) 출토 명문대도와¹⁹⁾ 사이타마 이나리아마고분(埼玉稲荷山古墳) 출토 명문철검 도²⁰⁾ 명문에²¹⁾ 나오는 무리테[无利託]와 오와케[乎獲居]가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왕실공방과 관련 아래에서 제작하여 하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국왕이 생산 제작의 주체가 되어 器物을 제작하는 시스템은 고구려에서도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자료가 서봉총 출토 연수명합과 태왕릉 출토 명문방울이다. 연수명합에는 그릇뚜껑 내부에 “延壽元年太歲在卯三月中 / 太王 / 敬造 / 合杆 / 用三斤六兩”, 바닥 바깥에 “延壽元年太歲在辛三月□ / 太王 / 敬造 / 合杆 / 三斤”이라 새겨져 있다. 이는 ‘시기+왕명+제작행위+용기+중량’의 순으로 새겼으며, “연수 6년 태세 신묘년 3월에, 태왕이 삼가 만든 합우, 3근 6량(3근)을 사용하였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太王 / 敬造”를 “태왕을 위하여 삼가 만든”으로 해석하지만 이것은 태왕이 제작 주체가 되어 관영 공방에서 제작한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서사 구조를 가진 것이 태왕릉 출토 청동방울이다. 청동방울에는 “辛卯年 / 好太王 / □造 / 鈴 / 九十六”가 새겨져 있는데, ‘시기+왕명+제작행위+금속기+수량’의 순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신묘년(광개토대왕 즉위년, 391년)에 호태왕이 만든 방울로서 96번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광개토대왕이 제작 주체가 되어 왕실 공방에서 제작하게 한 방울인 것이다. 두 명문에서 보듯이 고구려에서는 국왕인 태왕이 제작 주체가 되어 왕실 공방에서 중용한 금속제품을 생산 제작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금관총 출토 이사지왕명 환두대도를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비교자료이다.

17) 川口勝康, 1993 『刀劍の賜与とその銘文』, 『岩波講座 日本通史』2, 岩波書店 pp.339~342; 森下章司, 2004 『鏡・支配・文字』, 『文字と古代日本』I, 支配と文字, pp.20~22..

18) 市原市教育委員会・市原市文化財センター編集, 2012 『千葉県市原市稲荷台一号墳出土 王賜銘鉄剣 概報』, 吉川弘文館.

19) 東京國立博物館, 1993 『江田船山古墳出土 国宝 銀象嵌銘大刀』, 保存修理報告書.

20) 埼玉縣教育委員會, 2012 『埼玉稲荷山古墳 辛亥銘鐵劍保存修理報告書』.

21) 이나리아마고분에서 출토된 명문철검에 나오는 오와케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으나 대략 오와케-고분 역관 피장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음의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①오와케는 北武藏의 수장층이고 이나리아마고분 磯櫛被葬者と 동일인이다. ②오와케는 중앙의 수장층이고, 이나리아마고분 磯櫛被葬者에게 명문철검을 하사하였다. ③오와케는 중앙의 수장층이고, 東國에 파견되어 當地에서 죽었던 이나리아마고분 磯櫛被葬者이다. 이 자료에 대한 해석은 이사지왕명 환두대도와 금관총 피장자와의 관계에서 참고할 점이 많은 자료이다.

위에서 소개한 연수명 은제합은 고구려에서 제작한 것이나 신라 고분인 서봉총에서 출토되었다. 또한 신라 고분인 호우총에서 출토된 명문 청동제합도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관계가 있으며, 그릇이 만들어진 시점과 무덤에 묻힌 시점은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릇이 만들어진 시점은 고구려의 5세기대이나 무덤에 묻힌 시점은 신라의 5세기 후반(서봉총)이나 6세기 전엽(호우총) 무렵이다. 이것이 만들어진 후에 바로 고구려에서 신라로 전해졌거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 전해졌거나 관계없이 이들을 받은 신라인은 문자를 이해하였거나 이해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더 나아가 고구려의 금속기 명문에서 제작주체를 표기하는 방법을 배웠을 것이다. 이러한 제작공정과 문자표기법을 이해하여야 금관총 출토 명문대도의 이사지왕을 이해할 수 있다.

이사지왕과 명문대도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생산(제작)과 소비(사용)의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사지왕은 명문대도를 제작한 주체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를 사용한 소비 주체로 이해할 수도 있다.²²⁾ 이 문제는 명문대도의 제작 및刻書 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제작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명문 자체에 대한 분석에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명문의 기입 방법이 칼을 패용하는 입장에서 잘 보이도록 새기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를 고려하고 있다. 또한 (2)금은장 환두대도의 칼집 하단에는 ‘尔斯智王’의 약칭인 ‘尔’만을 적고 있다. 만약 이사지왕이 생산 주체라고만 한다면 왕명을 간단하게 약칭으로만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사용하는 과정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가능한 서사 행위이다. 따라서 이사지왕은 사용자인 소비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과의 관계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신라사회에서 장식 환두대도는 신분을 가늠하는 측도이었으므로 생산이 통제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사지왕은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로서 이 칼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황남대총 북분 부장곽 출토의 ‘夫人帶’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비의 팔찌 명문²³⁾이다. 허리띠장식과 팔찌는 백제와 신라의 왕비인 부인이 제작의 주체이자 사용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금관총 피장자, 명문대도, 이사지왕과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일단 가설로서 ①금관총 피장자=명문대도=이사지왕, ②금관총 피장자≠명문대도=이사지왕, ③금관총 피장자=명문대도≠이사지왕 등 3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였다. 신라 무덤에서 왕호가 나온 유일한 예이므로 확정할 수는 없으나 다른 금석문에 나오는 왕호를 중심으로 금관총 피장자≠명문대도=이사지왕에 접근하는 결과를 내놓았다.

22) 중국 고대 금속기에 보이는 명문은 漢代에는 주로 생산 주체의 입장에서 관영공방의 제작자나 공인을 표현한 것이 많았으나 형태가 비슷한 弩는 사용자를 주로 표현하고 있다. 이 글과 관련이 있는 명문대도나 철검은 주로 생산 주체나 공인을 표현하고 있다(岡村秀典, 1999 『秦漢金文の研究視角』 『古代文化』43-9; 吉田晶, 2001 『七支刀の謎を解く 四世紀後半の百濟と倭』, 新日本出版社; 桃崎祐輔, 2005 『七支刀の金象嵌技術にみる中国尚方の影響』 『文化財の技術』4, 工芸文化研究所).

23) 이 팔찌의 명문은 “庚子年二月多利作大夫人分二百卅主耳”이며 “경자년(무령왕 20년, 520) 2월에 다리가 만들었다. 대부인의 것으로 230銖를 사용하였다.”로 해석할 수 있다.

2. 금관총의 피장자와 이사지왕

금관총 출토 ‘兪斯智王’ 명문대도라는 점을 생산(제작)과 유통(소비)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제 금관총과 그 출토유물을 분석하여 피장자와 이사지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금관총의 절대적인 연대에 대한 확정에는 없으나 장신구와 금관의 변화를 고려하면 황남대총 남분-북분-금관총·서봉총-금령총·천마총-호우총 등의 상대 편년은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²⁴⁾ 문제는 절대연대에 대한 결정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실마리로 문제를 풀고자 한다. 금관총에서 출토된 허리띠의 띠꾸미개(鈔板)와 동형의 제품이 공주 송산리 4호분에서 출토되었다. 송산리 4호분은 무덤 구조로 보아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해당하는 무덤이다. 송산리의 띠꾸미개는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을 맺은 이후에 백제로 유입되었을 것이나 송산리고분이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웅진백제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5세기 4/4분기로 편년할 수 있다.²⁵⁾

금관총의 피장자와 관련하여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금관총의 분구 규모로 보아 신라 국왕이라기 왕족에 해당하는 인물이 묻혔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부장품의 종류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면서 피장자가 여성인지 아니면 남성인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금관총에서 출토된 금제 부장품으로 보아 최고급에 해당하는 신분의 사람이 묻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에서 피장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장품이 금제 帶冠, 금제 帽冠, 금제 장신구, 장식대도(명문대도), 갑옷편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장품이 위치한 공간이 중요하다.

먼저 남성이라는 견해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징표로 장식대도의 패용과²⁶⁾ 모관의 부장이²⁷⁾ 가장 중요하고 한다. 그리고 왕실의 성인 남성을 성인여성·청소년과 구별하는 것은 모관이었을 것이다. 황남대총 남분과 천마총에서는 60대 남성의 인골이 유해부에서 출토되었으므로 무덤 피장자가 남성임을 알 수 있고 금관총은 출토상태가 불분명하지만 금제 삼루 환두대도를 비롯해 금동제 투구 등이 확인되고 있어 성인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편 황남대총 북분에서는 은제 ‘夫人帶’명 허리띠 끝꾸미개와 부장품이 나와 왕비일 가능성이 있으며, 서봉총도 부장유물로 보면 왕족 여인일 가능성이 있고 금령총은 왕자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성인 남성만이 금제 모관을 소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금관총에서도 금제 모관(관모와 관식)이 부장계에서 출토되어 성인 남성과 관련지을 수 있다. 그런데 금관총에서 피장자는 장식대도를 패용하고 있지 않았고 목관 주위에 부장하고 있으며, 금동제 갑옷도 부장계에서 발견되었다.

24) 崔秉鉉, 1991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李鍾宣, 1992 「積石木槨墳의 編年에 대한 諸論議」, 『韓國古代史論叢』3,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李熙濤, 1995 「경주 皇南大塚의 연대」, 『嶺南考古學』17, 嶺南考古學會.

25) 이한상, 2004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p.101.

26) 이한상, 2004 위의 책, p.75.

27) 咸舜燮, 2012 「新羅 樹枝形帶冠의 展開過程 研究」, 경북대석사학위논문, p.61.

다음으로 피장자를 여성으로 보는 견해로서,²⁸⁾ 여성의 무덤에서는 모두 대관이 출토되지만 여성은 태환이식, 남성은 세환이식과 대도가 동반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금제 대관에 대해서는 남녀가 같이 착용하였다거나, 대관은 주로 여성의 무덤·금동관은 주로 남성의 무덤에 부장된다고 한다. 천마총을 제외하면 금관은 모두 여성의 무덤에 부장된다는 것이다. 금제 대관을 여성 사제자와 연결시키고 천마총 단계를 전후하여 남성 사제자로 변한다는 논리로 발전하고 있다.²⁹⁾ 그리고 금관총의 피장자에 착장된 부장품이 太環耳飾, 頸飾 등으로 보아 신라고분에서 보이는 여자의 부장품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피장자 신체의 착장부위를 기준으로 하면 금관총 피장자는 환두대도를 착장하지 않은 채로 묻힌 여성상에 더 가깝다고 한다.³⁰⁾

이와 같이 금관총은 공사 중 급하게 수습조사되어 피장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피장자가 성인이라는 것은 인정되지만 男女의 성별을 나누기는 곤란하다. 이 경우에 다시 주목하여야 할 것이 목관 주위에 부장된 장식대도의 부장양상에 대한 이해이다. 앞장에서도 일부 서술한 바와 같이 (1) 환두대도는 부장제, (2) 환두대도는 목관 바깥 복측, (3) 환두대도는 목관 바깥 남측(?), 귀두대도(또는 은장대도) 목관 서측 상부에서 출토되었다. 나머지 환두대도나 도검도 부장제나 목관 좌우에서 출토되었을 것이다. 도면상으로 피장자의 신체 부위에서 출토된 환두대도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에 목관 주위에 매납된 대도, 小玉類, 사행상철기와 함께 빈공간에 주목한 견해가 있다.³¹⁾ 환두대도가 목관과 鐵鋌·鐵塊 사이에서 사행상철기·소옥류와 함께 부장되었을 것으로 상정하여 4인 정도가 이 공간에 순장되어 壇上祭가 거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환두대도의 명문이 발견되기 전의 상황에서 추정한 것이다. 유물 부장의 경향성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순장자가 대도를 착용한 것이라면 명문대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으므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기대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명문 환두대도가 피장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피장자와 환두대도를 분리하여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명문 환두대도는 피장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짓기 보다는 이사지왕과 관련지어야 한다. 금관총 피장자와 이사지왕의 관계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으나 금관총의 造墓者는 피장자와 이사지왕의 관련성으로 말미암아 명문 환두대도를 부장하였던 것이다. 피장자의

28) 李熙濬, 2002 앞의 논문; 金龍星, 2010 『新羅 麻立干時期的 王陵 皇南大塚 南墳』, 『황남대총』, 국립중앙박물관, p.212.

29) 6세기 중엽 신라의 지방에서는 변형 수지형 금동관이 지방에서 巫적 존재(사제자)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어 참고가 된다(줄고, 2001 『新羅 中古期 村制의 성립과 지방사회구조』,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89~190).

30) 이희준은 모관이 성인 남성과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도 금관총은 여성으로 보고 있다(李熙濬, 2002 『4~5세기 신라 고분 피장자의 服飾品 着裝 定型』, 『韓國考古學報』47, 한국고고학회, p71·81).

31) 崔鍾圭, 2011 『積石塚의 封, 槨, 殉』, 『考古學探究』9, pp.33~34.

관점 보다는 조묘자측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이 경우에 조묘자와 이사지왕을 일치시킬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므로 이 정도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한다.

그러면 이사지왕은 상대 기록에 나오는 어느 왕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는가가 문제이다. ‘尔斯智王’이라는 왕명은 『三國史記』, 『三國遺事』 및 신라 금석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는 ‘尔斯智王’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금관총의 연대에 부합하는 국왕으로는 자비왕과 소지왕이 있으므로 자비왕이나 소지왕의 또 다른 신라식 칭호가 이사지왕으로 추정된다.

자비왕과 소지왕대에는 신라에서 새로운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다. 자비왕 12년(469)에 왕경의 坊里名을 확정하였으며,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대비하여 눌지마립간 시기에 체결된 羅濟同盟을 보다 강화하였다. 그리고 고구려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이 산성을 축조하였다. 한편으로 소지왕대에는 9년(487)에 奈乙神宮을 신설하고 영역을 연결하는 郵驛을 설치하고 官道를 수리하였다. 12년(490)에는 왕경에 처음으로 市場을 열어 사방의 물류를 유통시켰다.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에서 이사지왕을 이해하여야 하며, 신라 왕권의 신장과 연결하여야 해석할 수 있다. 눌지왕에서 소지왕으로 이어지는 왕통은 이전 시기에 비해 父子繼承이 안정을 보이고 있다. 물론 삼국사기에는 3대에 걸쳐 장자계승을 보여 주고 있으나 삼국유사에는 소지왕이 자비왕의 3子라고 하여 다른 측면도 있으나 부자계승이었다. 부자계승과 더불어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왕릉이 정비되었을 것이며, 기록상 “修葺歷代園陵”으로³²⁾ 표현되었을 것이다. 눌지왕이후 왕릉은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갔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조성된 금관총도 왕릉(봉황대)과의 관계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금관총의 피장자도 왕인 ‘이산지왕’과의³³⁾ 관계에서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32)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19年條

33) 금관총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변 무덤 중에서 왕릉과 결부할 수 있는 고분은 봉황대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직 금관총과 봉황대의 관계가 고고학적으로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성만 지적하는 선에 머무르고자 한다.

맺 음 말

이 글은 尔斯智王명 대도와 금관총의 피장자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일반적으로 금관총 피장자=명문대도=이사지왕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공식에서 출발하여 ‘尔斯智王’이 누구인가란 단순 논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명문의 해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이 새겨진 환두대도가 출토된 금관총이라는 유구와 부장품의 부장양상을 고려하여 고고학적인 환경의 분석에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어 대도에 명문이 새겨진 시점, 새기는 방법(線刻), 명문의 위치와 읽는 방법 등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명문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명문이 새겨진 시점은 환두대도를 완성한 이후에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線刻하였으며 환두대도를 사용하는 방법(패용방법)에 따라 명문을 새기는 방법이 다름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환남대총 북분의 ‘夫人帶’가 문자의 모양을 모방한 것에 비해 ‘尔斯智王’은 문자의 획수와 필순을 정확히 이해한 바탕에서 새졌다.

명문대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금관총 피장자, 명문대도, 이사지왕이라는 제요소를 각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명문대도=이사지왕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만 이사지왕과 금관총 피장자는 다른 인물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명문대도가 피장자의 신체 부위에 착장되지 않았으므로 명문대도를 사용한 이사지왕은 금관총 피장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으며, 신라 금석문의 예로 보아 이사지왕은 국왕을 지칭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사지왕은 자비왕이나 소지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시 이루어진 왕권 강화와 관련하여 이사지왕이라는 왕호를 해석하였다.

※ 이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의에 답해해 주시고 자료를 제공해 주신 홍보식(부산박물관), 이한상(대전대학교), 함순섭(국립대구박물관) 선생에게 감사드린다.

/ MEMO /

/ MEMO /

/ MEMO /

2014 국립중앙박물관 학술 심포지엄

金冠塚 尒斯智王

금관총과 이사지왕

기획·편집 고고역사부

펴 낸 곳 국립중앙박물관

(140-797)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463

찍 은 날 2014월 7월 9일

찍 은 곳 (주)계 문 사(02-725-5216)
